정답 및 해설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국어 1

1학기·전과정

창비

최원식



1 문학 소통과 개성적 표현

(1) 나는 오늘_오은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12~015쪽

01 ②	02 ⑤	03 ①	04 ⑤	05 ④	06 ④	07 ⑤	08 ①
09 ①	10 ⑤	11 ③	12 ②	13 ①	14 ②		

01 매 연의 1행 '나는 오늘 ~'에서 화자인 '나'를 거듭하여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대상을 관찰한 내용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나열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각 연에서 화자를 빗댄 대상의 속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화자의 다양한 마음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시상의 집약이란 시가 진행될수록 내용이 한 시어나 시구에 집중되는 시상 전개 방식을 말한다. 이 글은 각 연에서 화자의 다양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시상을 집약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2 매 연의 1행에서 '나는 오늘 ~'이라며 화자의 마음을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의인화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기어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 글에 '토마토', '구름' 등과 같은 자연물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연물을 의인화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매 연의 1행에 화자를 빗댄 다양한 대상이 나타나지만, 유사한 대상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④ 말하려는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A]에서 화자는 '네 옆을 맴돌'며 '너를 살아 있게 해 주고 싶'어 하는 '너'를 위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①의 화자는 임의 장수를 기원하며 약을 바치고 있으므로, 임을 위한 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A]와 그 정서가 가장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② 이상적 공간인 청산에 살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③ 조선 개국에 참여한 고려 유신인 작가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은 시조로, 검은 까마귀와 하얀 백로를 대조하여 겉과 속이 다른 소인배를 비난하고 있다. ④ 낙엽이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 홀로 피는 국화를 의인화하여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며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자신의 백발을 해묵은 서리에 비유하여 젊음을 되찾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04 ⓐ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대상으로, 이래도 저래도 속이 꽉 차 있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는 붉은색을 띤 대상으로, '네 앞에서' 온몸이 붉게 물든 화자의 설레고 부끄러운 마음을 보여 준다.

05 '구름'은 시시각각 표정을 바꾸는 대상으로,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로 미루어 보아 그때그때 자신의 기분에 취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구름'이 이상 세계를 동경하는 작가의 마음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이 글과 〈보기〉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더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으므로, '토마토', '나무', '유리', '구름', '종이', '일요일', '그림자', '공기'는 작가가 자신의 마음을 적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가져온 대상들로 볼 수 있다. ② '나무'는 햇빛을 받고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사방으로 자라는 대상으로, 세상 모든 것과 어우러져 함께 성장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유리'는 금이 가고 얼룩이 생기는 대상으로,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그림자'는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대상으로, 자신의 잘못이 계속 생각나서 무거워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06 ㉠에는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④의 '길이길이 푸르리니', '어이 아니 붉으랴'에서도 시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귀로 들을 수 있는 대상인 '종소리'를 '푸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 사용되었다. ② '찬물'에서 촉각적 심상을, '쏴아'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향그러운'에서 후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서느런 옷자락'에서 촉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0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작품을 읽는 독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⑤에서는 화자의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무엇에 빗댈 수 있을지 떠올려 보았다고 했으므로, 독자의 작품 수용에 초점을 두고 감상한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③ 작가와 관련하여 감상한 내용이다. ④ 작품 자체와 관련하여 감상한 내용이다.

08 화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자신의 다양한 마음을 고백적 어조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율격과 같은 외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쓴 산문적 진술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대조적인 대상이나 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7연에 자신이 잘못이 계속 떠오르는 화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나무'는 쏟아지는 햇빛을 받고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사방으로 자라나는 대상으로, 화자는 자신을 '나무'에 빗대어 세상 모든 존재와 어우러져 성장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2연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려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구름'이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며 떠다니는 대상이라는 점과 4연의 마지막 행에 나타난 화자의 마음('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으로 보아, 4연이 그때그때 자신의 기분에 취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③ '종이'가 텅 비어 있고 무언가 적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과 5연의 마지막 행에 나타난 화자의 마음('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했다')으로 보아, 5연이 종잡을 수 없어 위로가 필요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④ '그림자'가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대상이라는 점과 7연의 마지막 행에 나타난 화자의 마음('잘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으로 보아, 7연이 자신의 잘못이 계속 생각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⑤ '토마토'가 붉은색을 띤 대상이라는 점과 9연의 마지막 행에 나타난 화자의 마음('네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으로 보아, 9연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10 작가 맥락은 작가의 성향, 경험, 가치관 등과 연결해 작품을 수용하는 맥락을, 독자 맥락(㉮)은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수용하는 맥락을 의미한다. ⑤는 독자가 화자의 마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와 관련하여 감상한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③ 작가 맥락과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이다. ④ 작품 자체를 바탕으로 하여 감상한 내용이다.

11 후렴구는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는 시행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형식상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글에는 후렴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매 연을 '나는 오늘 ~'이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로 시작하고 있다. ② 매 연을 동일한 종결 어미 '-다'로 끝맺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의태어, 의성어)는 대체로 같은 음절이나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면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5연에서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음성 상징어 '사각사각(종이 위에 글씨를 잇따라 가볍게 쓸 때 나는 소리)'을 활용하고 있다. ⑤ '앞으로 걸어도 나 / 뒤로 걸어도 나'에서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12 〈보기〉에서 시를 쓰는 것은 '되어 보기'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고, 시를 읽는 것은 '되어 보기'를 따라가면서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라고 했다. 즉, 독자는 시인의 '되어 보기'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필 것이므로, 시를 읽는 것이 '되어 보기'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자신의 마음을 적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상적인 단어들을 가져와 그것들이 '되어 보기'로 했고, 시를 통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마음들을 보여 주고 싶다고 했다. 따라서 작가가 다양한 대상이 되어 보는 과정을 통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마음들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자신의 마음을 적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상적인 단어들을 가져와 그것들이 '되어 보기'로 했다. 이로 보아, '나는 오늘 토마토'는 이러한 '되어 보기'의 방식을 보여 주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독자는 '되어 보기'를 따라가며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일요일'이 되어 본 작가의 마음을 따라가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되어 보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적확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공기'가 되어 봄으로써 '너'를 살아 있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을 적확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13 ㉠에는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원관념('나')과 보조 관념('토마토')이 동일한 것처럼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① 역시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 임이 떠날 때 자신이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진심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③ '찬밥처럼 방에 담겨', '배춧잎 같은 발소리'에 '~처럼', '~ 같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별 하나에 ~와/과'라는 시구를 반복한 반복법과 그리움의 대상을 하나씩 나열한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⑤ 자연물인 '바람'과 동물인 '종다리'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에서 '~같이'를 사용하여 원관념인 '종다리'를 보조 관념인 '아씨'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14 ⓐ는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으로, 금이 가고 얼룩졌다는 점에서 화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여 준다. ⓑ는 이중적 기능을 하는 대상으로, 죽은 아이가 있는 저승과 화자가 있는 이승을 단절하는 동시에 유리창에 어린 입김을 통해 화자와 죽은 아이의 만남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① ⓐ는 화자에게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며, ⓑ 역시 화자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다. ③~⑤ ⓐ와 ⓑ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Plus 〈보기〉 유리창 Ⅰ _정지용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회화적, 감각적
주제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해제	유리창을 매개로 하여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그려 냄.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16-019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② 05 ① 06 ③ 07 ② 08 ⑤ 09 ③

▸ (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_황지우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역동적, 상징적
주제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생명력
해제	추운 겨울을 견뎌 내고 봄을 맞아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 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리라는 희망을 제시함.

▸ (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_정현종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교훈적
주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자세
해제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는 탄력성 있는 공의 속성을 활용하여,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긍정함.

01 (가)는 매 연의 1행에서 '나는 오늘 (　　)'의 괄호에 들어가는 사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다양한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나무'의 속성을 활용하여 '겨울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생명력'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다) 역시 '공'의 속성을 활용하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자세'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나)는 '그러나'에서 시상을 전환하여 부정적인 현실을 거부하는 나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⑤ (가), (나), (다)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가), (나), (다) 모두 화자의 독백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나)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고난에 굴하지 않는 의지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달리 (가)에는 의인화된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위로 옆으로 /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에 상승 이미지가 나타나 있을 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반복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역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에 상승 이미지가 나타나 있을 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반복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는 '붉게 물들고 말았다'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나)는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푸른 잎', '푸르른 사월'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나무'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④ (가)의 2연에서 나무가 사방으로 자라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만, 이를 대상이 변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겨울-나무'가 영하의 추위를 견뎌 내고 '봄-나무'로 변하는 모습을 감각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03 2연의 '바람'은 '나무'가 몸을 맡긴 것으로, '나무'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의 '토마토'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이 꽉 차 있는 대상으로, '꽉 차 있었다'로 보아 화자의 충만한 마음을 보여 준다. ③ 6연의 '일요일'은 쉬는 날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로 보아 계속 쉬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보여 준다. ④ 7연의 '그림자'는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대상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잘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무거워진 화자의 마음을 보여 준다. ⑤ 9연의 '토마토'는 붉은색을 띠는 대상으로, 화자가 상대 앞에서 온몸이 붉게 물들었다는 점으로 보아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에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준다.

04 ㉡은 화자가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으로, 상처받은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쏟아지는 햇빛을 받고 바람에 몸을 맡긴 대상으로, 세상 모든 존재와 함께 성장하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③ (나)에서 '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싹을 내밀고 꽃을 피우는 존재로, ㉢은 나무의 이러한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부정적 현실인 겨울을 극복한 '봄-나무'로, 나무가 이루고자 한 것이 성취된 상태를 의미한다. ⑤ ㉤의 '둥근 공'은 떨어져도 튀어 오를 수 있는 탄력적인 성격을 지닌 대상으로, 이를 통해 좌절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05 〈보기〉의 회의감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모습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가)의 화자가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는 일요일과 같이 계속해서 쉬고 싶기 때문이므로, 이를 일상에서 느끼는 회의감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보기〉에 따르면, 카뮈는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 바위를 정상에 올려놓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바위를 굴려 올리는 일을 반복하는 인간의 의지적 자세를 말하고 있다. (나)의 나무는 스스로의 몸으로 겨울을 견뎌 내고 잎과 꽃을 피우는 의지적인 자세를 지닌 대상이므로, 시지프스의 자세와 의미가 통한다. ③ 〈보기〉의 시지프스는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아야 하는 형벌을 받았는데, 이는 시지프스에게 고통을 준다. (나)에서 겨울은 나무가 놓인 부정적 상황으로, 나무에게 고통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벌과 겨울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시지프스가 떨어지는 바위를 계속해서 산 정상에 올려놓는 행위는 (다)에서 떨어져도 다시 튀는 공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⑤ (다)의 '최선의 꼴'은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며 쓰러지는 법이 없는 모습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떨어진 바위를 밀고 올라가는 시지프스의 모습은 이러한 '최선의 꼴'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이유 있는 여유_오은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성격	경험적, 분석적, 사색적, 교훈적
주제	여유의 의미와 자발적으로 만드는 여유의 가치
해제	'여유'와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열거하며 여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전함.

06 (가)는 일상에서 느끼는 마음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다양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여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으나, (가)에는 속담을 인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는 마음의 여유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위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교훈적 내용을 담담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는 교훈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일화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흥미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나)에 제시된 글쓴이의 경험을 일화로 볼 수 있으나, (가)에는 일화를 활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07 (가)에 문장의 어순을 뒤바꾸어 시적 의미를 강조한 도치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에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매 연의 1행에서 '나는 오늘 ~'이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매 연의 1행 '나는 오늘 ~'에서 '나'를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매 연을 '-다'라는 종결 어미로 끝맺어 통일성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08 글쓴이는 여유를 ㉠과 ㉡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에서 ㉠과 ㉡이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포함된 문장 '먼저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처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가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첫 번째 여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여유는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09 동음이의어란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인데, 1연과 9연의 '토마토'는 소리와 뜻이 모두 같으므로 동음이의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1연과 9연에서 '토마토'를 똑같이 활용한 것을 언어유희로 보기도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사람의 내면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풀어냈으며, 세계와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표현했다고 평가받는다. 따라서 (가)에 오늘 자신이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에 대한 작가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사람의 내면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일상적인 언어로 쉽게 풀어낸다. 따라서 (가)의 '구름', '일요일'과 같은 시어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일상적인 시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④ (나)는 마지막 문단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일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내용과 작가가 사람의 내면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풀어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나)에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일의 의미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성찰이 담겨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⑤ (나)에서는 '여유'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와 '마음의 상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점과, 작가가 세계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표현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여유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살펴본 것을 세계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20~021쪽

01 ㉠: 독자 맥락, ㉡: 작가 맥락 **02** 독자가 작가의 '되어 보기'를 따라가며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마음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03** ⓐ: (이래도 저래도 속이 꽉 차 있는) 화자의 충만한 ⓑ: (상대 앞에서 온몸이 붉게 물드는) 화자의 수줍은 ⓒ: 통일성과 안정감

01 ㉠은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고, ㉡은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02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시를 통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마음들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며, 시를 읽는 것은 '되어 보기'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되어 보기'를 포함하여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03 ⓐ 1연의 '토마토'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이 꽉 차 있는 대상으로, 이러한 대상의 속성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1연의 '토마토'는 이래도 저래도 속이 꽉 차 있는 화자의 충만한 감정을 보여 주는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 9연의 '토마토'는 붉은색을 띠는 대상으로, 이러한 대상의 속성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9연의 '토마토'는 상대 앞에서 온몸이 붉게 물드는 화자

의 수줍은 감정을 보여 주는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 이 글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다르게 활용하여 말의 재미를 느끼도록 하고, 동일한 단어가 지닌 시적 의미가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첫 연과 마지막 연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시구를 배치함으로써 통일성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22~02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4 사람이 아닌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매 연의 1행에서 화자의 마음을 빗댄 다양한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중 토마토, 나무, 구름, 그림자, 공기 등과 같은 자연물이 나타나지만 이들을 열거하여 주제를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07 점층적 시상 전개란 시어나 시구의 의미, 또는 화자의 정서가 점점 강화되고 깊어지는 시상 전개 방식을 말한다. 이 글은 각 연을 동일한 형식으로 전개하여 화자의 다양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했다고 볼 수 없다.

10 '바람'은 '나무'가 몸을 맡긴 대상으로, '나무'와 함께 어우러져 성장하는 주변 존재이지, '나무'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11 '유리'는 금이 가고 얼룩진다는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상처받은 화자의 마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유리'를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일요일'은 주말의 마지막 날로, 계속해서 쉬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일요일'을 화자의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보여 주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1연의 '토마토'는 화자의 꽉 차고 충만한 마음을, 9연의 '토마토'는 상대 앞에서 온몸이 붉어지는 화자의 수줍고 부끄러운 마음을 보여 준다. 1연과 9연에서 '토마토'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마음은 다르지만, 그 속성이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2) 브로콜리 펀치_이유리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26~031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② 05 ① 06 ③ 07 ① 08 ⑤
09 ④ 10 ② 11 ② 12 ③ 13 ④ 14 ①

01 인물의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다는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인물의 말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배경을 묘사하거나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서술자는 작품 내부에 있는 '나'이다. ④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⑤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02 원준은 아무런 기대도 없는 눈빛으로 '나'의 말을 듣고 있으며, 산에 가서 이것저것 해 보면 브로콜리로 변한 오른손을 고칠 수 있다는 '나'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 원준이 산에 가면 브로콜리로 변한 오른손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이걸 너무 오래 해 왔어.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야."라는 원준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는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병이 금방 낫는다는 박광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원준에게 내일 산에 같이 가 보자고 제안했다. ③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화가 나질 않아."라는 원준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앞부분의 줄거리]의 '박광석 할아버지는 그 병은 마음고생이 심하면 생기는데,'에서 알 수 있다.

03 원준은 자신이 좋아하는 복싱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다.

오답 해설 ②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인물 사이의 가치관, 성격, 태도, 감정 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③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인물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제도, 관습, 윤리와 대립하며 겪게 되는 갈등이다. ④ 인물과 운명의 갈등은 인물이 주어진 운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⑤ 인물과 자연의 갈등은 인물이 자연 현상과 대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으로, 이때 자연의 힘 앞에 순응하는 인물이나 자연과 대결하려는 인물이 제시된다.

04 [A]에서 원준은 '나'에게 자신이 쉽게 복싱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털어놓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원준이 복싱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 현재의 상황을 '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A]에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⑤ 원준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을 뿐, '나'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5 미워하지도 않는 상대 선수를 공격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 원준은 억지로 미움을 만들어 내려 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내적 갈등 때문에 결국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했다. 원준은 그 이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화를 낼 수 없었으므로, 폭력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상대 선수를 쉽게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원준은 자신과 같이 복싱에 목숨을 걸고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을 상대 선수를 오히려 좋아하며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링 밖의 경쟁 체제는 원준이 자신의 동료를 반드시 이겨야 할 적으로 간주하게 한다고 했다. 또한 이 글에서 원준은 상대 선수를 먼저 때려눕혀야만 한다는 생각을 억지로 만들어 냈다고 이야기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원준은 복싱이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해하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이 글에서 원준은 미움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 내어 상대 선수를 공격

해야 하는 복싱이 하기 싫어졌다고 고백했다. ⑤ 〈보기〉에서는 원준이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체제에 놓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 원준은 경기가 없는 날에도 온종일 주먹을 휘두르고 싶게 만드는 것들, 그 감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응축시켜 오른쪽 글러브 안에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06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에 위치한 '나'로, 자신의 내면 심리와 함께 이야기 속 인물의 말과 행동, 표정 등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에 위치한 '나' 한 사람이다. ② '나'는 다른 인물의 표정이나 행위를 서술하고 있을 뿐,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지 않다.

07 원준은 박광석 할아버지가 노래를 시키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아아아–!"라고 크게 소리친 뒤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으므로, 원준이 노래하기를 자청하는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원준이 애국가를 부른 뒤 "이상하네요.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좀 시원한 거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후련함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③ 박광석 할아버지가 노래를 마치고 후련해하는 원준에게 "그거 봐, 그렇다니까. 이제 나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안필순 할머니가 죽은 앵무새 말자에게 "내가 욕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구우우 때린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아아아."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안필순 할머니는 함께 산에 오른 '나', 원준, 박광석 할아버지를 위해 배낭에 음식을 가득 챙겨 왔으며, 일행에게 음식을 권하고 있다. 이로 보아 안필순 할머니는 주변 사람을 보살피는 넉넉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08 원준은 자신이 좋아하는 복싱이 필연적으로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임을 인식한 뒤 갈등을 느꼈으며, 결국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병에 걸렸다. 따라서 '브로콜리'는 원준이 겪는 내적 갈등이 표출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브로콜리'로 변한 원준의 손을 고치기 위해 '나', 박광석 할아버지, 안필순 할머니가 관악산에 함께 오르게 되었으므로, '브로콜리'는 인물들이 함께 산에 오르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이 글에는 원준이 겪는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을 뿐,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복선이란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브로콜리'가 인물의 위기를 예고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복선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다.

09 안필순 할머니가 죽은 앵무새 말자에게 "내가 욕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구우우 때린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아아아."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는 인물이 미안함을 느끼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보기〉의 ⓑ는 외로운 화자와 달리 짝을 이루어 노닐고 있으므로,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와 ⓑ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는 안필순 할머니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지만, ⓑ는 화자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다. ⑤ ⓐ가 안필순 할머니가 키우다 죽은 앵무새라는 점에서 ⓐ를 인물에게 비애를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는 화자의 외로운 마음을 부각하는 대상이지 화자의 흥취를 돋우는 대상이 아니다.

Plus 〈보기〉 황조가_유리왕

갈래	고대 가요, 한역 시가, 서정시
성격	서정적, 애상적
주제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해제	사랑하는 임을 잃은 외로움을 꾀꼬리라는 자연물을 매개로 표현함.

10 〈보기〉에서 작가는 마음의 문제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자신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낮잠을 자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 내적 갈등을 느끼던 원준은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부른 뒤 후련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과 같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원준이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원준의 노래를 들은 '나'가 '너무 못어 가려운 뱃가죽을 부여잡'기는 했지만, 원준이 노래한 목적은 상대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④ 원준은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며 경쟁해야 하는 복싱 때문에 갈등을 느껴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했으며 이를 고치기 위해 산에 올라 노래하고 있으므로, ㉠을 상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원준이 누군가에게 불만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서술자 '나'는 자신과 다른 인물들이 겪은 일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진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인 '나'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③ 중심인물은 '나'와 원준인데,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조성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요약적 서술이란 서술자가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서술자 '나'는 자신과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을 뿐,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산에서 집으로의 공간 이동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한 것은 아니며,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12 ㉠에서 '나'는 꽃이 피어난 원준의 브로콜리를 보며 가슴속에서 뭔가 벅차오른다고 했으며, 이후 원준의 어깻죽지를 마구 쓰다듬고 있다. 이로 보아 ㉠에서 '나'가 원준을 대견해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에 나타난 '나'의 심리와 거리가 멀다.

13 '나'는 내적 갈등을 말하지 않은 원준에게 서운함을 조금 느꼈다가 고민을 들었더라도 자신 역시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에서 '나'와 원준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우리'는 원준의 브로콜리 여기저기에서 꽃봉오리가 터지는 모습을 보고 놀라 숨을 죽인 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다. ② ⓑ는 브로콜리에서 꽃자루가 올라오고 꽃잎이 펼쳐지는 모습을 '뾰족한 총알 모양', '샛노란 꽃잎'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의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다.'에 브로콜리꽃을 대하는 원준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⑤ 브로콜리는 원준의 내적 갈등이 표출된 소재로, ⓔ에서 브로콜리가 거의 온전한 손 모양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은 원준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나'와 원준은 브로콜리로 변한 원준의 오른손을 고치기 위해 산에 올랐으며, 원준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뒤 브로콜리의 모든 꽃봉오리가 피어나 커다란 꽃뭉치를 이룬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이를 인간의 현실적 경험을 재현한 것이라고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③ 〈보기〉에 따르면, 환상 문학은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소재나 사건을 다룬 갈래이다. 브로콜리로 변한 원준의 오른손에서 모든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며 진한 향기를 내뿜은 것은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이 글의 갈래를 환상 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환상 문학은 환상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 단계 발전했다. 원준이 주변 인물들의 격려를 받으며 고민을 해결하고 원래의 손을 되찾는 것은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을 살피지 못하는 현실을 환상을 통해 재구성하려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환상 문학은 환상성을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

는 기회를 제공할 때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원준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뒤 브로콜리가 꽃을 피우고, 내적 갈등의 원인이었던 복싱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며 점차 원래의 손 모양을 되찾는다는 설정은, 독자로 하여금 환상성을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32~037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① 06 ④ 07 ④ 08 ③
09 ② 10 ② 11 ③ 12 ⑤

01 제시된 부분에서는 원준의 말과, 이와 관련된 서술자 '나'의 생각과 반응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희화화란 인물의 외모나 성격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표현 방식이다. 이 글에 인물을 희화화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사건이 반전되는 부분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② 원준의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 반복되는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내적 갈등을 겪던 원준의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니다. ④ 서술자인 '나'는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진술하고 있을 뿐, 그 내면까지는 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나'는 원준을 위로하면서 다독여 주고 있으며, '나'와 원준은 서로 갈등을 겪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준의 브로콜리'가 원준과 '나' 사이의 외적 갈등을 깊어지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박광석 할아버지는 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병은 마음고생이 심하면 생긴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준의 브로콜리'는 심한 마음고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화가 나질 않아."라는 원준의 말과, '두텁고 미지근한 줄기 밑에서 두근두근, 물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 거기에 맑게 섞여 들면 조금 묽어질 수 있을까.'라는 '나'의 진술을 통해, '원준의 브로콜리'가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을 묽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원준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 내다가 어느 날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했다고 이야기했으므로, '원준의 브로콜리'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원준의 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길고 힘든 이야기'를 들은 뒤 안타까움을 느끼고 원준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원준의 브로콜리'는 '나'로 하여금 원준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03 [A]에서 원준은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B]에서 '나'는 산에 가서 이것저것 해 보면 병이 잘 낫는다는 박광석 할아버지의 말을 전하며 내일 같이 산에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는 현재 상황에 이른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원인을 분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에서 '나'는 원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산에 갈 것을 제안한 것이지, 원준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② [A]에서 원준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진술한 것이지, 감정에 호소하여 잘못을 고백하려 한 것은 아니다. 또한 [B]에서 '나'는 함께 산에 가자며 원준을 설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설득의 근거는 박광석 할아버지에게 들은 내용이므로 논리적 근거를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A]에서 원준은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있다. 하지만 [B]에서 '나'가 상황을 가정하거나 원준의 행동을 지적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A]에서 원준은 복싱 때문에 겪는 내적 갈등을 고백적 어조로 말하고 있을 뿐, 과거에 대한 반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또한 [B]에서 '나'는 산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나'가 확신에 찬 어조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보기〉에 따르면, 원준은 자신이 좋아하는 복싱이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해하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 뒤에 이어지는 말에서도 원준은 미워하지 않는 상대 선수에게 주먹을 내뻗는 일이 힘들어진 뒤로 복싱이 하기 싫어졌으나, 오랫동안 해 온 복싱을 쉽게 그만둘 수 없어 미움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 내다가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 해설 ①, ②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③, ④ "그렇지만 나는 이걸 너무 오래 해 왔어."라는 원준의 말을 통해 그가 복싱을 오래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준이 복싱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이유는 복싱이 지겹다거나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해하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05 이 글에서 원준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뒤 "이상하네요.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좀 시원한 거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보기〉의 화자는 '노래'를 만든 사람은 시름이 많았을 것이라며 노래를 불러 시름이 풀릴 것이면 자신도 불러 보겠다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노래'와 〈보기〉의 '노래' 모두 근심을 해소해 주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 원준이 '노래'하는 모습을 본 일행이 폭소를 터뜨리고 있긴 하지만, 원준이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다. 〈보기〉의 '노래' 역시 상대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③,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 박광석 할아버지의 요청이 있긴 했지만, 원준은 이를 마다하지 않고 목을 가다듬으며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이로 보아 이 글의 '노래'를 타인의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기〉의 화자는 '노래'를 통해 시름을 풀 수 있다면 자신도 불러 보겠다고 이야기했으므로, 〈보기〉의 '노래' 역시 타인의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다.

Plus 〈보기〉 방옹시여_신흠

갈래	연작시, 한정가
성격	영탄적, 의지적
주제	노래로써 시름을 풀어 보고자 하는 마음
해제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나라 걱정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던 작가가 자연을 벗 삼아 은거 생활을 하며 근심을 노래로 풀어 보겠다는 심정을 표현한 시조임.

06 박광석 할아버지는 ㉠에서 "자, 이제 그러면 원준이 자네 차례."라며 원준에게 노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에서는 산에 와서 노래를 부르면 원준의 병이 나을 거라는 자신의 생각이 맞았음을 확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박광석 할아버지는 원준이 노래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지, 원준을 달래어 시키는 말을 잘 듣도록 회유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에서 박광석 할아버지가 원준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말린 것도 아니다. ② ㉠에서 박광석 할아버지는 원준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원준에게 노래를 하도록 요청한 것이지, 원준을 시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에서 박광석 할아버지가 원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도 아니다. ③ ㉠에서 박광석 할아버지가 원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커지게 한 것은 아니며, 이 글에 인물 간의 오해가 나타난 것도 아니다. 또한 ㉡에서 박광석 할아버지가 원준의 잘못을 꾸짖은 것이 아니며, 원준이 상대에게 질책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⑤ ㉠에서 박광석 할아버지가 원준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표현한 것은 아니며, ㉡에서 원준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것도 아니다.

07 ⓓ에서 '나'는 '나'와 원준의 기분이 좋아진 것이 산 때문인지 맑고 산뜻한 공기 때문인지 궁금해한 것이지, 원준의 증상이 나아진 것에 대한 의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안필순 할머니는 죽은 앵무새 말자에게 사과하며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 박광석 할아버지는, 말자에게 사과한 뒤 자리에 돌아온 안필순 할머니에게 환하게 웃어 주며 할머니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에서 '나'는 노래를 마치고 돌아온 원준을 대견해하며 머리

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어 주었다. ⑤ ⓔ에서 '나'에게 이쑤시개를 건네주는 안필순 할머니의 행동에는 주변 인물을 생각하는 할머니의 배려와 관심이 나타나 있다.

08 이 글에서 원준이 관악산에 올라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부른 뒤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짐을 느낀 것으로 보아, ㉮는 원준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화자가 '청산(靑山)'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현실적 삶의 공간에 해당한다. 반면 ㉯는 화자의 이상향으로, 현실적 삶의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② ㉯는 화자가 도달하려는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는 인물이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 아니다. ④, ⑤ ㉯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으로, 화자가 ㉯에 도달하면 만족감을 느끼고 소망이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를 인물이 상실감을 느끼는 공간이나 인물의 의지가 좌절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Plus 〈보기〉 청산별곡_작자 미상

갈래	고려 가요
성격	현실 도피적, 애상적, 체념적
주제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해제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 이상향(청산, 바다)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을 노래함.

09 '노심초사(勞心焦思)'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이르는 말로, 고민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원준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③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④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김.

10 '나'는 원준이 산에서 큰 소리로 노래한 뒤 그의 브로콜리가 꽃을 피워 커다란 꽃 뭉치가 된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으며, '발을 콩콩 구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을 느꼈다. 따라서 그날 밤 '나'가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그날의 '즐거움과 흥분이 남아 눈을 감아도 눈꺼풀 뒤에 오늘의 온갖 장면들이 스쳐 가는 탓'이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원준은 복싱이 상대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 때문에 고민하다가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했다. 복싱에서 상대 선수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폭력을 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브로콜리로 변한 원준의 오른손은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③, ④ 원준의 브로콜리가 꽃을 피운 것은 그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원준이 이처럼 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들어하는 그를 돕기 위해 함께 산에 오른 '나'와 박광석 할아버지, 안필순 할머니의 보살핌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⑤ '하긴 얘기했다 한들 내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긴 했다. ~ 어젯밤 박광석 할아버지가 안필순 할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에서 알 수 있다.

11 [A]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브로콜리 꽃봉오리가 터져 꽃자루가 올라오고 샛노란 꽃잎이 펼쳐지며 꽃이 개화하는 모습을 눈에 보이듯이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공간의 이동은 물론 인물의 내면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인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브로콜리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④ 동시에 일어난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을 나란히 배열한 것이 아니라 브로콜리꽃이 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⑤ '터지고 있었다.', '길어지기 시작했다.', '조금씩 펼쳐졌다.' 등과 같이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12 〈보기〉에 따르면, 문학사적 맥락은 문학사에서 작품의 위치나 당시 문학의 흐름과 관련된 것이다. ⑤는 환상 문학으로서 이 글이 지니는 의의를 진술한 내용이므로, 문학사적 맥락과 관련하여 감상한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② 독자 맥락을 적용하여 감상한 내용이다. ③ 작가 맥락과 관련하여 감상한 내용이다. ④ 작품 자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한 내용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38~039쪽

01 ㉠: 미움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 내어 상대 선수를 공격해야 하는 복싱을 계속하기가 힘듦. ㉡: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함. ㉢: 산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름. **02** ⓐ: 미움과 분노, 폭력성과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희망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지닌 노란색 꽃을 피워 낸 뒤 원준의 손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점을 고려할 때, 내적 갈등의 해소를 의미한다. **03** 경쟁을 강요받는 사회적 상황에서 한 개인이 낙오하지 않고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의미한다.

01 복싱 선수인 원준은 미워하지도 않는 상대 선수를 상대로 미움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 내어 그를 공격해야 하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병에 걸렸다(㉡). '나'는 산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쉽게 병이 낫는다는 박광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원준에게 함께 산에 갈 것을 제안했고, 원준은 산에 가서 우렁차게 애국가를 부른 뒤(㉢) 시원함을 느끼고 브로콜리로 변한 손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간다.

02 ⓐ 원준의 브로콜리는 (가)에 제시된 미움과 분노, '오른쪽 글러브'의 폭력성과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소재이다. ⓑ 원준은 내적 갈등을 겪으며 오른쪽 손이 브로콜리로 변했는데, 갈등이 해소되면서 브로콜리에서 꽃이 피어나고 결국 손이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온다.

03 원준이 원래의 손을 되찾는 과정에서 '나'는 원준의 곁을 지키면서 그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함께 산에 갈 것을 제안한다. 박광석 할아버지는 원준의 병을 고칠 방법을 알려 주고, 원준이 용기를 내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안필순 할머니는 큰 소리로 노래하는 원준을 응원하고, 정성이 담긴 음식을 건넨다. 이러한 도움은 경쟁을 강요받는 사회적 상황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의미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40~041쪽

01 ○ 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주된 갈등은 원준의 내적 갈등이다. 원준은 복싱을 좋아하지만,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

내어 상대 선수에게 폭력을 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다가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다.

05 서술자는 작품 내부에 있는 '나'로, 인물의 말과 행동은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는 전달하지 않는다.

09 원준은 복싱이 싫어진 뒤 오랜 고민 끝에 미움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 보았지만 결국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했고, 그 이후로 아무리 노력해도 화를 낼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12 원준은 산에 가면 브로콜리로 변한 오른손을 고칠 수 있다는 '나'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17 '나'와 원준은 브로콜리가 개화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느꼈다.

20 '나'는 복싱을 그만두기로 했다는 원준의 메시지에 '잘됐네!'라고 답장을 보냈다.

(3) 소곤소곤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44~047쪽

01 ②	02 ④	03 ①	04 ④	05 ⑤	06 ⑤	07 ②	08 ②
09 ④	10 ③	11 ⑤	12 ④	13 ③	14 ④		

01 구어체란 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를 말한다. 이 글은 친절한 구어체를 사용하여 독자가 친근한 느낌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린이들이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말이나 책의 구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을 뿐, 대화를 삽입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일화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흥미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이 글에는 흉내말과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이 나타나 있을 뿐 중심 소재와 관련된 상반된 일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그 말을 몰랐다면, 또는 그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라는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말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 주는 흉내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글쓴이의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글쓴이의 생각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그래서 대화 중에 누군가 그런 표현을 쓰면 속으로는 '앗' 하고 움찔하지만 그대로 넘어갑니다.'로 보아, 대화 상대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할 때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 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그런데 의태어와 의성어, 즉 모양을 흉내 낸 말과 소리를 흉내 낸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단 제가 그 말들을 좋아합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저는 어린이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뿐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어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당연히 저도 무심결에 잘못된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글쓴이는 어린이들과 함께 소리나 모양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적어 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재미있다고 했다.

03 글쓴이는 한때 부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눈 딱 감고 사용하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고 했으며, 말과 글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 주는 부사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처럼 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④ 글쓴이는 어린이들은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꾸는 일에서 자주 과감한 답을 내놓는다고 했으며, 다양한 흉내말이 있으니 우리도 좀 지어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어른도 어린이의 말에서 배울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나 사전에 없는 흉내말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재미있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글쓴이는 '설거지'와 같이 표기가 헷갈리는 단어는 외울 것을 권유하고 있으므로, 헷갈리는 표기가 있다면 외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⑤ '촉 촉 촉 촉', '토 토 토 토'와 같이 어린이들이 내놓은 과감한 표현이 나타나 있으므로,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꿀 때 어린이들이 내놓은 과감한 표현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04 '일단 제가 그 말들(의태어와 의성어)을 좋아합니다. ~ 애초에 문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낱말은 아닙니다.'에서 의태어와 의성어가 문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낱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그런데 의태어와 의성어, 즉 모양을 흉내 낸 말과 소리를 흉내 낸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에서 의태어는 모양을,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 낸 말임을 알 수 있다. ③ 의성어와 의태어는 품사로 치면 부사인데, 부사는 입말이든 글말이든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고 했다. 즉, 의태어와 의성어가 말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허둥지둥'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갈팡질팡하며 다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의미하는 의태어, '보송보송'은 '잘 말라서 물기가 없고 보드라운 모양'을 의미하는 의태어이다.

05 '담그다'는 '김치 · 술 · 장 · 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

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를 의미하는 말로, '담가', '담그니'와 같이 활용해야 한다. '담아서'는 '어떤 물건을 그릇 따위에 넣다.'를 의미하는 '담다'를 활용한 형태이다.

오답 해설 ①~④ 모두 '담그다'를 활용한 형태이다.

06 ⓐ는 작은말(단어의 실질적인 뜻은 큰말과 같으나 표현상의 느낌이 작고, 가볍고, 밝고, 강하게 들리는 말)이자 여린말(어감이 세거나 거세지 아니하고 예사소리로 된 말)이다. ⓑ는 큰말로, 단어의 실질적인 뜻은 작은말과 같으나 표현상 크고, 어둡고, 무겁고, 약하게 느껴지는 말이다. ⓒ는 센말로, 뜻은 같지만 어감이 센 느낌을 주는 말이며, 예사소리 대신에 된소리를 쓴다. '퍼덕퍼덕', '파닥파닥', '파딱파딱' 중 '파닥파닥'이 '작은 새가 가볍고 빠르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의미하는 흉내말로 작은말·여린말이고, 큰말은 '퍼덕퍼덕', 센말은 '파딱파딱'이다.

오답 해설 ① '강중강중'은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을 의미하는 의태어로, '겅중겅중'은 큰말, '깡쭝깡쭝'은 센말이다. ② '달각달각'은 '달가닥달가닥'의 준말로, '작고 단단한 물건이 자꾸 맞부딪치는 소리'를 의미하는 의성어이다. '덜걱덜걱'은 큰말, '딸깍딸깍'은 센말이다. ③ '살랑살랑'은 '조금 사늘한 바람이 가볍게 자꾸 부는 모양'을 의미하는 의태어로, '설렁설렁'은 큰말, '쌀랑쌀랑'은 센말이다. ④ '생글생글'은 '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자꾸 웃는 모양'을 의미하는 의태어로, '싱글싱글'은 큰말, '쌩글쌩글'은 센말이다.

07 〈보기〉에서 글쓴이는 언어를 개성 있게 사용하되 정확하게 사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도 흉내말을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일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법은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언어를 개성 있고 풍성하게 사용하되 어법을 준수해야 함을 말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나타난 내용이지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③ 글쓴이는 어린이를 자주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 어법을 지키는 일에 민감하다고 밝혔을 뿐, 교육자의 역할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 ④ 글쓴이는 어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⑤ 글쓴이가 의태어와 의성어를 잘 활용하여 우리말을 풍성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함을 이야기했지만, 의성어와 의태어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08 이 글은 수필로, 수필의 서술자는 글쓴이 자신이다. 따라서 수필이 특정한 서술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수어와 관련된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 ③ 수어를 아름다운 언어나 사랑의 언어가 아닌, 풍부한 표현법을 지닌 '그냥 언어'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개성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다. ④ 수필은 시, 소설, 희곡과 달리 특정한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쓸 수 있다. ⑤ 수필은 체험을 통한 깨달음, 인생에 대한 성찰, 자연에 대한 감상 등 주변의 모든 것을 소재로 삼을 수 있다.

09 '남의 험담을 하거나 민망한 소재를 다루거나 숨겨야 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소곤소곤 말해야 합니다.'에서 수어를 사용하여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함을 설명했을 뿐, 글쓴이 자신이 수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 경험을 밝힌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수어는 여타 언어와 같이 그냥 언어입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② '길거리에서 수어를 사용하기라도 하면 갖가지 시선이 쏟아집니다. 이상하거나 혹은 신기한 눈빛입니다.'를 바탕으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다. ③ 일상에서 수어를 사용하면서 편안함과 불편함을 느낀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독자가 수어 사용자의 입장에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⑤ '청자'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에 둔 표현이라고 언급하며 '수어를 보는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0 글쓴이가 수어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부모와 그에게서 나고 자란 저와 같은 코다 자녀에게 이 사회는 정말이지 불편한 것투성이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바로 비밀 이야기를 할 때이지요.'에서 알 수 있다. ④ '수어의 세계에서 '청자'라는 말은 어쩐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길거리에서 수어를 사용하기라도 하면 갖가지 시선이 쏟아집니다. 이상하거나 혹은 신기한 눈빛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11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수어를 알지 못하는 청인이 대부분입니다.'에서 ㉢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의 동작과 빠르기, 위치뿐 아니라 표정으로도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와 이후 수어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수어로 소곤소곤 말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 ㉣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수어는 시각을 기반으로 한 언어입니다.'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 '(수어에는) 비속어도 사투리도 줄임말도 유행어도 신조어도 존재합니다.'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12 수어로 소곤소곤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손과 몸의 동작, 얼굴 표정을 작게 해야 한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② '수어로 소곤소곤 말하기 위해서는 손과 몸의 동작을 작게 해야 하고 얼굴 표정도 최대한 작게 움직여야 합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⑤ 수어로 소곤소곤 말할 때에는 동작과 표정이 상대방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거나, 어깨나 등을 돌려 손가락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13 이 글에 나타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은 '농인'과 '코다'로, 이들은 '듣는 언어' 대신 '보는 언어'인 '수어'를 주로 사용한다.

오답 해설 ①, ② 이 글에 나타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은 청각에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해 주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농인'과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청각 장애인이거나 청각 장애인 보호자에 의해 양육된 사람인 '코다'이다. ④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는 수어 사용자에게는 '불편한 것투성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수어로 말할 때 손의 동작이나 몸짓, 얼굴 표정이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됨을 말하고 있다.

14 〈보기〉에서 글쓴이는, 수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어가 더 많은 가능성을 지닌 수단이나 언어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도 수어는 '여타 언어와 같이 그냥 언어'라고 말하고 있으며, '작은 몸짓과 손동작, 미세한 얼굴 표정 같은 요소는 제게 너무나 충분한 언어가 됩니다.'라고 했으므로, 글쓴이는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언어로서 수어가 지닌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다. ③ 수어는 손의 동작과 빠르기, 위치, 표정으로도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으며, 수어를 할 때의 얼굴 표정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비밀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를 수어로 비밀을 말할 때 주의할 점으로 볼 수는 있으나, 글쓴이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⑤ '소리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세상은 다르게 펼쳐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눈으로 보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48-051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③ 06 ⑤ 07 ③ 08 ④

01 경어체는 상대에 대하여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문체이다. (가)와 (나) 모두 상대편을 높이는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공손하고 정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물오리 떼〉라는 동사에서 시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나)에는 문학 작품을 인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통념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뜻한다. (나)에서 수어를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 바라보는 통념이 제시되어 있긴 하나 글쓴이가 이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역시 통념이나 이를 비판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것은 아니다. ⑤ 설의적 표현이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인데,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에서 글쓴이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 어떻게 '야옹야옹'으로 합의되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가장 관련 깊은 언어의 특성은 언어의 사회성으로, 이는 언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특성이다.

오답 해설 ①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③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④ 언어의 기호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⑤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03 '든가'는 선택, '던가'는 회상이나 의문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②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을 나타내므로,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로 고쳐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③ 과거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므로, '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⑤ 선택과 관련 있으므로, '든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나)에서 '누군가는 수어를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도 부릅니다만 수어는 여타 언어와 같이 그냥 언어입니다.'라고 했으므로, ⑤는 (나)의 글쓴이에게 할 말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의 글쓴이는 수어로 소곤소곤 말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나)의 '수어로 소곤소곤 말하기 위해서는 손과 몸의 동작을 작게 해야 하고 얼굴 표정도 최대한 작게 움직여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는 수어 사용자에게는 '불편한 것투성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나)에 수어 사용자를 바라보는 갖가지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나) 이해라는 문_박준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성격	회고적, 성찰적, 체험적
주제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에 대한 깨달음
해제	글쓴이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열어 준 분식집 사장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담음.

05 (가)는 '대부분입니다.', '불편한 것투성이입니다.'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나)는 '있었다.', '불렀다.'와 같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글쓴이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글쓴이는 분식집 사장님이 오백 원짜리 떡볶이를 천 원짜리 모둠과 동일하게 내준 마음을 짚어 본 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글쓴이의 인식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으며, 글쓴이의 인식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는 구어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나)는 구어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④, ⑤ (가)와 (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06 '분식집 사장님이 왜 오백 원짜리 떡볶이를 천 원짜리 모둠과 동일하게 내주는지, 이유는 여전히 몰랐지만 그 마음을 짚어 보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던 것이다.'로 보아, 글쓴이가 오백 원짜리 떡볶이와 천 원짜리 모둠의 구성이 같은 이유를 이해하여 세균 정식을 주문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세균 떡볶이는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부터 동네 순찰을 도는 의무 경찰들까지 단골로 찾던 집이었다.'로 보아, 세균 떡볶이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분식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별명의 연유는 모르겠지만, 전부터 학교 선배들과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 온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③ '라면이나 김치볶음밥 같은 것도 있었지만 나와 친구들은 매번 한 가지 메뉴만을 주문했다. ~ 덕분에 토요일 점심마다 정기적으로 들렀고 평일 저녁에는 부정기적으로 그곳을 찾았다.'에서 글쓴이가 토요일 점심마다 세균 떡볶이에 들러 세균 정식을 먹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글쓴이는 오백 원짜리 떡볶이와 세균 정식의 구성이 같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농담은 재미가 있을 때 농담일 수 있다고 친구에게 핀잔을 주었'다고 했으므로, 글쓴이가 친구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7 ㉢은 오백 원짜리 떡볶이와 천 원짜리 세균 정식의 구성이 동일하다는 친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오백 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한 뒤 느낀 궁금함과 긴장감으로, 오백 원짜리 떡볶이와 천 원짜리 모둠의 구성이 동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에서 글쓴이는 수어가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여타 언어와 같이 그냥 언어'임을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에는 수어가 안타까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글쓴이의 바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의 '소리로 듣는 사람'은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은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따라서 ㉡은 수어에 동반되는 몸짓과 동작, 표정과 같은 표현법에 주목하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④ ㉣은 오백 원짜리 떡볶이와 천 원짜리 모둠을 동일하게 내준 분식집 사장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한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의미한다. ⑤ ㉤의 '어떤 문'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은 글쓴이와 친구들이 분식집 사장님의 따뜻하고 넉넉한 배려 덕분에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08 〈보기〉에 따르면, 수필의 글쓴이는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감동과 교훈을 전달한다. (가)에서 글쓴이는 음성 언어 중심 사회에서 수어 사용자가 겪는 불편함을 설명하여 독자가 수어 사용자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수필의 서술자는 글쓴이 자신이다. 이로 보아 (가)의 '저'와 (나)의 '나'는 글쓴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수필은 특정한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쓴 글이다. (가)와 (나)의 갈래는 수필이므로, 두 글 모두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로, 글쓴이는 일상적인 소재를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한다. (가)의 글쓴이는 수어를 풍부한 표현법과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언어로 바라보고 있는데, 수어를 바라보는 이러한 독특한 관점에서 글쓴이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수필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대상을 소재로 하여 여기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한다. (나)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식집을 소재로 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 글쓴이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52~053쪽

01 담갔다 02 • 말의 특징이나 표현의 새로움에 관심을 가진다. • 어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03 • 손동작: 왼손을 들어 수어를 보는 사람을 가리고 왼쪽 손바닥에 오른손을 대고 손바닥을 긁는 모양을 한다. 이때 손동작을 작게 한다. • 몸동작: 어깨를 웅크리고 몸을 약간 돌린다. • 표정: 눈을 작게 뜬다.

01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용언 '담그다'의 어간 '담그-'에 선어말 어미 '-았-'과 종결 어미 '-다'를 결합하여 '담갔다'로 표기해야 한다.

02 (가)의 글쓴이는 어린이를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 어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어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자주 헷갈리는 표현이나 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가 어린이들과 함께 새로운 흉내말을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한다거나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꿀 때 어린이들이 과감한 답변을 내놓는다고 한 점, 다양한 흉내말이 있으니 우리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특성과 말의 특징이나 표현의 새로움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03 (나)의 "비밀'이라는 수어는 이렇게 합니다. ~ 마치 "저기, 있잖아." 하고 소리를 낮춰 말하는 것처럼 어깨를 웅크리고 몸을 약간 돌려 눈을 작게 뜨고 작은 손동작으로 말해야 합니다.'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54~05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1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이고 대중적인 문학 갈래로, 쓰는 데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08 〈외우기로 해요〉의 글쓴이는 어린이들과 함께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생각하지 않고 소리나 모양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적어 보는 놀이를 가끔 해 본다고 이야기했다.

11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은 '설거지'로 표기해야 한다.

14 〈수어로 비밀 말하기〉의 글쓴이는 수어를 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꽤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므로 비밀 이야기를 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15 〈수어로 비밀 말하기〉의 글쓴이는 '누군가는 수어를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도 부릅니다만 수어는 여타 언어와 같이 그냥 언어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로 보아 글쓴이는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쌍하거나 안타까운 행위인 것이 아니라 수어가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수어를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수어에는 비속어, 사투리, 줄임말, 유행어, 신조어도 존재한다.

20 〈수어로 비밀 말하기〉의 글쓴이는 '소리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기존 단어에 의심을 품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지니게 되어 세상이 다르게 펼쳐진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아니다.

2 슬기로운 국어생활

(1) 음운 변동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60~065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③	05 ⑤	06 ②	07 ②	08 ①
09 ②	10 ③	11 ①	12 ③	13 ②	14 ①	15 ①	16 ④
17 ④	18 ④	19 ③	20 ⑤	21 ③	22 ③	23 ②	24 ①
25 ⑤	26 ②	27 ⑤	28 ③	29 ③	30 ④	31 ④	32 ④
33 ①	34 ①	35 ③	36 ③	37 ③	38 ①		

01 모음 탈락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반모음화, 자음군 단순화, 'ㄴ' 첨가, 거센소리되기 등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음운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발음되는 음운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④ 음운 변동은 발음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한다. ⑤ 음운 탈락과 음운 축약이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02 음운 축약이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거센소리되기가 이에 해당한다. '몫'은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난 단어로, 음절 끝의 겹받침 'ㄳ' 중 'ㅅ'이 탈락하여 [목]으로 발음된다. 즉, '몫[목]'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탈락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오답 해설 ② '솥'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운 교체)이 나타난 단어로, 음절 끝의 'ㅌ'이 'ㄷ'으로 바뀌어 [솓]으로 발음된다. ③ '입학'은 거센소리되기(음운 축약)가 나타난 단어로, 예사소리 'ㅂ'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되어 [이팍]으로 발음된다. ④ '찰나'는 유음화(음운 교체)가 나타난 단어로, 유음 'ㄹ' 뒤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뀌어 [찰라]로 발음된다. ⑤ '솜이불'은 'ㄴ' 첨가(음운 첨가)가 나타난 단어로, 합성어를 이루는 앞말 '솜'과 뒷말 '이불'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솜:니불]로 발음된다.

03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이 중 'ㄱ, ㄷ, ㅂ'이 아닌 자음이 음절 끝에서 각각 'ㄱ, ㄷ, ㅂ'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가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이때 'ㄲ, ㅋ'은 'ㄱ'으로, 'ㅍ, ㅌ, ㅅ, ㅆ, ㅈ, ㅉ, ㅊ'은 'ㄷ'으로, 'ㅃ, ㅍ'은 'ㅂ'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오답 해설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음운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으로, 'ㄴ' 첨가가 이에 해당한다.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더라도 음운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③ '꽃 위[꼬뒤]'와 같이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난다.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에는 '밭에[바테]'와 같이 연음된다.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04 '밭에[바테]'는 음절 끝의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 경우로, 'ㅌ'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연음되었을 뿐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ㄲ'이 'ㄱ'으로 바뀌어 소리 났다. ②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온 경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로, 'ㅅ'이 'ㄷ'으로 바뀌어 소리 났다. ④ 자음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바뀌어 소리 났다. ⑤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온 경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ㅊ'이 'ㄷ'으로 바뀌어 소리 났다.

Plus 〈참고〉 연음

연음	음절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음. 예 꽃이[꼬치], 밖에[바께], 솥에[소테]

05 실질 형태소란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이다. ⑤의 '옆얼굴'은 '옆'의 자음 'ㅍ'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얼굴'이 이어져 'ㅍ'이 'ㅂ'으로 바뀌어 [여벌굴]로 소리 나므로, 〈보기〉의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③ '무릎[무릅]'과 '바깥[바깓]', '부엌[부억]'은 〈보기〉 중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찾아[차자]'는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아'가 결합하여 'ㅈ'이 그대로 연음된 경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음운 변동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06 '국물[궁물]'과 같이 비음화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발음에만 반영될 뿐,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비음화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③, ④ 비음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⑤ '덧문[덛문 → 던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소리 'ㅅ'이 'ㄷ'으로 바뀐 뒤, 비음화에 의해 'ㄷ'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이와 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소리가 'ㄱ, ㄷ, ㅂ'으로 교체된 뒤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07 '독립'은 'ㄱ' 뒤 'ㄹ'이 'ㄴ'으로 바뀌어 [독닙]으로, 다시 비음 'ㄴ'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동닙]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유음 앞 'ㄱ'이 'ㅇ'으로 발음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굳는'은 비음 'ㄴ' 앞 'ㄷ'이 'ㄴ'으로 바뀌어 [군는]으로 발음된다. ③ '심리'는 비음 'ㅁ' 뒤 'ㄹ'이 'ㄴ'으로 바뀌어 [심니]로 발음된다. ④ '작문'은 비음 'ㅁ'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장문]으로 발음된다. ⑤ '잡목'은 비음 'ㅁ' 앞 'ㅂ'이 'ㅁ'으로 바뀌어 [잠목]으로 발음된다.

08 '국내'는 비음 'ㄴ'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궁내]로, '식물'은 비음 'ㅁ'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싱물]로 발음되는 사례로, 모두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② '국물'은 비음 'ㅁ'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민낯'은 음절 끝 'ㅊ'이 'ㄷ'으로 바뀌어 [민낟]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단어이다. ③ '같이'는 음절 끝 'ㅌ'이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가치]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업무'는 비음 'ㅁ' 앞 'ㅂ'이 'ㅁ'으로 바뀌어 [엄무]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④ '닫는'은 비음 'ㄴ' 앞 'ㄷ'이 'ㄴ'으로 바뀌어 [단는]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칼날'은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바뀌어 [칼랄]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⑤ '신라'와 '진리'는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바뀌어 각각 [실라], [질리]로 발음되므로, 모두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09 '국민'은 비음 'ㅁ'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궁민]으로, '밥물'은 비음 'ㅁ' 앞 'ㅂ'이 'ㅁ'으로 바뀌어 [밤물]로, '앞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바뀐 뒤, 다시 비음 'ㄴ' 앞 'ㅂ'이 'ㅁ'으로 바뀌어 [암날]로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에 공통으로 나타난 음운 변동은 비음화이다.

오답 해설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보기〉 중 '앞날'을 발음할 때 나타난다. ③ 유음화란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구개음화란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된소리되기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0 유음화는 '신라[실라], 칼날[칼랄]'과 같이 'ㄴ'이 유음 'ㄹ' 앞에 있는 환경에서도, 뒤에 있는 환경에서도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유음화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② 유음화의 결과는 발음에만 반영될 뿐,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④ 유음화는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⑤ 'ㄹ'이 'ㄴ' 뒤에 오더라도 '상견례[상견녜], 생산량[생산냥], 의견란[의:견난], 횡단로[횡단노]' 등과 같이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도 있다.

11 '권리'는 유음화(㉠)가 일어나 [궐리]로 발음된다. '백로[백노 → 뱅노]'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 'ㄹ'이 'ㄱ'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뀐 뒤, 비음 'ㄴ'의 영향으로 'ㄱ'이 'ㅇ'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⑤ '신라[실라], 진리[질리], 물난리[물랄리], 불나방[불라방]'은 모두 발음할 때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어 소리 난다.

12 '한라산'은 유음 'ㄹ' 앞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할:라산]으로, '물놀이'는 유음 'ㄹ'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물로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유음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13 ㉠의 '심려'는 비음 'ㅁ' 뒤 'ㄹ'이 'ㄴ'으로 바뀌어 [심녀]로, '앞마당'은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바뀐 뒤, 다시 비음 'ㅁ' 앞에서 'ㅁ'으로 바뀌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비음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의 '설날'과 '줄넘기'는 유음 'ㄹ'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각각 [설:랄], [줄럼끼]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유음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오답 해설 ③ ㉡에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⑤ ㉠의 '앞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지만, ㉡에는 비음화나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14 구개음화는 음운 변동 중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은 음운 탈락이다.

오답 해설 ② 구개음화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발음에만 반영된다. ③, ⑤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자음 'ㄷ, ㅌ'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j'가 올 때 일어난다. ④ '미닫이'는 '닫'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 'ㅈ'으로 바뀌어 [미:다지]로 소리 나므로, 구개음화가 나타난 사례에 해당한다.

15 '홑이불'은 접두사 '홑-'과 실질 형태소 '이불'이 결합한 파생어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혿이불]로, 다시 'ㄴ' 첨가가 일어나 [혼니불]로 발음된다. 따라서 '홑이불'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② '굳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구지]로 발음된다. ③ '붙여'는 끝소리 'ㅌ'과 반모음 'j'가 만나 [부쳐]로 발음된다. ④ '여닫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여:다지]로 발음된다. ⑤ '해돋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해도지]로 발음된다.

16 〈보기〉의 '같이'는 발음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 끝소리 'ㅌ'과 모음 'ㅣ'가 만나 [가치]로 발음된다. '끝인사'는 실질 형태소인 '끝'과 '인사'가 결합한 합성어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끄딘사]로 발음된다.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곧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고지]로 발음된다. ② '끝이'는 끝소리 'ㅌ'과 모음 'ㅣ'가 만나 [끄치]로 발음된다. ③ '맏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마지]로 발음된다. ⑤ '가을걷이'는 끝소리 'ㄷ'과 모음 'ㅣ'가 만나 [가을거지]로 발음된다.

17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데,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나 어미 등이 있다. '이랑'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형식 형태소)일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바치랑](㉡)으로 발음되지만, '이랑'이 논이나 밭을 갈라 골을 타서 두두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을 뜻하는 명사일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이랑]으로, 다시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③ '밭' 뒤에 오는 '이랑'이 조사일 때나 명사일 때 모두 비음화나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18 된소리되기는 발음에만 반영될 뿐,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다[신:따]'와 같이 단어의 원래 형태를 지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된소리되기는 음운 교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음운의 개수에 변함이 없다. ③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⑤ 주로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을 뜻하는 단어인 '물질[물질]'은 고유어로, 물체의 본바탕을 뜻하는 한자어 '물질(物質)[물찔]'과 달리 받침 'ㄹ' 뒤에 'ㅈ'이 오더라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19 '물질'은 주로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을 뜻하는 고유어로, 한자어와 달리 'ㄹ' 뒤에 'ㅈ'이 오더라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감던'은 용언 어간 '감-'의 받침 'ㅁ'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던'이 연결되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감:떤]으로 발음된다. ② '만날 사람'은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ㅅ'이 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만날싸람]으로 발음된다. ④ '국기'는 받침 'ㄱ' 뒤에서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국끼]로 발음된다. ⑤ '어찌할 바'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ㅂ'이 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어찌할빠]로 발음된다.

20 〈학습 활동〉에 따르면, 된소리되기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에 일어난다. '갈 때[갈때]'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된소리 'ㄸ'이 왔으므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문장의 개념 설명으로 볼 때, '된소리되기'는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② '각도[각또]'는 끝소리 'ㄱ' 뒤에 'ㄷ'이 온 경우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다. ③ '담다[담:따]'는 용언 어간 '담-'의 받침 'ㅁ'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가 온 경우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다. ④ '발전(發展)[발쩐]'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ㅈ'이 온 경우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다.

21 반모음화가 일어나면 '올리- + -어 → 올려[올려]'와 같이 음절의 수는 줄어들지만(3개 → 2개)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바뀌면서 음운의 수는 줄어들지 않아, 음운 축약이 아닌 음운 교체로 분류된다.

오답 해설 ① 반모음화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도 반영되는 현상이다. ②, ⑤ 반모음화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주로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④ '계시-+-어야 → 계셔야[계:셔야], 보-+-아라 → 봐라[봐:라]'는 반모음화가 일어난 사례에 해당한다.

22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솥에'는 음절의 끝소리 '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어 [소테]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은 유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난로'는 'ㄴ'이 유음 'ㄹ'을 만나 [날:로]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② ㉡은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맏며느리'는 음절 끝의 자음 'ㄷ'이 'ㅁ'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만며느리]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④ ㉣은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책상'은 예사소리 'ㄱ' 뒤에서 'ㅅ'이 된소리로 바뀌어 [책쌍]으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사례이다. ⑤ ㉤은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피붙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피부치]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23 ㉠은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속물'은 'ㄱ'이 비음 'ㅁ'을 만나 'ㅇ'으로 바뀌어 [송물]로 발음된다. '염려'는 'ㄹ'이 'ㄹ'이 아닌 다른 자음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염:녀]로 발음된다. ㉡은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단란'과 '실내'는 각각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어 [달란]과 [실래]로 발음된다. ㉢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땀받이'는 음절 끝 'ㄷ'이 모음 'ㅣ'와 만나 [땀바지]로 발음된다. '닫히다'는 음절 끝 'ㄷ'이 'ㅎ'을 만나 [다티다]로, 다시 'ㅌ'이 모음 'ㅣ'와 만나 'ㅊ'으로 바뀌어 [다치다]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③, ④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반모음화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주로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은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4 음운 탈락이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모음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궁민]'은 비음화가 일어난 사례로, 비음화는 음운 교체에 속한다.

오답 해설 ② '담가'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로, '담그-+-아 → 담가[담가]'와 같이 '_'로 끝나는 어간 뒤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 모음 '_'가 탈락한 사례이다. ③ '읽다'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단어로, 겹받침 'ㄺ' 중 앞 자음 'ㄹ'이 탈락하여 [익따]로 발음된다. ④ '좋아'는 자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로, 용언의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ㅎ'이 탈락하여 [조:아]로 발음된다. ⑤ '타서'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로, '타-+-아서 → 타서[타서]'와 같이 'ㅏ'로 끝나는 어간 뒤에 동일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 그중 하나가 탈락한 사례이다.

Plus 〈참고〉 자음 탈락

자음 탈락	• 'ㄹ' 탈락: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이 일부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풀-+-는 → 푸는, 둥글-+-ㄴ → 둥근 • 'ㅎ' 탈락: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 예 좋-+-아 → 좋아[조:아], 많-+-은 → 많은[만:은 → 마:는]

25 모음 탈락은 다른 음운 변동과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도 반영된다. '써'는 '쓰-+-어 → 써[써]'와 같이 '_'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 모음 '_'가 탈락한 사례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읊고[읍꼬], 밟지[밥:찌], 맑고[말꼬]'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단어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③ '놓아[노아]'는 자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26 '잠그-+-아 → 잠가[잠가]'는 어간 '잠그-' 끝의 모음 '_'가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모음 '_'가 탈락한 사례이다.

오답 해설 ① 자음 'ㄹ' 탈락에 대한 설명으로, '풀-+-는 → 푸는'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③ 자음 'ㅎ' 탈락에 대한 설명으로, '좋-+-아 → 좋아[조:아]'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④ 모음 탈락에 대한 설명으로, '가-+-아서 → 가서[가서]'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⑤ 모음 탈락에 대한 설명으로, '건너-+-어라 → 건너라[건:너라]'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27 겹받침 'ㅥ'은 '여덟[여덜]'에서와 같이 보통 뒤에 있는 'ㅂ'이 탈락하지만, '넓적하다[넙쩌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등에서는 앞에 있는 자음 'ㄹ'이 탈락한다.

오답 해설 ① 겹받침 'ㄺ'은 보통 'ㄹ'이 탈락하지만 어간 끝 'ㄺ'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에는 'ㄱ'이 탈락한다. 따라서 '굵다[굵:따]'는 올바른 발음이다. ② 겹받침 'ㅀ'은 앞의 자음이 탈락하므로, '굶다[굼:따]'는 올바른 발음이다. ③ '앓다[알:따]'는 올바른 발음이다. ④ 겹받침 'ㅦ'은 자음 앞에서 'ㅌ'이 탈락하므로, '핥다'는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하여 [할따]로 발음된다.

28 〈보기 2〉의 '맑다', '맑게', '붉다', '붉게'에 나타난 겹받침 'ㄺ'은 보통 'ㄹ'이 탈락하지만 어간 끝 'ㄺ'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에는 'ㄱ'이 탈락한다. '맑게'와 '붉고'는 모두 어간 끝 'ㄺ'이 각각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게'와 '-고'를 만나 [말께]와 [불꼬]로 발음되므로,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맑다'와 '붉다'는 겹받침 'ㄺ' 중 앞의 자음이 탈락하여 각각 [막따]와 [북따]로 발음되므로, ㉡(겹받침 중 앞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9 '색연필'은 '색'과 '연필'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덧나 [색년필]('ㄴ' 첨가)로, 다시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생년필](비음화)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 ④ 유음화란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색연필'에서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⑤ 모음 탈락은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색연필'에서 모음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30 '맨입'은 접두사 '맨-'과 어근 '입'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맨닙]으로 발음된다. '한여름'은 접두사 '한-'과 어근 '여름'이 이어진 파생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한녀름]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국물'은 비음화(음운 교체)가 일어나 [궁물]로 발음된다. '홑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운 교체)에 따라 [혿이불]로, 다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음운 첨가)되어 [혿니불]로, 다시 비음화(음운 교체)가 일어나 [혼니불]로 발음된다. ② '눈물'은 음운 변동 없이 그대로 [눈물]로 발음된다. '헛소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운 교체)에 따라 [헏소문]으로, 다시 된소리되기(음운 교체)가 일어나 [헏쏘문]으로 발음된다. ③ '덧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운 교체)에 따라 [덛신]으로, 다시 된소리되기(음운 교체)가 일어나 [덛씬]으로 발음된다. '내복약'은 어근 '내복'과 '약'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음운 첨가)되어 [내:복냑]으로, 다시 비음화(음운 교체)가 일어나 [내:봉냑]으로 발음된다. ⑤ '콩이'는 음운 변동 없이 그대로 [콩이]로 발음된다. '솜이불'은 어근 '솜'과 '이불'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음운 첨가)되어 [솜:니불]로 발음된다.

31 '맏형'은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마텽]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국화'는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구콰]로 발음된다. ② '축하'는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추카]로 발음된다. ③ '좋지'는 예사소리 'ㅈ'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ㅊ'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조:치]로 발음된다. ⑤ '그렇다'는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그러타]로 발음된다.

32 ㉠(굳히다 → [구티다])에서는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이는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구티다] → [구치다])에서는 'ㅌ'이 모음 'ㅣ'와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33 조건 (1)은 거센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고, 조건 (2)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갇히다'는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가티다](거센소리되기)로, 다시 끝소리 'ㅌ'과 모음 'ㅣ'가 만나 [가치다](구개음화)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 '놓이다'는 자음 'ㅎ'이 탈락하여 [노이다]로 발음된다.(자음 탈락) ③ '막히다'는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어 [마키다]로 발음되는 단어로, 거센소리되기와 관련된 조건 (1)만 만족한다. ④ '붙이다'는 끝소리 'ㅌ'과 모음 'ㅣ'가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바뀌어 [부치다]로 발음되는 단어로, 구개음화와 관련된 조건 (2)만 만족한다. ⑤ '잡히다'는 예사소리 'ㅂ'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되어 [자피다]로 발음되는 단어로, 거센소리되기와 관련된 조건 (1)만 만족한다.

34 〈보기 1〉의 ㉠은 음운 탈락에 대한 설명이고, ㉡은 음운 첨가에 대한 설명이다. '담가'는 '담그- + -아 → 담가[담가]'와 같이 어간 끝의 모음 'ㅡ'가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한 모음 탈락의 사례로,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삶'은 음절 끝의 겹받침 'ㄻ' 중 'ㄹ'이 탈락하여 [삼:]으로 발음되는 자음군 단순화의 사례로,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솜이불'은 '솜'과 '이불'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의 자음 'ㅁ'과 모음 'ㅣ'로 시작하는 뒷말이 결합하면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솜:니불]로 발음되는 'ㄴ' 첨가의 사례로, 음운 첨가에 해당한다. '한여름'은 접두사 '한-'과 어근 '여름'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앞말의 자음 'ㄴ'과 반모음 'j'로 시작하는 뒷말이 결합하면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한녀름]으로 발음되는 'ㄴ' 첨가의 사례로, 음운 첨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는 '담가'와 '삶'이, ㉡의 사례로는 '솜이불'과 '한여름'이 적절하다.

35 '앞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압날]로,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암날]로 발음되므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의 예에 해당한다. '국화'는 예사소리 'ㄱ'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구콰]로 발음되므로,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발음되는 음운 축약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국밥'은 'ㄱ' 뒤에 'ㅂ'이 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국빱]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하지만 '넋'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겹받침 'ㅆ' 중 'ㅅ'이 탈락하여 [넉]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② '신라'와 '난리'는 모두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각각 [실라]와 [날리]로 발음되므로, 두 단어 모두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④ '잡목'은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을 만나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잠목]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하지만 '써'는 어간 '쓰-'와 어미 '-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 끝 모음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 사례로,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⑤ '맨입'은 접두사 '맨-'과 어근 '입'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앞말의 자음과 뒷말의 모음 'ㅣ'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맨닙]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첨가에 해당한다. '신다'는 용언 어간 받침 'ㄴ'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가 이어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신:따]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36 '묻히다'는 거센소리되기(ㄷ + ㅎ → ㅌ)가 일어나 [무티다]로, 다시 'ㅌ'과 모음 'ㅣ'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 [무치다]로 발음된다. ㉣(된소리되기)은 '묻히다'의 음운 변동과 관련 없다.

오답 해설 ① '업무'는 'ㅂ'이 뒤에 이어지는 비음 'ㅁ'을 만나 'ㅁ'으로 바뀌어 [엄무]로 발음되므로, ㉠(비음화)이 일어난 사례이다. ② '칼날'은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어 [칼랄]로 발음되므로, ㉡(유음화)이 일어난 사례이다. ④ 한자어 '갈등(葛藤)'은 받침 'ㄹ' 뒤에 'ㄷ'이 이어져 [갈뜽]으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이 일어난 사례이다. ⑤ ㉠~㉣ 모두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37 ㉢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독도'와 '박달재'는 'ㄱ' 뒤에서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독또], [박딸재]로 발음된다. '을숙도(乙淑島)'는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서 예사소리 'ㅅ'이 된소리로, 'ㄱ' 뒤에서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을쑥또]로 발음된다. ㉢의 단어들 중 한자어의 'ㄹ' 받침 뒤의 자음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을숙도'뿐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로,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괄령]', '한라산[할:라산]'은 모두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② ㉡은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들로, '낙화암[나콰암]', '전곡항[전고캉]'은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집현전[지편전]'은 예사소리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소리 난다. ④ ㉣은 모두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로, '국망봉[궁망봉]'과 '백마강[뱅마강]'은 'ㄱ'이 비음 'ㅁ' 앞에서 'ㅇ'으로, '죽녹원[중노권]'은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⑤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된소리되기, 비음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38 '막내'는 비음화가 일어나 [망내]로 발음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음운 변동 전후의 음운 개수도 5개로 달라지지 않는다. '축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추카]로 발음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한여름'은 'ㄴ' 첨가가 일어나 [한녀름]으로 발음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건너라'는 '건너- + -어라 → 건너라[건:너라]'에서 모음 'ㅓ'가 탈락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8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담가'는 '담그- + -아 → 담가[담가]'에서 모음 'ㅡ'가 탈락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푸는'은 '풀- + -는 → 푸는[푸는]'에서 자음 'ㄹ'이 탈락하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따라서 제시된 단어들을 분류한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는가?'이다.

오답 해설 ③ 제시된 단어들 중 모음의 영향을 받는 음운 변동을 받는 것은 '한여름', '건너라', '담가'이다. ④ 음운 변동 결과 인접한 두 음운이 같아진 것은 '한여름'뿐이다. ⑤ 제시된 단어 모두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66~071쪽

01 ⑤	02 ①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①
09 ②	10 ⑤	11 ①	12 ⑤	13 ①	14 ①	15 ③	16 ④
17 ②	18 ④	19 ④	20 ④	21 ①	22 ⑤		

01 '증력'은 비음화가 일어나 [중녁]으로 발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고, '칼날'은 유음화가 일어나 [칼랄]로 발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며, '톱밥'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톱빱]으로 발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므로, '증력', '칼날', '톱밥'은 ㉠에 해당한다. '먹물'은 비음화가 일어나 [멍물]로 발음되어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고, '집념' 역시 비음화가 일어나 [짐념]으로 발음되어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므로, '먹물', '집념'은 ㉡에 해당한다.

02 '굳히다'는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구티다]가 된 후, 'ㅌ'이 모음 'ㅣ' 앞에서 'ㅊ'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구치다]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 '미닫이'는 'ㄷ'이 'ㅈ'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미다지]로 발음된다. 이때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빨갛다'는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빨:가타]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솜이불'은 'ㄴ'이 첨가되어 [솜:니불]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와 축약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⑤ '잡히다'는 'ㅂ'과 'ㅎ'이 'ㅍ'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자피다]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03 ㉠(맨입)은 '맨'과 '입'이 결합하면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쌓아)에서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입학)은 'ㅂ'과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ㅍ'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일어나고, ㉣(칼날)은 'ㄴ'이 'ㄹ'을 만나 'ㄹ'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04 '독서[독써]'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ㅅ'이 'ㅆ'으로 교체되어 음운 개수에 변동이 없고, [써]는 자음 'ㅆ'과 모음 'ㅓ'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오답 해설 ① '놓인[노인]'은 'ㅎ' 탈락(음운 탈락)이 일어나 음운 한 개가 줄어들며, [노]는 자음 'ㄴ'과 모음 'ㅗ'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② '한여름[한녀름]'은 'ㄴ' 첨가(음운 첨가)가 일어나 음운 한 개가 늘어나며, [녀]는 자음 'ㄴ'과 모음 'ㅕ'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③ '읽기[일끼]'는 자음군 단순화(음운 탈락)가 일어나 음운 한 개가 줄어들며, [일]은 모음 'ㅣ'와 자음 'ㄹ'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⑤ '맞는[만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음운 교체)가 일어나 음운 개수에 변동이 없고, [만]은 자음 'ㅁ'과 모음 'ㅏ', 자음 'ㄴ'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05 '불놀이'는 ㉡('ㄹ'의 뒤에서 'ㄴ'이 [ㄹ]로 발음되는 경우)이 적용되어 [불로리]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신라'는 ㉠('ㄹ'의 앞에서 'ㄴ'이 [ㄹ]로 발음되는 경우)이 적용되어 [실라]로 발음된다. ② '칼날'은 ㉡이 적용되어 [칼랄]로 발음된다. ③ '생산량'은 ㉢('ㄴ'의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이 적용되어 [생산냥]으로 발음된다. ④ '물난리'는 ㉠과 ㉡이 모두 적용되어 [물랄리]로 발음된다.

06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끝인사'의 '인사'는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끄딘사]로 발음된다. '곧이'의 '-이'는 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로, 조사와 어미 등이 있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 [고지](㉡)로 발음된다. '곧이어'의 '이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고디어](㉢)로 발음된다.

07 '해맑다[해막따]'를 발음할 때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ㄹ'이 탈락하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ㄷ'이 'ㄸ'으로 교체되므로 음운이 8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오답 해설 ① '샅샅이[샅싸치]'를 발음할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이 'ㄷ'으로 교체되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ㅅ'이 'ㅆ'으로 교체되며, 'ㅌ'이 'ㅣ' 앞에서 'ㅊ'으로 교체되므로 음운 개수는 7개로 동일하다. ② '넓히다[널피다]'를 발음할 때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ㅂ'과 'ㅎ'이 결합하여 'ㅍ'으로 축약되어 음운이 8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③ '교육열[교:융녈]'을 발음할 때에는 'ㄴ'이 첨가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이 'ㅇ'으로 교체되므로 음운이 6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⑤ '국화꽃[구콰꼳]'을 발음할 때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ㄱ'과 'ㅎ'이 결합하여 'ㅋ'으로 축약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ㅊ'이 'ㄷ'으로 교체되므로 음운이 9개에서 8개로 줄어든다.

08 '국밥[국빱]'은 음절 끝 'ㄱ' 뒤에 'ㅂ'이 와서 'ㅂ'이 'ㅃ'으로 교체된 것으로,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는 각각 6개로 같다. '굳히다[구치다]'는 'ㄷ'이 'ㅎ'과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된 후 'ㅣ'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ㅊ'으로 교체된 것으로,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가 7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급행열차[그팽녈차]'는 'ㅂ'이 'ㅎ'과 결합하여 'ㅍ'으로 축약되고 '열차'에 'ㄴ' 첨가가 일어난 것으로, 음운 변동 결과 음운 개수는 10개로 각각 같다.

오답 해설 ⑤ '국밥[국빱]', '굳히다[구치다]', '급행열차[그팽녈차]'는 모두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09 ㉠의 '난로[날:로]'는 뒤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뀐다. 'ㄴ'은 잇몸소리이자 비음이고 'ㄹ'은 잇몸소리이자 유음이므로, 조음 방법(비음 → 유음)만 바뀐다. ㉡의 '맏이[마지]'는 뒤의 음운 'ㅣ'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ㄷ'이 'ㅈ'으로 바뀐다. 'ㄷ'은 잇몸소리이자 파열음, 'ㅈ'은 센입천장소리이자 파찰음이므로, 조음 방법과 위치가 모두 바뀐다. ㉢의 '실내[실래]'는 앞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뒤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뀐다. 'ㄴ'은 잇몸소리이자 비음이고 'ㄹ'은 잇몸소리이자 유음이므로, 조음 방법(비음 → 유음)만 바뀐다. ㉣의 '톱날[톰날]'은 뒤의 음운 'ㄴ'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ㅂ'이 'ㅁ'으로 바뀐다. 'ㅂ'은 입술소리이자 파열음이고 'ㅁ'은 입술소리이자 비음이므로, 조음 방법(파열음 → 비음)만 바뀐다.

10 '팥빵[팓빵]'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많던[만턴]'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되어 발음된다. '애틋한'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어 [애틀한]으로, 다시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애트탄]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낯설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ㅊ'이 'ㄷ'으로 바뀌어 [낟설고]로, 다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ㅅ'이 'ㅆ'으로 바뀌어 [낟썰고]로 발음된다. ② '놓더라'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되어 [노터라]로 발음된다. ③ '맞는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어 [맏는지]로,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ㄷ'이 'ㄴ'으로 바뀌어 [만는지]로 발음된다. ④ '먹히는'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ㄱ'과 'ㅎ'이 'ㅋ'으로 축약되어 [머키는]으로 발음된다.

11 〈보기〉에 따르면 ㉠에는 비음화와 된소리되기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가, ㉡에는 비음화는 일어나지만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

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옷맵시[온맵씨]'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ㅅ → ㄷ), 비음화(ㄷ → ㄴ), 된소리되기(ㅅ → ㅆ)가 일어나므로,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다. '꽃말[꼰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ㅊ → ㄷ), 비음화(ㄷ → ㄴ)는 일어나지만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덮개[덥깨]'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ㅍ → ㅂ), 된소리되기(ㄱ → ㄲ)는 일어나지만,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묵념[뭉념]'은 비음화(ㄱ → ㅇ)는 일어나지만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다. ③ '부엌문'과 '앞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각각 [부억문]과 [압날]로,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부엉문]과 [암날]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비음화만 일어나고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사례에 해당한다. ④ '광안리[광알리]'는 유음화(ㄴ → ㄹ)만 일어날 뿐, 비음화와 된소리되기 모두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권력가[궐력까]'는 유음화(ㄴ → ㄹ), 된소리되기(ㄱ → ㄲ)가 일어나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귓속말[귇쏭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ㅅ → ㄷ), 된소리되기(ㅅ → ㅆ), 비음화(ㄱ → ㅇ)가 일어나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다. '습득물[습뜽물]'은 된소리되기(ㄷ → ㄸ), 비음화(ㄱ → ㅇ)가 모두 일어나므로, 역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다.

12 ㉠의 '꽃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따라 [꼳입]으로, 'ㄴ' 첨가(첨가)가 일어나 [꼰닙]으로, 다시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꼰닙]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와 음운 첨가가 일어난 사례이다. 또한 음운 개수는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의 '맑지'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나 [막지]로, 다시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막찌]로 발음되므로, 음운 탈락과 음운 교체가 일어난 사례이다. 또한 음운 개수는 6개에서 5개로 줄었다. ㉢의 '막힘없다[마키멉따]'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막힘'이 [마킴]으로,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없다'가 [업따]로 발음되므로, 음운 축약, 음운 탈락, 음운 교체가 일어난 사례이다. 또한 음운 개수는 11개에서 9개로 줄었다.

13 '좋고[조:코]'에서는 'ㅎ'과 'ㄱ'이 결합하여 'ㅋ'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닿아[다아]'에서는 음절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아' 앞에서 탈락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쌓네[싼네]'에서는 음절 끝소리 'ㅎ'이 'ㄷ'으로 교체되고, 비음 'ㄴ'의 영향으로 다시 'ㄴ'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넣는[넌:는]'은 음절 끝소리 'ㅎ'이 'ㄷ'으로 교체되고 비음 'ㄴ'의 영향으로 다시 'ㄴ'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좁힌[조핀]'은 'ㅎ'과 'ㅂ'이 결합하여 'ㅍ'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닳지[달치]'는 'ㅎ'과 'ㅈ'이 결합하여 'ㅊ'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이 아닌 ㉠의 예로 적절하다.

14 '값만'은 겹받침 'ㅄ' 중 'ㅅ'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ㅂ'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감만]으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흙과'는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인 'ㄱ'이 'ㄲ'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흑꽈]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잃는'은 겹받침 'ㄶ' 중 'ㅎ'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인 'ㄴ'이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일른]으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읊고'는 겹받침 'ㄻ' 중 'ㅍ'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ㄱ'이 'ㄲ'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읍꼬]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③ '덟지'는 'ㅍ'이 'ㅂ'으로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ㅈ'이 'ㅉ'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덥찌]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밝혀'는 겹받침 'ㄺ'의 'ㄱ'과 'ㅎ'이 결합하여 'ㅋ'으로 교체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발켜]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밟는'은 겹받침 'ㄼ' 중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밤:는]으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닭다'는 'ㄺ'이 'ㄱ'으로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인 'ㄷ'이 'ㄸ'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닥따]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젊어'는 겹받침 'ㄻ' 중 'ㅁ'이 뒤 음절로 연음되어 [절머]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짧지'는 겹받침 'ㄼ' 중 'ㅂ'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인 'ㅈ'이 'ㅉ'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짤찌]로 발음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15 ㄱ의 '목화[모콰]'는 'ㄱ'과 'ㅎ'이 결합하여 'ㅋ'이 되는 음운 축약(거센소리되기)이 1회 나타난다. ㄴ의 '앉다[안따]'는 겹받침 'ㄵ' 중 'ㅈ'이 탈락하는 음운 탈락(자음군 단순화) 1회와 'ㄷ'이 'ㄸ'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된소리되기) 1회가 나타난다. ㄷ의 '맨입[맨닙]'은 'ㄴ'이 새로 첨가되는 음운 첨가('ㄴ' 첨가)가 1회 나타난다. 따라서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ㄱ에만 'ㅇ'라고 표시한 ③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ㄱ~ㄷ순으로 ×, ○, ×로 표시해야 한다. ④ ㄱ~ㄷ순으로 ×, ×, ○로 표시해야 한다.

16 '맏형[마텽]'(6개 → 5개), '짧다[짤따]'(6개 → 5개), '색연필[생년필]'(8개 → 9개)'은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 개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만, '불나방[불라방]'(8개 → 8개), '붙이다[부치다]'(6개 → 6개)는 음운 개수에 변화가 없다.

오답 해설 ① '짧다[짤따]'는 자음군 단순화(ㄼ → ㄹ)와 된소리되기(ㄷ → ㄸ)가, '색연필[생년필]'은 'ㄴ' 첨가와 비음화(ㄱ → ㅇ)가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반해 '맏형[마텽]'은 거센소리되기(ㄷ + ㅎ → ㅌ)가, '불나방[불라방]'은 유음화(ㄴ → ㄹ)가, '붙이다[부치다]'는 구개음화(ㅌ → ㅊ)가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③ '붙이다[부치다]'는 구개음화가, '색연필[생년필]'은 'ㄴ' 첨가가 일어나는데, 이는 모두 뒤 음절의 모음 'ㅣ' 또는 반모음 'j'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⑤ 제시된 단어 중 '불나방'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불나방[불라방]'은 유음화가 일어나 뒤 음절의 'ㄴ'이 'ㄹ'로 바뀌어 인접한 두 음운이 완전히 같아진 경우이다.

17 '맑다[막다 → 막따]'는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고 'ㄷ'이 'ㄸ'으로 교체된다. 이때 'ㄹ'이 탈락하므로 음운은 1개가 줄어든다.

오답 해설 ① '국밥[국빱]'은 'ㅂ'이 'ㅃ'으로 교체되며(음운 교체), 이때 음운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③ '맥내[망내]'는 'ㄱ'이 'ㅇ'으로 교체되며(음운 교체), 이때 음운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④ '물약[물냑 → 물략]'은 'ㄴ'이 첨가되고(음운 첨가) 'ㄴ'이 'ㄹ'로 교체된다(음운 교체). 이때 'ㄴ'이 첨가되므로 음운은 1개 늘어난다. ⑤ '밟힌[발핀]'은 'ㅂ'과 'ㅎ'이 결합하여 'ㅍ'으로 축약된다(음운 축약). 이때 두 음운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운이 되었으므로 음운은 1개 줄어든다.

18 '급행요금[그팽뇨금]'에서는 '급'의 끝소리 'ㅂ'과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고(축약), '급행'과 '요금' 사이에 'ㄴ'이 첨가된다(첨가).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물약[물략]'은 'ㄴ'이 첨가된 뒤(첨가) '물'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교체). ② '읊는[음는]'은 겹받침 'ㄻ' 중 'ㄹ'이 탈락하고(탈락), 남은 'ㅍ'이 'ㅂ'으로 바뀐 뒤(교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어 발음된다(교체). ③ '값하다[가파다]'는 겹받침 'ㅄ' 중 'ㅅ'이 탈락하고(탈락), 남은 'ㅂ'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된다(축약). ⑤ '넓죽하다[넙쭈카다]'는 '겹받침 'ㄼ' 중 'ㄹ'이 탈락하고(탈락), 남은 'ㅂ'의 영향을 받아 뒤의 자음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바뀌어 발음된다(교체). 그리고 '죽'의 끝소리 'ㄱ'과 뒤의 자음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발음된다(축약).

19 '겉멋만 → [건먼만]', '꽃식물 → [꼳씽물]', '낮잡는 → [낟짬는]' 모두에서 음절 끝의 자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일어났다.

오답 해설 ① '겉멋만[건먼만]'에서는 '겉'의 음절 끝 자음 'ㅌ'이 'ㄷ'으로 바뀐 뒤, 뒤에 오는 'ㅁ'을 만나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또한 '멋'의 음절 끝 'ㅅ'이 'ㄷ'으로 교체된 뒤, 뒤에 오는 'ㅁ'을 만나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② '꽃식물[꼳씽물]'에서는 '식'의 음절 끝 자음 'ㄱ'이 뒤에 오는 'ㅁ'을 만나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③ '낮잡는[낟짬는]'에서는 '낮'의 음절 끝 자음 'ㅈ'이 'ㄷ'으로 바뀌어 된소리되기의 조건이 마련된 뒤 다음 음절의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바뀌었다. ⑤ ㉠, ㉡과 달리 ㉢의 '낮잡는[낟짬는]'에서는 'ㄴ'의 영향을 받아 'ㅂ'이 'ㅁ'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20 '겉늙다[건늑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겉'의 'ㅌ'이 'ㄷ'으로 바뀐 뒤 다음 음절의 초성인 'ㄴ'을 만나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밖만[방만]'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밖'의 'ㅍ'이 'ㄱ'으로 바뀐 뒤 다음 음절의 초성인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② '폭넓다[퐁널따]'에서는 '폭'의 'ㄱ'이 비음화의 영향으로 'ㅇ'으로 발음된다. ③ '값만[감만]'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값'의 겹받침 'ㅄ'에서 'ㅅ'이 탈락한 뒤, 남은 'ㅂ'이 뒤에 오는 'ㅁ'의 영향으로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⑤ '호박잎[호방닙]'에서는 '호박 + 잎'의 과정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이 'ㄴ'의 영향으로 '호박'의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21 ㉠의 '실없네[시럼네]'는 'ㅄ → ㅂ'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ㅂ → ㅁ'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오답 해설 ② ㉡의 '깊숙이[깁쑤기]'는 'ㅍ → ㅂ'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ㅅ → ㅆ'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③ ㉢의 '짓밟지[짇빱찌]'는 'ㅅ → ㄷ'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ㅂ → ㅃ'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④ ㉣의 '꺾는[껑는]'은 'ㄲ → ㄱ'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ㄱ → ㅇ'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⑤ ㉤의 '밟고[밥:꼬]'는 'ㄺ → ㅂ'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ㄱ → ㄲ'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22 '버들잎[버들립]'에서는 '버들'과 '잎' 사이에 'ㄴ'이 첨가([버들닙])되며, 첨가된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버들릎])된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교체된([버들립])다. 따라서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따라서 '버들잎은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재밌는[재믿는 → 재민는]'에서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난다. ② '견인력[겨닌녁]'에서는 교체(비음화)가 한 번 일어난다. ③ '똑같이[똑가치 → 똑까치]'에서는 교체(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두 번 일어난다. ④ '겉늙어[걷늘어 → 건늘거]'에서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난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72~073쪽

01 ㉠: [속싸기는] – 된소리되기 ㉡: [진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 [부끄럼가치] – 구개음화 ㉣: [얄께] –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02 ㉠: 비음화 – 'ㄱ, ㄷ, ㅂ'이 'ㅁ, ㄴ'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현상 ㉡: 유음화 –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 'ㅎ'과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 모음 탈락 –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03 ㉠: 국물, 독도 ㉡: 꽃잎, 색연필 04 ㉠: 합성어의 앞말 '서울'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역'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여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이 첨가됨. ㉡: 첨가된 'ㄴ'이 앞말의 받침 'ㄹ'을 만나 'ㄹ'로 교체됨.

01 ㉠의 '속삭이는'은 두 번째 음절의 예사소리 'ㅅ'이 'ㄱ' 뒤에서 된소리로 바뀌어 [속싸기는]으로 발음된다(된소리되기). ㉡의 '짓는'은 '짓'의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어 [진는]으로, 다시 'ㄷ'이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진는]으로 발음된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의 '부끄럼같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바뀌어 [부끄럼가치]로 발음된다(구개음화). ㉣의 '얇게'는 겹받침 'ㅄ' 중 'ㅂ'이 탈락하여 [얄게],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얄께]로 발음된다(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Plus 〈보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_김영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낭만적, 서정적
주제	봄 하늘을 동경하는 순수한 마음
해제	봄 하늘을 우러르고 싶은 순수한 소망을 아름다운 우리말과 감각적인 시어로 표현함.

02 ㉠은 모두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들이다. '국내'는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궁내]로, '식물'은 'ㄱ'이 비음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싱물]로, '닫는'은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어 [단는]으로, '업무'는 'ㅂ'이 비음 'ㅁ' 앞에서 'ㅁ'으로 바뀌어 [엄무]로 발음된다. ㉡은 모두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들이다.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칼날'은 [칼랄]로, '실내'는 [실래]로, '권리'는 [궐리]로, '산림'은 [살림]으로 발음된다. ㉢은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들이다. '축하'는 예사소리 'ㄱ'과 'ㅎ'이 결합하여 [추카]로, '맏형'은 예사소리 'ㄷ'과 'ㅎ'이 결합하여 [마텽]으로, '잡혀'는 예사소리 'ㅂ'과 'ㅎ'이 결합하여 [자펴]로, '좋지'는 예사소리 'ㅈ'과 'ㅎ'이 결합하여 [조:치]로 발음 된다. ㉣은 모두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들이다. '가– + –아서 → 가서'에서는 모음 'ㅏ'가, '담그– + –아 → 담가'에서는 모음 'ㅡ'가 탈락한다.

03 '국물'은 비음 'ㅁ' 앞에서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궁물]로 발음된다. '꽃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입]으로, 다시 'ㄴ' 첨가가 일어나 [꼰입]으로 발음된다. '독도'는 예사소리 'ㄷ'이 'ㄱ' 뒤에서 된소리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독또]로 발음된다. '색연필'은 'ㄴ' 첨가가 일어나 [색년필]로, 다시 비음 'ㄴ' 앞에서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따라서 '국물'과 '독도'는 음운 변동이 한 번, '꽃잎'과 '색연필'은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나는 단어이다.

04 ㉠에서는 'ㄴ' 첨가가, ㉡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74~07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2 비음화와 유음화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03 '앞날[압날 → 암날]'과 같이 한 단어 안에서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기도 한다.

08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일어난다. '끝인사[끄딘사]'와 같이 끝소리 'ㅌ'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0 '굳히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구티다]로 바뀐 뒤, 다시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치다]로 발음된다.

14 '담그- + -아 → 담가'에서 탈락한 모음은 'ㅡ'이다.

15 겹받침 'ㄺ'은 보통 앞에 있는 'ㄹ'이 탈락하지만, 어간 끝 'ㄺ'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에는 뒤에 있는 'ㄱ'이 탈락한다. 따라서 '맑다'는 [막따]로, '맑게'는 [말께]로 발음해야 한다.

(2) 문법 요소와 어휘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78~083쪽

01 ②	02 ①, ⑤	03 ②	04 ④	05 ②	06 ⑤	07 ④	08 ⑤
09 ①	10 ⑤	11 ②	12 ③	13 ②	14 ⑤	15 ⑤	16 ①
17 ②	18 ⑤	19 ⑤	20 ③	21 ①	22 ⑤	23 ②	24 ⑤
25 ③	26 ④	27 ③	28 ⑤	29 ⑤	30 ④		

01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사격 조사가 아닌 주격 조사 '께서'를 통해 실현된다.

오답 해설 ① 상대 높임은 대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어 대우하는 방법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③ 주체 높임은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 높임은 '모시다', '뵙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④, ⑤ 높임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눌 수 있다.

02 격식체란 상대 높임의 유형 중 하나로,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등이 있다. 〈보기 2〉는 주체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므로 격식체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①). 또한 '있다'의 높임말인 '계시다'는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특수 어휘로, '계시다'가 기본형이므로 선어말 어미 '-(으)시-'를 활용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⑤).

오답 해설 ②~④ 〈보기 2〉는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의미를 지닌 어휘 '주무시다, 계시다'를 활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03 ㉠의 '간접 높임'은 주체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처럼 주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②는 '어머니의 키'를 높인 간접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직접 높이고 있다. ③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다. ④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직접 높이고 있다. ⑤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다.

04 ㉢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에서 창문을 닫는 행위를 하려는 대상은 서술의 주체인 '나'로, 주체 높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②, ③ ㉡은 주격 조사 '께서', 높임의 의미를 지닌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05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서술의 객체는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과 ㉢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엄마'를 높인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③ ㉠, ㉡에 나타난 상대 높임의 대상은 '엄마', 주체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이므로, ㉠과 ㉢은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④ ㉡에는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가 생략되어 있지만, '도착하시다'와 같이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⑤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06 첫 번째 문장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는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여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문장 '할아버지께

과일 좀 드리고 오렴.'은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두 문장에서 높여서 표현하려는 대상은 모두 '할아버지'로 동일하다.

오답 해설 ①, ②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의미를 지닌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④ 부사격 조사 '께'와 높임의 의미를 지닌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07 높임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 어미 '-(으)시-'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화자에게 사회적인 상위자로 인식될 때 그와 관련된 동작이나 상태 기술에 결합하여 그것이 상위자와 관련됨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람이 아닌 사물을 대상으로 사용하여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남용하여 사물인 '금액'을 높여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한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① ⓐ는 '그 물건은 품절입니다.'로 고쳐야 한다. ② ⓑ는 '금액은 만 원입니다.'로 고쳐야 한다. ③ ⓒ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⑤ ⓔ는 '휘핑크림 올린 딸기라테 나왔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08 ⑤는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⑤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이모'를 높이고 있다. ②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 '뵙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③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삼촌'을 높이고 있다. ④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09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간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②, ③ 시제는 말하는 이가 말을 하는 때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때인 사건시를 기준으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이 중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간 표현이다. ④ 시간 표현이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지속되고 있는지 완전히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시간 표현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진행상과 동작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완료상으로 나뉜다.

10 ㉠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며, '-고 있다'를 통해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진행상이다. ㉡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며,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동작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완료상이다.

11 ㉠의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②는 '내년에'라는 시간 부사어와 '-(으)ㄹ 것'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③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와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④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와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⑤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12 ㉠의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경우'는 과거 시제이다. ③은 '작년'이라는 시간 부사어(㉢)와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을 뿐, 시간 부사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을 뿐, 시간 부사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오늘'이라는 시간 표현과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⑤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Plus 〈참고〉 시간을 표현하는 관형사형 어미

동사와 결합할 때	과거	-(으)ㄴ, -던 예 읽은 책, 읽던 책
	현재	-는 예 읽는 책
	미래	-(으)ㄹ 예 읽을 책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할 때	과거	-던 예 춥던 날
	현재	-(으)ㄴ 예 추운 날
	미래	-(으)ㄹ 예 추울 날

13 ㉠은 '-아 있다'를 사용하여 동작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완료상이다. ㉡은 '-고 있다.'를 사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진행상이다. ㉢은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동작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완료상이다. ㉣은 '-어 가다'를 사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진행상이다.

14 책의 내용을 소개한 것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발화시와 일치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②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가 사용되었다. ③ '읽은'의 관형사형 어미 '-(으)ㄴ', '알려 주었다'의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읽은'의 '-은'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형 어미로, 책을 읽은 것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15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다. ㉤은 '잠시 후'라는 표현과 '-겠-'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5」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4」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3」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2」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6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게 초점이 있으며 피동 표현에서 행위의 주체는 강조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날씨가 풀렸다.'와 같이 피동문의 서술어가 동작이나 행위가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에는 '(누가) 날씨를 풀었다.'처럼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렵다. ③, ④ 능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함을 표현하는 것을,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⑤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17 능동문인 ㉠을 피동문인 ㉡으로 바꿀 때 능동문 ㉠의 주어(경찰이)는 피동문 ㉡의 부사어(경찰에게)가 된다.

오답 해설 ③ 능동문 ㉠의 목적어(도둑을)는 피동문 ㉡의 주어(도둑이)가 된다. ④, ⑤ 능동문 ㉠에서는 행위의 주체인 '경찰'이 강조되고, 피동문 ㉡에서는 행위의 대상인 '도둑'이 강조된다.

18 '사랑받았다'는 명사 '사랑'에 접사 '-받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므로, ㉠(일부 명사에 접사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을 붙여 만들 수도 있다.)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쏘였다'는 동사의 어간 '쏘-'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② '잡혔다'는 동사의 어간 '잡-'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③ '꺾였다'는 동사의 어간 '꺾-'에 피동 접미사 '-어지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④ '뜯기다'는 동사의 어간 '뜯-'에 피동 접미사 '-기-'를 붙

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19 '먹였다'는 동사의 어간 '먹-'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사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열렸다'는 동사의 어간 '열-'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② '놓였다'는 동사의 어간 '놓-'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③ '잡혔다'는 동사의 어간 '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④ '떠밀리다'는 동사의 어간 '떠밀-'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Plus 〈참고〉 피동과 사동

피동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스스로 동작이나 작용을 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범주 예 접시에 탐스러운 사과가 담겨 있다.
사동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하도록 시키거나 유발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 예 나는 국을 팔팔 끓이었다. 친구가 약속 시간을 늦추었다. 탐스러운 사과가 입맛을 돋운다.

20 '안겼다'는 '두 팔로 감싸게 하거나 그렇게 하여 품 안에 있게 하다.'의 의미로,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피동 표현이 실현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풀렸다'는 동사의 어간 '풀-'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② '읽혔다'는 동사의 어간 '읽-'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④ '깎였다'는 동사의 어간 '깎-'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⑤ '이용되다'는 명사 '이용'에 접사 '-되다'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21 '달혀'는 동사의 어간 '달-'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피동 표현으로,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불려진'은 동사의 어간 '부르-'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함께 결합한 이중 피동이다. ③ '담겨져'는 동사의 어간 '담-'에 피동 접미사 '-기-'와 '-어지다'가 함께 결합한 이중 피동이다. ④ '잊혀질'은 동사의 어간 '잊-'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함께 결합한 이중 피동이다. ⑤ '닦여져'는 동사의 어간 '닦-'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함께 결합한 이중 피동이다.

22 〈보기〉에서 '생산되던'과 관련된 행위의 대상은 '아열대 과일'이고 생략된 행위의 주체는 '농민' 등이 될 것이다. 또한 '생산되었던'과 관련된 행위의 대상은 '사과 등'이고 생략된 행위의 주체는 역시 '농민' 등이 될 것이다. 즉, 〈보기〉에 나타난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서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④ 의도적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하지만,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는 관련 없다.

23 ㉠은 능동문의 목적어가 무정 명사(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명사)인 경우이다. ②는 서술어가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피동문으로, '*감기가 태은이를 걸었다.'와 같이 능동문으로 바꾸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능동문의 목적어 '칭찬'이 무정 명사로, '*칭찬이 재연이에게 들렸다.'와 같이 피동문으로 바꾸었을 때 어색하다. ③ 능동문의 목적어 '밥'이 무정 명사로, '*밥이 성은이에게 많이 먹혔다.'와 같이 피동문으로 바꾸었을 때 어색하다. ④ 피동문의 서술어 '풀렸다'가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누가) 날씨를 풀었다.'와 같이 주어를 상정할 수 없어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⑤ 피동문의 서술어 '걷혔다'가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누가) 안개를 걷었다.'와 같이 주어를 상정할 수 없어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24 직접 인용은 인용할 부분을 큰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지만, 간접 인용은 인용할 부분을 적절하게 정리하여 따옴표 없이 표현한다.

오답 해설 ① 직접 인용은 타인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비교적 생생한 느낌을 준다. ② 간접 인용은 타인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으로, 직접 인용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③ 인용 표현의 개념에 해당한다. ④ 간접 인용은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직접 인용과 비교할 때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 표현, 종결 표현, 인칭 표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25 직접 인용문의 '나'는 '자기'로, '이곳'은 '그곳'으로 바꾸어 '그는 자기는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큰따옴표와 인용한 부분의 문장 부호 '.'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 대신 '고'를 사용하여 간접 인용문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② 큰따옴표와 인용한 부분의 문장 부호 '?'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 대신 '고'를 사용하여 간접 인용문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④ 큰따옴표와 인용한 부분의 문장 부호 '.'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 대신 '고'를 사용하고, '이'를 '그'로 바꾸어 간접 인용문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⑤ 큰따옴표와 인용한 부분의 문장 부호 '.'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 대신 '고'를 사용하고, '여기서'를 '거기서'로 바꾸어 간접 인용문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26 ㉡은 직접 인용문의 종결 표현 '시작해?'가 간접 인용문에서 '시작하느냐'로 바뀌었다.

오답 해설 ①, ② ㉠은 직접 인용문의 시간 표현 '내일'이 간접 인용문의 '오늘'로 바뀌었다. 또한 직접 인용문의 인칭 표현 '나'(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가 간접 인용문에서 '자기(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로 바뀌었다. ③ 직접 인용에서는 인용한 부분 다음에 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에서는 조사 '고'가 쓰인다. ㉡에서는 직접 인용문의 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문에서 '고'로 바뀌었다. ⑤ ㉢에서는 직접 인용문의 지시 표현 '이(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가 간접 인용문에서 '그(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바뀌었다.

27 한 달 뒤에 열리는 전시회에 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므로, ㉢의 '괜찮았지?'는 '괜찮아?' 또는 '괜찮겠어?'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지난 시간 동안 잘 지냈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므로, ㉠의 '지내?'를 '지냈니?'로 바르게 수정했다. ② '전시되어지다'는 명사 '전시'에 접미사 '-되다'와 어미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이므로, ㉡의 '전시되어질'을 '전시될'로 바르게 수정했다. ④ 직접 인용에서는 조사 '라고'를 사용하므로, ㉣의 '고'를 '라고'로 바르게 수정했다. ⑤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여 표현해야 하므로, ㉤의 '에게도'를 '께도'로 바르게 수정했다.

28 ㉤은 가까운 친구에게 꽃의 빛깔을 묘사하는 일상적인 대화 상황이다. 〈보기 1〉에 따르면 고유어는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 내는 표현이 다양하므로, ㉤과 같은 상황에서는 고유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 1〉에 따르면 외래어는 새로운 외국 문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빵을 만들 때는 외국 문화와 관련된 표현이 사용될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보기 1〉에 따르면 사고 도구어는 여러 분야에서 두루 쓰이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이다. 삼단 논법을 설명할 때는 개념, 전제, 명제 등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과 관련된 어휘가 사용될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보기 1〉에 따르면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쓰는 어휘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보기 1〉에 따르면 한자어는 격식 있는 상황에서 많이 쓰이므로, 교내 발표 대회라는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이나 ㉤보다 한자어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29 ㉠은 고유어, ㉡은 한자어, ㉢은 외래어이다. 문어나 격식 있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한자어이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

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고유어는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 한자어에 비해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많다. ②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분화된 의미를 지닌다. ③ '살랑살랑', '아삭아삭'과 같이 고유어에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어 감각과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④ 한자어는 일정한 형태나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개념을 표현할 때 흔히 쓰인다.

30 '분포(分布)하다'는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다.'를 의미하므로, 고유어 '나누다'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분배(分配)하다'는 '몫몫이 벌려 나누다.'를 의미하므로, '나누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② '분류하다(分類)하다'는 '종류에 따라서 가르다.'를 의미하므로, '나누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③ '분리하다(分離)하다'는 '서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다.'를 의미하므로, '나누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⑤ '분할하다(分割)하다'는 '나누어 쪼개다.'를 의미하므로, '나누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84~089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①	05 ②	06 ①	07 ②	08 ①
09 ④	10 ①	11 ④	12 ①	13 ④	14 ③	15 ⑤	16 ②
17 ③	18 ③						

01 ㉡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아버지'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 역시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이므로,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 역시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로 동일하다. ③ ㉢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아버지'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 역시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로 동일하다. ④ ㉣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생략된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이다. ⑤ ㉤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이다.

02 ㅁ의 주체인 '아버지'는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지만, 청자인 '할아버지'에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는 주체인 '아버지'와 청자인 '할아버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아버지'를 높이지 않고 있다. 한편 청자인 '할아버지'는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므로, '-습니다'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ㄱ은 선생님의 소유물인 '책'에 대한 높임을 '-(으)시-'로 실현함으로써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② ㄴ은 방송이라는 공적 담화의 객관성을 고려해 '세종 대왕'을 높이지 않고 있다. ③ ㄷ의 주체인 '어린이'는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화자는 수업이라는 공적인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에 대한 높임을 '-(으)시-'로 실현하고 있다. ④ ㄹ의 주체인 '엄마'는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청자인 '손자'에게는 높임의 대상이다. 따라서 화자는 주체인 '엄마'와 청자인 '손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엄마'에 대한 높임을 '-(으)시-'로 실현하고 있다.

03 ㉡의 '데리고'를 '모시고'로 수정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여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의 '계신가요'를 '있으신가요'로 수정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여야 한다. ③ ㉢의 '이'를 '께서'로, '온다고'를 '오신다고'로 수정하여 주체인 '부장님'을 직접적으로 높여야 한다. ④ ㉣은 '한테'의 '께'로, '주라고'를 '드리라고'로 수정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높여야 한다. ⑤ ㉤의 '한테'를 '께'로, '물어봐'를 '여쭤봐'로 수정하여 객체인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여야 한다.

04 ㄱ은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한 어휘 '여쭈다'를 사용했다.

오답 해설 ② ㄴ은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 '모시다'를 사용했다. ③ ㄷ은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형님'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했다. ④ ㄴ은 말을 듣는 상대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 종결 어미 '-ㅂ니다'를, ㄷ은 말을 듣는 상대인 '형님'을 높이기 위해 종결 어미 '-ㅂ시오'를 사용했다. ㄴ과 ㄷ에 상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조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ㄷ에서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저(말하는 이가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로,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ㄱ에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05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겠-'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형사형 어미 '-(으)ㄹ', 관형사형 어미 '-(으)ㄹ'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으)ㄹ 것'을 통해서도 실현된다. ㉡은 '내릴 것(내리- + -ㄹ + 것)'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ㄹ'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으)ㄹ 것'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에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겠-'은 활용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은 부사어 '지금'과 동사에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한 '내린다'를 통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다. ③ ㉢은 동사의 어간 '찾아가-'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찾아간'과 동사 '내리다'에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내렸다'를 통해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④ ㉠은 '지금', ㉡은 '내일'이라는 부사어를 활용하여 각각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⑤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나중인 것은 미래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것은 과거 시제이다. ㉡은 미래 시제, ㉢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6 ⓐ는 선어말 어미 '-ㄴ-/-는-'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는 선어말 어미 '-겠-'이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된다.'의 선어말 어미 '-ㄴ-'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의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삼촌은 곧 여기를 떠난다.'의 선어말 어미 '-ㄴ-'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잠시만 비켜 주시겠습니까?'의 선어말 어미 '-겠-'은 완곡한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④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와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의 선어말 어미 '-ㄴ-'은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고,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와 '이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의 선어말 어미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그가 내 의도를 알아채고 웃는다.'의 선어말 어미 '-는-'은 현재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고, '우리 고향은 이미 추수가 다 끝났겠다.'의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07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ㄴ은 부사어 '곧'과 선어말 어미 '-겠-'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다.

오답 해설 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이다. ㄱ은 동사의 어간 '내리-'에 선어말 어미 '-ㄴ-'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③ ㄴ은 '곧', ㄷ은 '내일'이라는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④ ㄷ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ㄹ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⑤ ㄱ은 선어말 어미 '-ㄴ-'을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ㄴ은 선어말 어미 '-겠-'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ㄹ은 선어말 어미 '-더-'를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08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것(㉠)은 과거 시제이다. ①은 '먹은'의 관형사형 어미 '-(으)ㄴ'(㉢), '맛있었다'의 선어말 어미 '-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시간 부사어 '내일'과 '읽을'의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미래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③ 시간 부사어 '이미'와 '도착했다'의 선어말 어미 '–였–'(㉡)을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④ 시간 부사어 '작년에는'과 '왔었다'의 선어말 어미 '–았었–'(㉡)을 통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⑤ 시간 부사어 '지금'과 '한다'의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Plus 〈참고〉 선어말 어미 '–였–'

–였–	'하다' 또는 '하다'가 붙는 용언– + –였– + 어미 •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냄. 예 어제는 내내 공부를 하였다(했다). 그는 예전에는 행색이 정말 초라하였다. •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냄. 예 밤새 노래 연습을 하였으니(했으니) 목이 쉴 만도 하지. •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임. 예 집에 아기가 있으니 공부는 다 하였다(했다).

09 ㉣의 '그려졌다'는 동사의 어간 '그리–'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이중 피동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의 '긁혔다'는 동사의 어간 '긁–'에 피동 접사 '–히–'를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② ㉡의 '빼앗겼다'는 동사의 어간 '빼앗–'에 피동 접사 '–기–'를 결합하여 주어인 '형'이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는 행위를 당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③ ㉢의 '세워졌다'는 동사의 어간 '세우–'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를 결합하여 장형 피동을 실현하고 있다. ⑤ ㉤의 '나뉘었다'는 동사의 어간 '나누–'에 피동 접사 '–이–'를 결합하여 '나뉘–'로 줄어든 형태의 피동 표현이다.

10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의 대상이 강조된다.

오답 해설 ②, ④ 피동 표현은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고 했다. ③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라고 했다. ⑤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구성된 '–아/–어지다' 또는 '–게 되다'를 어간에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11 ㄹ의 '보여진다'에서는 '–이–'와 '–어지다'를 함께 사용한 이중 피동이 나타나지만, 이때 '–어지다'는 접미사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라고 했다. ㄱ에서는 능동문의 주어인 '아버지가'가 피동문의 부사어인 '아버지에게'로 바뀌었다. ② 명사 '파악' 뒤에 '–되다'를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다. ③ '꺾이다'는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렵다. ⑤ ㄱ에서는 '안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ㄷ에서는 '꺾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다.

12 '가려진'은 동사의 기본형 '가리다'의 어근 '가리–'에 '–어지다'만 붙은 형태이므로,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쓴 이중 피동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쓰여진'은 동사의 기본형 '쓰다'의 어근 '쓰–'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이다. ③ '담겨진'은 동사의 기본형 '담다'의 어근 '담–'에 피동 접미사 '–기–'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열려진'은 동사의 기본형 '열다'의 어근 '열–'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이다. ⑤ '보여진'은 동사의 기본형 '보다'의 어근 '보–'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이다.

13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나 아는 사람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한다. ㉤에서 '대통령'은 행위의 대상이고, 대통령을 뽑은 행위의 주체는 '국민들'이다. 따라서 ㉤은 행위의 주체인 '국민들'이 누구나 아는 사람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보다 대상을 부각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에서 쏘는 행위의 주체는 '벌'이고 행위의 대상은 '그'이다. ㉠은 '그'를 부각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②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은 피동 표현을 통해 '편지'를 찢은 주체인 '나'를 밝히지 않고 있다. ③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아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한다. ㉢은 행위의 주체인 '기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⑤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 ㉥은 '날씨'를 푼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워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14 '밝혀졌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등을 드러내 알리다.'를 의미하는 동사 '밝히다'의 어간 '밝히–'에 '–어지–'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꾸리다'는 '짐이나 물건 따위를 싸서 묶다.'를 의미하는 동사의 기본형이므로, 이때의 '리'는 피동 접사가 아니다. ② '건네받다'는 '남으로부터 물건을 옮기어 받다.'를 의미하는 동사의 기본형으로, 이때의 '받–'은 접사 '–하–'를 교체한 것이 아니다. ④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아니며,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처럼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다. '존경받는다'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이루다'는 타동사이므로 '–어지–'가 결합한 '이루어지다'는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15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인칭 표현, 지시 표현, 종결 표현 등을 적절히 다시 서술해야 한다. ㅁ에서 '민지'가 부른 '너'는 '나'에 해당하므로, 인칭 표현인 '너'를 '나'로 바꾸어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나를 불렀다고 했다.'로 바꾸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ㄱ은 종결 표현인 '폈구나'를 '폈다'로 적절히 바꾸었다. ② ㄴ은 높임 표현인 '갔어요'를 '갔다'로 적절히 바꾸었다. ③ ㄷ은 시간 표현인 '내일'을 '오늘'로 적절히 바꾸었다. ④ ㄹ은 지시 표현인 '이'를 '그'로 적절히 바꾸었다.

16 '어제' 형이 시험을 본다고 말한 '내일'은 인용을 하는 화자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오늘'이다. 따라서 '내일'을 '어제'로 바꾼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자기'는 앞서 언급한 '형'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로, '나'를 '자기'로 바꾼 것은 적절하다. ③ '이곳'은 인용을 하는 화자의 관점에서 먼 거리에 있는 '형'이 위치한 곳을 가리키므로, '이곳'을 '그곳'으로 바꾼 것은 적절하다. ④ 평서문은 간접 인용에서 종결 어미가 '–다'로 바뀌므로, '–아'를 '–다'로 바르게 바꾼 것은 적절하다. ⑤ 간접 인용에서는 조사 '고'를 쓰므로, 직접 인용에 쓰는 조사 '라고'를 '고'로 바꿔야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Plus 〈참고〉 체언을 도로 나타내는 삼인칭 대명사

재귀 대명사	예 저', '자기', '당신'

17 '공판'은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를 의미하는 법률 분야의 전문어이다. '공판'을 제외한 다른 어휘는 사고 도구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또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하여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 ②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 ④ 수준이나 정도 따위를 끌어올림. ⑤ 보람 있게 쓰거나 쓰임. 또는 그런 보람이나 쓸모

18 ㉡(전문어)은 개념을 명확하게 가리켜야 하므로,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답 해설 ①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도구어)에는 한자어가 많다. ②, ④ ㉠(사고 도구어)은 여러 분야에서 두루 쓰이지만, ㉡(전문어)은 특정 분야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쓰인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 분야의 전문어를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⑤ 특정 분야를 잘 아는 사람끼리는 전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전문어를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90~091쪽

01 • 높임 표현이 잘못된 이유: 사람이 아닌 사물을 대상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음료'를 높여서 표현했다. • 바르게 고친 표현: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02 ㉠은 친구끼리 대화를 나누는 일상적인 상황이므로, 두루낮춤을 표현하는 해체를 사용하여 대화했다. 이와 달리 ㉡은 학생 회의라는 격식적인 상황이므로, 아주높임을 표현하는 하십시오체와 두루높임을 표현하는 해요체를 사용하여 대화했다. 03 • 시간 표현: 시간 부사어 '어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 선어말 어미 '-었-' • 시제: 과거 시제 04 • 잘못된 피동 표현과 바르게 고친 표현: 생각되어집니다 → 생각됩니다 • 잘못된 이유: '생각되어집니다'는 '-되다'와 '-어지다'가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결합한 이중 피동이므로, 피동 표현을 한 번만 사용해야 한다. 05 • 간접 인용문: 농업연구소의 한 연구관은 2100년쯤이면 태백산맥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에서 섭씨 11.5도를 밑도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달라진 점: 큰따옴표 없이 연구관의 말을 인용하고, 종결 어미 '-다'를 '-라'로 바꾸었으며, 조사 '라고' 대신 조사 '고'를 사용했다. 06 (1) 언니는 어제 나에게 오늘 떡볶이를 먹자고 말했다. (2) 제주도에 간 친구가 그곳은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07 • ㉠: 고유어 • ㉡: 한자어 → 각 어휘를 사용할 때의 효과: 고유어를 사용하면 감각과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한자어를 사용하면 격식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개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01 음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쓸 수 없다.

02 ㉠에서는 친구와의 대화 상황에서 '보고할 거야.', '회의 때 보자.'에서 두루낮춤을 표현하는 해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에서는 학생 회의 상황에서 '마칩니다.', '잘 들었습니다.'에서 아주높임을 표현하는 하십시오체를, '말씀해 주세요.', '있나요?'에서 두루높임을 표현하는 해요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03 〈보기〉의 문장은 시간 부사어 '어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 선어말 어미 '-었-'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04 '생각되어집니다'는 피동을 나타내는 '-되다'와 '-어지다'가 함께 사용된 이중 피동이다.

05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큰따옴표 없이 인용할 부분을 적절히 정리한 다음 조사 '고'를 붙인다.

06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화자의 관점에서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종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1)의 직접 인용에 나타난 시간 부사어 '내일'은 간접 인용에서 '오늘'로, (2)의 직접 인용에 나타난 지시 대명사 '이곳'은 간접 인용에서 '그곳'으로 바꾸어야 한다.

07 ㉠은 일상적인 대화 상황이므로 친숙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고유어를, ㉡은 공식적인 뉴스 보도 상황이므로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한자어를 사용하였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92~09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1 상대 높임은 대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어 대우하는 방법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06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간 표현이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간 표현은 미래 시제이다.

08 '재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의 시제는 현재 시제, 동작상은 동작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완료상이다.

10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12 행위의 대상을 강조할 때,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힐 필요가 없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피동 표현을 쓴다.

14 간접 인용은 인용할 부분을 적절히 정리한 다음 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한다.

19 고유어에 비해 분화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한자어이다.

(3) 대화 예절과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96~099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③	05 ②	06 ②	07 ②	08 ⑤
09 ②	10 ①	11 ⑤	12 ②	13 ⑤	14 ③	15 ④	16 ⑤
17 ①	18 ③	19 ③	20 ②, ③				

01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은 대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⑤는 이러한 격률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질의 격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②, ③ 태도의 격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④ 관련성의 격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02 요령의 격률은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협력의 격률 중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협력의 원리 중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협력의 원리 중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주제와 관련 있는 말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03 ㉠에서 친구 2는 개학 날짜를 물어보는 친구 1의 질문에 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며 대화 주제와 관련 없는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에서 친구 2는 늦은 이유를 묻는 친구 1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04 ③에서 B는 시험 범위를 묻는 A의 질문을 듣고, A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해 주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를 지키며 대화한 사례이다.

오답 해설 ① "괜찮아."는 내일 놀러 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와 내일 놀러 가는 것을 사양하는 의미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답이므로, 태도의 격률에 어긋난다. ②, ④ B는 A가 묻는 내용과 관련 없는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에 어긋난다. ⑤ B는 A가 묻는 내용에 과도한 정보를 장황하게 제시하며 대답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과 태도의 격률에 어긋난다.

05 점원은 옷의 가격을 묻는 손님의 질문에 옷의 정가뿐만 아니라 원가와 가격 구성과 관련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점원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점원이 진실한 정보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③ 점원의 대답에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⑤ 공손성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협력의 원리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06 〈보기〉에서 민우가 어디쯤 왔는지 묻자 수아는 거의 다 왔다며 분명하지 않게 대답하고 있다. 민우가 정확한 정보를 듣기 위해 거듭 어디쯤인지를 묻자 역시 수아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분명하지 않게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수아가 지키지 않은 대화의 원칙은 '모호한 표현 피하기'이다.

오답 해설 ① 수아는 짧고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다. ③ 수아의 대답이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아가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전달한 것은 아니다. ⑤ 수아의 대답이 주제와 관련 없는 것은 아니다.

07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할 때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공손성의 원리의 개념에 해당한다. ③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겸손한 표현은 최대화해야 하지만,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예의를 지켜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과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08 동의의 격률은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중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공통점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오답 해설 ① 요령의 격률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② 관용의 격률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③ 찬동의 격률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④ 겸양의 격률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09 공손성의 원리 중 관용의 격률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라는 원칙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실현된다. 친구 1은 친구 2의 말을 잘 듣지 못한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려 친구 2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줄 것을 완곡하게 부탁하고 있으므로, 〈보기〉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관용의 격률이다.

오답 해설 ① 요령의 격률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으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거나 '너만 괜찮다면, ~해 줄래?', '잠깐 시간이 된다면, ~해도 될까?'와 같이 상대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으로 실현된다. 〈보기〉에 이와 같은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③ 찬동의 격률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보기〉에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④ 겸양의 격률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으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겸손한 표현으로 실현된다. ⑤ 동의의 격률은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중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공통점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으로, 〈보기〉에 상대와의 공통점을 언급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10 ㉠에서 친구 2는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친구 1에게 네가 발표자이니 열심히 연습하라며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격률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서 친구 2는 배고프니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는 친구 1에게 공감해 주는 표현 없이 자신은 배가 고프지 않다며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중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공통점은 최대화하라는 동의의 격률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보기〉에 따르면, 겸양의 격률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겸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⑤는 겸양의 격률과 반대로 오히려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으므로, [A]에 들어갈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다.

12 준서가 연습이 부족한 상황을 친구들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유나는 도윤에게 보컬인 네가 제일 잘해야 한다며 상대에게 부담

을 주고 있다. 도윤 또한 유나가 박자를 잘 잡아 줘야 자신이 잘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도윤과 유나는 모두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③, ④ 연우는 실력을 갖춘 사람은 자신뿐인 것 같다며 친구들에게 분발하라고 말하고 있다. 즉, 연우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상대의 실력을 폄하하고 있으므로,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찬동의 격률)과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겸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겸양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⑤ 준서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기 어려움을 밝히며,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중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공통점은 최대화하라는 ㉤(동의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13 체면 유지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이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오답 해설 ① 체면은 사회 구성원이 생각하는 자신의 공적 자아상으로,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②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르면 강요나 명령과 같이 상대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③ 소극적 체면은 자신의 행위가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상대로부터 부담과 강요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이다. ④ 적극적 체면은 바라는 것이 상대에게 수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상대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14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 참여자들은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려면 상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과 상대에게 부담을 준 것을 사과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려면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강조해야 한다. ③은 체면 유지의 원리와 상관없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② 적극적 체면 세워 주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④, ⑤ 소극적 체면 손상하지 않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15 친구 1은 학교에 결석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뒤 노트를 빌릴 수 있을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내일 학교에서 바로 돌려줄 테니"라고 말하며 친구 2의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한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에서 친구 2에게 부담을 준 것을 사과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평소 워낙에 노트 필기를 꼼꼼하게 잘하잖아."에서 친구 2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 친구 1이 친구 2와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16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르면, 강요나 명령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다. ㉤에서 '나'는 모둠원들에게 자신이 추가한 자료를 빨리 확인할 것을 명령하듯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체면 유지의 원리에 어긋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 '나'는 모둠원들이 마련한 발표 내용이 훌륭함을 언급하며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 ㉡에서 '나'는 모둠 발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진도가 조금 느림을 사과하며 상대에게 부담을 준 것을 사과하고 있다. ③ ㉢에서 '나'는 자신도 모둠원들과 똑같이 열심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서로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④ ㉣에서 '나'는 잠깐 시간이 된다면 자신이 추가한 내용을 살펴봐 줄 수 있겠느냐며 상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7 담화 관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거나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오답 해설 ②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속담, 관용구, 고전 등을 살펴보면 과거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③ 담화 관습은 특정한 언어 사용 방식과 태도를 공유하는 집단인 언어 공동체가 오랜 시간 공유해 온 의사소통 규칙이나 질서이다. ④ 담화 관습은 작업이나 세대, 성별, 시대, 사회·문화적 상황과 맥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변화할 수도 있다. ⑤ 언어 사용자는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의사소통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18 ㉠과 ㉡에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하는 담화 관습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언행일치(言行致)는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 ㉡은 언행일치와는 관련이 없다. ②, ④, ⑤ 우리의 담화 관습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9 다변화하는 언어 공동체에서 자신이 속해 있던 언어 공동체가 공유해 온 담화 관습의 우월성을 내세운다면 사회 구성원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다변화한 언어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의사소통하다 보면 갈등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어 주체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언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차별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20 민수는 외국인인 마이클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민수가 책임감을 지니고 언어 실천에 참여했다거나(②),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③)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밥 한번 먹자는 민수의 말을 은지는 반갑다는 의미로, 마이클은 표면적 의미 그대로 식사를 함께하자는 의미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④ 외국인인 마이클이 민수의 말이 지닌 속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일정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한국인인 은지는 민수와 동일한 담화 관습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민수의 말이 지닌 속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00~103쪽

01 ②	02 ②	03 ①	04 ⑤	05 ②	06 ③	07 ②	08 ②
09 ②	10 ④	11 ④	12 ⑤	13 ⑤	14 ⑤		

01 대화 참여자가 서로 예의 바른 태도를 지켜 대화해야 한다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이다. 체면 유지의 원리는 대화할 때 상대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공손성의 원리의 종류로는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의 격률이 있다. ④ 협력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대화 참여자들은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라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02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의 주제와 관련 있는 말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에서 B는 모둠 발표 과제를 정하자는 A의 제안을 듣고 드라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므로, ㉠에 어긋난 대화이다.

오답 해설 ① B는 점심 메뉴를 묻는 질문에 "글쎄, 아무거나."라며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에 어긋난 대화이다. ③ B는 수지의 생일을 묻는 질문에 다른 친구들의 생일까지 답하며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에 어긋난 대화이다. ④ B는 어디에 사느냐는 질문에 장황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과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에 어긋난 대화이다. ⑤ B는 아침 먹었냐는 질문에 장황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과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에 어긋난 대화이다.

03 공손성의 원리에는 요령의 격률(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기), 관용의 격률(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기), 찬동의 격률(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최소화,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기), 겸양의 격률(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 겸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기), 동의의 격률(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중 다른 점은 최소화, 공통점은 최대화하기)이 있다. ①에서 B는 A의 칭찬을 듣고 겸손하지 않은 태도로 반응하고 있으므로, 겸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A는 "잠깐이면 되는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부담을 줄여 부탁하고 있으므로, 요령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③ A는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와 같은 표현으로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관용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④ B는 A의 발언에 동의한 뒤 다른 의견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의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⑤ B는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겸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04 〈보기〉에서는,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나타나 있다. ⑤에서 A는 상대인 B의 능력을 칭찬하며 발표를 맡도록 완곡하게 부탁하고 있고, 자신은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며 상대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으므로, ⑤는 ㉠을 지켜 대화한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② A는 상대를 지적하며 상대의 체면을 손상하고 있다. ③ A는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며 상대의 체면을 손상하고 있다. ④ A와 B는 패배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상대의 체면을 손상하고 있다.

05 김 사부가 "경과가 괜찮네. 쉽지 않은 수술이었을 텐데. 그 응급실 신생아도 네가 발견했다고?"나, "그래, 잘했다."와 같이 차은재를 칭찬하는 표현을 일부 하고 있으나, 갈등 상황에서 차은재가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차은재가 김 사부의 칭찬에 자신의 부족함을 밝히며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차은재는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김 사부는 "경과가 괜찮네. 쉽지 않은 수술이었을 텐데."와 "그래, 잘했다."에서 차은재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차은재와 김 사부 모두 대화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차은재와 김 사부 모두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6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A]에서 차은재는 자신의 관점에서 김 사부의 행동을 비방하고 있으므로, 찬동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②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④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⑤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중 다른 점은 최소화, 공통점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07 [B]에서 김 사부는 단호한 어조로 이유가 정당하다고 해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 보이콧으로 너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오랫동안 상처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네가 잘 알면서"에서 차은재의 행동이 제삼자에게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도 굳이 그런 방식을 네가 꼭 택했어야 했을까?"에서 질문의 방식으로 차은재가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김 사부가 차은재의 말을 다시 진술하며 자신이 차은재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재판장이 "여기 원고, 피고, 판사들 모두 에이피티(APT) 공격이 뭔지 아니까 설명은 생략할까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승준이 에이피티(APT) 공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원고, 피고, 판사의 배경지식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승준은 협력의 원리 중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승준이 겸손하지 않게 말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승준은 재판과 관련된 변론을 펼치고 있다. ④ 승준은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⑤ 승준이 관용의 격률을 어긴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A]에서 윤주가 4천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전 국민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설명하자, 재판장은 이를 '전 국민의 80%'라고 바로잡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윤주는 협력의 원리 중 진실한 정보만을 말해야 한다는 질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므로, 대화할 때에는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에 대한 설명으로, [A]와는 무관하다. ③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에 대한 설명으로, [A]와는 무관하다. ⑤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에 대한 설명으로, [A]와는 무관하다.

▸ (가) 말에 대한 설_윤휴 — 핵심 정리

갈래	설(說)
성격	교훈적
주제	말을 신중하게 하는 태도의 중요성
해제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말을 신중하게 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역설함.

▸ (나) 차계기환(借鷄騎還) — 핵심 정리

갈래	설화
성격	해학적, 교훈적
주제	손님을 대접하는 올바른 태도
해제	상대를 배려하여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과거의 담화 관습이 나타남.

10 (가)에서는 군자나 옛날 사람들은 마지못하여 할 수 없을 때에만 말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말을 가려 신중하게 하는 과거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나)에서 김 선생은 한 무리의 닭을 두고도 채소 안주만 대접하는 벗에게 자신의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고, 자신은 닭을 빌려 타고 가겠다고 돌려 말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과거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11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라.'는 고기의 참맛을 알려면 겉만 핥을 것이 아니라 자꾸 씹어야 하듯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 버리는 것이 좋다는 속담이다. 따라서 말을 가려 조심히 하라는 (가)에 나타난 담화 관습과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

된다는 말 ③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라는 말 ⑤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

12 (나)의 김 선생은 벗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돌려 말하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보기〉의 '사이다'는 답답한 상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보기〉에는 자신의 의사를 직설적으로 밝히는 오늘날의 담화 관습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나)의 김 선생이 〈보기〉의 신문 기사 표제를 접한다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직설적인 표현은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와 〈보기〉 모두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과는 무관하다. ② (나)와 〈보기〉 모두 말을 아끼는 것과는 무관하다. ③ (나)의 김 선생은 직설적인 표현은 피하고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을 사용하고 있다.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김 선생의 담화 관습과 관련이 없다. ④ (나)와 〈보기〉 모두 장점을 드러내며 말하는 태도와는 무관하다.

13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남한 언어를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남한 학생은 북한 학생과 달리 '소행'을 '이미 해 놓은 일이나 짓'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②~④ 〈보기〉에는 형태가 동일한 단어를 두고 발생한 남북한 학생 사이의 오해가 나타나 있으므로, 〈보기〉를 통해 통일 이후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일 이후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 상황에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14 우리말에서는 어머니의 친정어머니는 '바깥 외(外)' 자를 사용하여 '외할머니'로, 아버지의 어머니는 '친할 친(親)' 자를 사용하여 '친할머니'로 불러 왔다. 그런데 이는 남성 중심 사회의 흔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담긴 표현이므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대신 '할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르면 '할머니'는 '외할머니 또는 친할머니'의 대안어에 해당하므로, ⑤는 '외할머니 또는 친할머니 → 할머니'로 바꿔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연한 노란빛을 띤 분홍색을 '살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종이나 사람에 따라 피부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별적 언어가 될 수 있으므로, '살색'의 대안어로 '살구색'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살구색은' 살구의 빛깔과 같이 연한 노란빛을 띤 분홍색을, '살색'은 살갗의 색깔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② '반팔'은 소매가 짧은 옷을 일컫는 표현이지만,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팔이 짧은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반팔' 대신 '반소매'를 대안어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③ 기존에는 학생의 부모를 지칭할 때 '학부형'과 '학부모'라는 표현이 모두 사용되었다. 그런데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을 의미하는 단어로, 학생을 돌보는 일은 아버지나 손위 남자 형제가 할 수 있다는 성차별적 인식이 담겨 있는 표현이므로, 학생의 부모를 지칭할 때에는 '학부형' 대신 '학부모'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④ '벙어리장갑'은 언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담긴 단어로, '손모아장갑', '엄지장갑'을 그 대안어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04쪽

01 질의 격률 02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요령의 격률을 위배했다. 03 〈보기 1〉 (1) 말을 신중하게 한다. (2) 말실수를 줄일 수 있다. / 말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을 막을 수 있다. (3)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보기 2〉 (1)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 (2)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3) 상대에게 상처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

01 동물인 강아지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서진은 협력의 원리 중 진실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질의 격률'을 위배했다.

02 유나와 도윤은 결선을 앞둔 상황에서 상대가 잘해야 한다며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요령의 격률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

03 〈보기 1〉에는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과거의 담화 관습이, 〈보기 2〉에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현재의 담화 관습이 드러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0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3 태도의 격률은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은 질의 격률에 해당한다.

05 요령의 격률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칙이다.

08 상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 쓰기는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며 대화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09 담화 관습은 직업이나 세대, 성별, 시대, 사회·문화적 상황과 맥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변화할 수도 있다.

3 세상과 만나는 말과 글

(1) 인간과 동물의 공존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10~115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④	05 ②	06 ⑤	07 ②	08 ④
09 ⑤	10 ③	11 ⑤	12 ⑤	13 ⑤	14 ⑤	15 ⑤	16 ④
17 ④	18 ③						

01 (라)의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 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고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에서는 인과의 방법(ㄷ)을 활용하여 논증하고 있다. 또한 (다)에서는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을 인용(ㄹ)하여 소유의 의미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ㄱ), 서로 대비되는 의견을 절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도 않다(ㄴ). 또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ㅁ).

02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대인이 동물을 '소유물'이나 '음식'으로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소유'에 대한 에리히 프롬의 의견을 인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해 인간이 소유 관계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03 (마)에서는 자본주의가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내용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박으로 오래전 인류가 동물을 거래한 것은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규모도 매우 작았음을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조건을 분석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보편적 원리를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다. ③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은 밝히고 있지 않다. ⑤ 상황에 대한 가정과 예상되는 결과는 드러나 있지 않다.

04 (바)에서 글쓴이는 육류 산업이 동물을 음식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낳으며, 이러한 태도를 통해 공장식 축산이나 도축의 과정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행위를 학대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ㄱ과 ㄴ은 육류 산업에 대한 장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ㄹ은 육식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ㄷ. (바)에서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이나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로 인해 동물 학대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ㅁ. (바)에서 육류 산업에서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는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이나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낳았다고 하였다.

05 (다)에서 소유 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소유 관계를 맺으면 살아 있는 대상도 죽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죽은 대상과는 소유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소유는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소유 주체는 소유 대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③ 소유는 살아 있는 대상도 죽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문제가 생기는데, 소유의 대상이 생명이 없는 무생물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한 에리히 프롬의 말에서 알 수 있다.

06 ㉡에서 '마트나 펫 숍의 진열장'은 돈을 주고 동물을 사고파는 공간이며 '동물원, 대형 수족관, 서커스장'은 비용을 지불하고 동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에서 인간이 동물과 소유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글쓴이의 관점이다. 따라서 ㉡은 동물과 인간이 소유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게 하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③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에서 동물을 돈을 주고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은 자본주의적 소유의 관념으로 인식된다.

07 '일환'은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것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의미이므로, '하나로'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일체'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이다. ③ '양산하다'는 '많이 만들어 내다.'라는 의미이다. ④ '일반화'는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이라는 의미이다. ⑤ '간과하다'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라는 의미이다.

08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① 설명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② 사회의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밝히고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③ 관념적, 추상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실적, 구체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⑤ 현실의 문제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은 맞으나 개인의 경험이 드러나 있지 않다.

09 (라)에서,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인간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동물권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마)에서, 동물을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동물권'은 동물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하였다. ② (라)에서,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③ (마)에서,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주체로,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반려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동물권이 동물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하였다. ④ (다)에서, 인간은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모든 생명체를

인간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가 설정되었다고 하였다.

10 (나)는 글쓴이가 예상하는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A]는 인간에게는 육식이 필요하며 세상에는 육식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많다는 반론으로, 이에 대해 글쓴이는 육식의 문제점을 밝히며 반박하고 있는데 채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글쓴이는 자금과 같은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였는데, (가)에서 오늘날의 육류 산업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같은 것이라 하였으므로 공장식 축산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볼 수 있다. ②, ④ 각종 현대적 질환과 기아 문제 모두 글쓴이가 육식의 문제로 언급한 것이므로 반박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종교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 문화를 채택하거나 각종 현대적 질환 때문에 채식을 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육식이 필요하다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에 해당한다.

11 인간 중심주의란 인간 이외의 존재들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종 차별주의란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않을 행동을 다른 종에게 저지르는 차별의 논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이익에 의해 형성된다.'라는 가치관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관점이며 ㉠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이고 도구라는 인식을 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 차별주의라고 하였다. ②~④ (다)에서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라는 인식과 그래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이라고 하였다.

12 많은 사람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답 해설 ① 피터 싱어가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했을 뿐, 동물이 이성적 능력보다 감성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 것은 아니다. ②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입장이지만, 피터 싱어가 이에 기반하여 인간이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④ 많은 사람이 '이성'과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13 '반려'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으로, 이 글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관계가 되려면, 동물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 또는 인간의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이며 주체여야 한다.

오답 해설 ①~④ '공산품'은 동물을 주체가 아닌 물건, 즉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말로, '소유물', '도구', '수단'과 그 의미가 같다.

14 (가)는 동물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알리고 펫 숍을 규제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 신문 기사이고, (나)는 펫 숍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설문 1]은 펫 숍이 부적절한 판매 업장이라고 답한 응답이 51.2퍼센트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설문 2]는 펫 숍이 명백히 동물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이 49퍼센트, 동물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응답이 42퍼센트로, 펫 숍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91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설문 1]보다는 [설문 2]가 (가)의 관점을 보완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매체 자료를 접할 때는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살피고, 매체 자료에 상업성, 퇴폐성, 저속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지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가)는 국내에서 펫 숍이 성행하는 현상과 반려동물의 불법 유통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이다. ③ (나)는 펫 숍에서 동물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것이다. ④ [설문 1]은 펫 숍에 대한 별다른 정보 없이 질문을 제시하여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을 파는 부적절한 판매 업장이다.'라는 응답과 '일반적인 애완동물 가게일 뿐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설문 2]는 질문에 '태어난 동물이 경매장을 통해 펫 숍에 공급되며, 팔리지 않은 동물은 다시 번식장으로 보내지거나 식용견이 됩니다.'라는 정보를 제시하여 응답자의 대다수인 91퍼센트가 동물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15 글쓴이는 국내 반려견 불법 유통 현황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과 해외의 엄격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가)를 통해 반려동물 불법 유통의 문제 개선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개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④ (가)에서는 반려동물 매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펫 숍을 금지하는 나라의 경우 유기견 보호소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입양 절차와 요건 또한 까다롭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6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공유한다는 내용은 펫 숍을 규제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국내의 번식장을 폐쇄하자는 캠페인은 불법으로 번식된 동물을 사고파는 펫 숍을 규제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② 펫 숍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펫 숍을 규제하자는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③ 허가된 번식장임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이 열악함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는 참혹한 환경에서 강아지들을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키는 현실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⑤ 펫 숍 등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자료이므로, 펫 숍을 규제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17 봄이 보호자는 펫 숍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 때문에 바람이를 바라만 보다가 오랫동안 펫 숍에 남겨진 바람이를 분양받는 것이 오히려 바람이를 구조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바람이를 데려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이나 펫 숍에서 구입하는 것이나 모두 고통의 상황에 놓인 동물을 구조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학대받던 강아지가 구조된 뒤 현재의 보호자들에게 입양되기까지의 과정과 입양 후의 적응 과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훈련사와 함께 '구조'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②, ③, ⑤ 봄이 보호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은 동물을 사고파는 펫 샵이라는 공간에서 동물은 상품, 즉 물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학대받은 강아지를 입양한 것과 오래 펫 숍에 있던 강아지를 꺼낸 것 모두를 구조라고 생각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펫 숍에서 동물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동물들은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키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은 펫 숍에서 동물을 구입하지 않아야 이러한 환경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④ ㉣의 '이미 태어난 생명이니 보호해야지요.'에서 알 수 있다. ⑤ ㉠와 ㉣은 펫 숍에서 강아지를 데려온 봄이 보호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16~121쪽

01 ①	02 ②	03 ⑤	04 ③	05 ④	06 ①	07 ⑤	08 ④
09 ③	10 ①	11 ⑤	12 ④	13 ①	14 ②	15 ②	

01 (라)에서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② (나)에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어떤 동물이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동물이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즉, 동물이 식량으로 인식되면, 동물이 인간의 먹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인간은 동물에 대한 가혹한 행위를 학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④ (가)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한 부분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양적 발전이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소유는 비용을 지불하고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므로, 펫 숍에서 동물을 거래하는 것이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글쓴이는 주장한다. 따라서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고파는 것을 규제하여 동물을 물건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02 동물을 상품으로 여겨 상업적 목적으로 사고파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지만, 동물을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③ (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글 전체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여기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⑤ (나)에서 '소유 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 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심지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자본주의에서 소유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소유 관계는 대상을 물건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으로 변형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에서는 살아 있는 대상도 소유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더 많이 소유할수록 죽은 것이 늘어나게 되므로 생명은 소외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소유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04 〈보기〉는 어린 동물의 거래를 규제하는 외국의 사례이다. 따라서 (다)의 마지막 문장인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뒤에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05 글쓴이는 펫 숍과 같은 공간이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 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이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라는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의 사례로 마트, 펫 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 서커스장을 들고 있지만, 이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다. ② 귀납 논증에 대한 설명인데, (다)에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권위 있는 견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인데, (다)에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지 않았다.

06 (라)의 '저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가 글쓴이의 반박에 해당한다. (라)에서 자본주의 이전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더 선호하였다는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④, ⑤ '아주 오래전에도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공장식 축산'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동물을 공장식으로 키워내는 것으로,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인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07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된다는 것은 식량 동물을 동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육류 산업이 동물을 생명이기 이전에 음식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낳음으로써, 공장식 축산이나 도축의 과정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행위를 학대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식량 동물과 반려동물을 구분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되는 것이다. ② 식량 동물은 동물을 음식으로 인식한 결과로, 인간을 위해 도축된다는 이유로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③ ㉡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된다는 것을 통해, 식량 동물에 대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8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하였으므로,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권위자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오래전에 인류가 사냥 등을 통해 육류를 획득한 것은 실용적, 현실적인 목적을 위한 육식으로 볼 수 있다. ②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밝히며,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말하였다. ③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는 자본주의 탓이 아니라,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⑤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09 (나)에는 육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 있는데, 〈보기〉의 ㄱ, ㄹ, ㅁ은 육식을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ㄴ은 육식 반대의 근거이며, ㄷ은 육식 반대와 육식 찬성의 두 주장 모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피터 싱어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기준은 고통을 느끼느냐의 여부이므로, 생명이 없는 존재는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므로, 고통을 느끼는 인간과 동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③ 인간이 식량을 얻기 위해 동물을 기르고 죽이는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을 느끼므로, 피터 싱어의 관점에서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④ 피터 싱어는 동물과 인간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⑤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피터 싱어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11 '반려'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으로 동물을 인간과 대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담겨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명칭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을 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 차별주의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② (마)에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고 동물과 인간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로 인해 동물과 바람직한 공존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마)의 '동물을 소유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에야 올바른 의미의 '공존'이 가능해진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애완동물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의 '완(玩)'은 장난감을 뜻한다. 따라서 ⓒ는 장난감과 같이 인간이 동물을 일방적인 소유하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2 해외에서는 펫 숍이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펫 숍이 여전히 성업 중이며 강아지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상황을 대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즉, 국내와 반대되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펫 숍을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펫 숍의 이면에는 참혹한 환경에서 강아지들을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키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해외와 같이 펫 숍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불법 번식 유통으로 추정되는 동물의 수를 통계 자료로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③ 국내의 반려동물 불법 번식·유통 현황을 다룬 신문 기사로, 펫 숍에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⑤ '해외에서는 펫 숍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 일부 주에서는 자격 검증 시험을 요구하기도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설문 1]은 펫 숍이 부적절한 판매 업장이라고 답한 응답이 51.5퍼센트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설문 2]는 91퍼센트가 펫 숍을 통한 동물 거래가 동물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설문 1]보다는 [설문 2]가 이 글의 관점을 보완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설문 1]은 펫 숍이 부적절한 판매 업장이라고 답한 응답이 51.5퍼센트, [설문 2]는 펫 숍을 통한 동물 거래가 동물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이 91퍼센트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펫 숍을 부적절한 판매 업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설문 1]은 특별한 정보 없이 펫 숍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으며, [설문 2]는 펫 숍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제공한 뒤 동물권 침해 여부를 묻고 있다. 이로 인해 응답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매체 자료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접할 때는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설문 1]은 펫 숍에 대한 별다른 정보 없이 질문을 제시하여 펫 숍이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을 파는 부적절한 판매 업장'이라는 응답과 '일반적인 애완동물 가게'일 뿐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펫 숍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설문 2]는 질문에 '태어난 동물이 경매장을 통해 펫 숍에 공급되며, 팔리지 않은 동물은 다시 번식장에 보내지거나 식용견이 됩니다.'라는 정보를 제시했는데, 이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91퍼센트가 펫 숍이 동물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14 ②는 펫 숍의 동물을 구입하는 것이 동물에게 사랑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으로, 펫 숍에서 동물을 사는 행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펫 숍에서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15 ㉡은 반려동물의 입양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입양을 하는 것만이 동물을 구하는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은 반려동물을 사는 것에 반대하며 입양할 것을 권장하는 말이다. ③ ㉢의 다음 문장인 '사면 잘못됐다는 인식으로.'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펫 숍에서 바람이를 사서 데려오는 것이 구조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이다. ⑤ 펫 숍에서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구조하는 방법으로서 펫 숍에서 동물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22~123쪽

01 •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태도 • 동물을 잠재적 식량(음식)으로 인식하는 태도 • 동물을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고 여기는 태도 **02** (1) ㉠은 인간이 동물을 소유물로 여긴다는 의미이고, ㉡은 인간이 동물을 동반자로 여긴다는 의미이다. (2) 동물을 소유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에야 올바른 의미의 '공존'이 가능해진다. **03**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혀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04**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

01 (가)에서는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나)에서는 동물을 식량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다)에서는 동물을 인간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02 (1) '애완'은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김.'의 뜻이고, '반려'는 '짝이 되는 동무'의 뜻이다. (2)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는 인과의 방법을 활용하여 논증을 구성하고 있다.

04 이 글과 〈보기〉 모두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24~12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4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08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 · 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다.

15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는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6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즉,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 펫 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도 펫 숍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교실에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28~133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③ 06 ① 07 ⑤ 08 ③
09 ④ 10 ③ 11 ⑤ 12 ④ 13 ④ 14 ③ 15 ⑤ 16 ①
17 ⑤ 18 ③ 19 ④

01 반대 측은 교실 내 시시 티브이가 악용될 소지가 있고, 학교 폭력의 핵심 장소가 교실이 아니며, 학교 폭력은 총동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를 들어,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최근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교실에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고 있다. ③, ⑤ 찬성 측은 입론에서 교실 내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이며,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교실 내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반대 신문에서 시시 티브이의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시시 티브이 설치 및 교체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근거를 들어 찬성 측의 주장에 반대하는 논증을 펼치고 있다.

02 사회자는 논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교실에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소개하고 있다. ② (가)에서 최근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실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 흔히 말하는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토론의 배경이 나타나 있다. ③ (다)에서 '반대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와 같이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④ (다)에서 사회자는 찬성 1의 발언을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로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03 (다)에서 반대 2가 교실 내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질문하자 찬성 1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며(ㄹ), 반대 2가 교실 내까지 최신형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냐고 묻자 비용이 들지만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고 있다(ㅁ).

오답 해설 ㄱ과 ㄷ은 찬성 측, ㄴ은 반대 측의 의견이다.

04 (나)에서 찬성 1은 학내 갈등 조정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례를 근거로 시시 티브이 교내 설치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시시 티브이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을 의미하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와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③ 영국 맨체스터와 호주의 사례를 들고 있다. ④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26.6퍼센트가 교실 안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반대 측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할 뿐, 최신형 시시 티브이의 설치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라)의 "저희는 교실이 학교 폭력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반대 1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라)의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의 피해 유형별 응답을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언어폭력이었습니다."라는 반대 1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의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와 "사각지대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라는 반대 2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의 "학교 폭력은 충동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시시 티브이로 막기 어렵고, 교실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반대 1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 ㉠과 ㉡은 시시 티브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다. ㉠은 시시 티브이의 긍정적 측면을 표현하기 위해 보호와 안전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며, ㉡은 부정적 측면을 표현하기 위해 단속과 통제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과 ㉡은 시시 티브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시시 티브이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③ ㉠은 찬성 측이 시시 티브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안전 보장의 측면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④, ⑤ ㉡은 찬성 측이 정의한 '보안 카메라'를 반대 측에서 점검하면서 단속의 측면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07 찬성 측은 교실 내 시시 티브이의 설치가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 2는 [A]에서 시시 티브이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언급한 뒤 사각지대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를 들어, 시시 티브이가 학교 폭력의 예방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논제와 관련된 시시 티브이의 개념은 (나)에서 찬성 1이 이미 정의를 내렸다. ②~④ 찬성 측 주장의 일관성이나 근거의 신뢰성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찬성 측의 주장이 쟁점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다.

08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을 뜻하는 단어는 '여지'이다. '소지'의 의미는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일 따위를 생기게 하는 원인. 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다.

09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여 학교 폭력이 감소하였다는 해외의 사례는 시시 티브이 설치로 인한 학교 폭력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쟁점이 '방안의 실현에 따른 이익'이므로, 교실 내에 시시 티브이 설치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나)의 "또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찬성 1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큰 비용까지 드는 일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라는 반대 1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의 "게다가 설치에 드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 실제로 관련 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라는 반대 1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토론 규칙을 따져 가며 토론을 진행시키는 사람은 토론자가 아니라 사회자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토론이므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서로의 논지를 반박하며 토론에 임해야 한다. ②, ④ 찬성 측은 교실 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 측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⑤ 토론에서는 상대 측의 주장이나 근거에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이에 반박해야 한다.

11 (가)에서 찬성 1이 학교 폭력은 신체 폭력,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므로 시시 티브이로 잡아낼 수 있지 않겠냐고 질문하자, 반대 1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시시 티브이 설치가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이 학교 폭력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시시 티브이로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언어폭력은 시시 티브이로 예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라는 찬성 1의 반대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의 "30일은 길지 않은 시간인데, 피해 학생이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시시 티브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반대 1의 반대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의 "게다가 교실 내 시시 티브이는 부작용이 큽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반대 2의 입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라)의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도 학교 폭력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시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반대 2의 입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나)에서 찬성 2는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면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③ 찬성 2는 시시 티브이 설치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 (나)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13 [A]와 [B]는 반대 신문으로, 상대측의 입론의 문제점이나 허점이 드러날 수 있게 질문하는 단계이다. [A]는 학교 폭력이 여러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대 1의 대답을 언급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폭력은 시시 티브이로 잡아낼 수 있지 않겠냐고 질문하고 있다. 즉,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언어폭력은 시시 티브이로 예방할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B] 또한 찬성 2가 말한 시시 티브이 영상 보관 기간을 언급하며, 보관 기간이 짧아 시시 티브이가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고 있다. 이는 시시 티브이가 학교 폭력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A]에서는 반대 측이 사용한 어휘의 개념이나 근거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③ [B]에서는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⑤ [A]와 [B] 모두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상대측 주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14 반대 신문은 상대측 입론의 문제점이나 허점이 드러날 수 있게 질문하는 단계로, 반론 단계가 아닌 입론 단계에서 행해진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의 입론을 시작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반대 신문'을 반복한 후, 반대 측의 반론을 시작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반론을 주고받는다. ④ 입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반론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한다.

15 찬성 1은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의견과 〈학교 내 영상 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의 표준 가이드 라인〉을 근거로 들어 교실 내 시시 티브이가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반대 1은 학내 여러 곳에 설치된 시시 티브이를 피해 사각지대에서만 반복적으로 폭력을 입은 학생의 사례를 근거로,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② (나)에서 〈2022년 2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학교 폭력 예방 활동임을 주장함으로써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③ (가)에서 찬성 2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학교 보안관이나 배움터 지킴이처럼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 반대 2는 시시 티브이가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없다는 찬성 측의 발언을 언급하며, 시시 티브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서적 불안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6 반대 1이 찬성 측의 주장 내용에 대해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학내 여러 곳에 설치된 시시 티브이를 피해 사각지대에서만 반복적으로 폭력을 입은 학생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과연 몇 대의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사각지대가 없을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한 실천 중심의 현실적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이 글의 논제인 '교실에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와 ⑤는 정책 논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룬다.

오답 해설 ①, ④ 사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사실 논제이다. ②, ③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가치 논제이다.

18 ③은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 찬성 의견에 해당하지만,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교실 내 시시 티브이가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이유로 적절하다.

19 〈보기〉는 가정에 널리 설치된 통합 주택 제어판이 해킹되었다는 내용으로, 영상이 악용되거나 유출(ⓔ)된 사례로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보기〉는 가정에 설치된 통합 주택 제어판 해킹에 관한 내용이므로, 시시 티브이 영상의 실시간 확인 불가(㉠), 시시 티브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 시시 티브이가 비추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존재(㉢), 시시 티브이에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와는 관계가 없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34~139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①	05 ⑤	06 ③	07 ⑤	08 ③
09 ④	10 ①	11 ③	12 ②	13 ①	14 ②	15 ③	16 ④

01 이 글의 논제는 "교실에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실에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게 된 것인데, 논제에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있지 않다. ②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서로의 주장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과의 절충 방안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사실 논제에 대한 설명으로, "교실에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실 논제가 아닌 정책 논제이다. ⑤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02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반론은 반대 측에서 먼저 시작하며 찬성 측과 번갈아 발언한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찬성 1의 입론(㉠)이고, 제일 마지막 순서는 찬성 2의 반론(ⓔ)이다. ② 반대 2의 반대 신문(ⓒ)은 찬성 1의 입론(㉠) 뒤에, 찬성 1의 반대 신문(ⓔ)은 반대 1의 입론(ⓒ) 뒤에, 반대 1의 반대 신문(ⓑ)은 찬성 2의 입론(ⓓ) 뒤에, 찬성 2의 반대 신문(ⓞ)은 반대 2의 입론(ⓐ)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보기〉를 보면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는 각각 입론, 반대 신문, 반론의 발언을 한다. ⑤ 반대 측의 첫 번째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은 ⓔ로, 이는 찬성 1에 의해 이루어진다.

03 토론 참여자들에게 유의할 점을 알려 주어 토론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것도 토론 사회자의 주요한 역할이지만 이 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가)의 "교실에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겠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⑤ (다)에서 찬성 측 입론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반대 측 제2 토론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다.

04 해결 방안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은 반대 측이다. 찬성 측은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집단 따돌림과 폭력 사건 등이 교실 안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실 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③ "심각한 문제인 교실 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입증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실 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시시 티브이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을 의미하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찬성 측은 효과와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⑤는 반대 측에서 주장할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찬성 측은 문제가 중대하고 심각하며, 문제에 대한 조치가 시급함을 주장해야 한다. ② ⓑ에서 반대 측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조치도 시급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한다. ③ ⓒ에서 찬성 측은 제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시한 방법의 시행이 가능함을 주장해야 한다. ④ ⓓ에서 반대 측은 제시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며, 제시한 방법의 실행이 어려움을 주장해야 한다.

06 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학내 갈등 조정에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례는 (나)에서 찬성 1이 제시한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찬성 측은 안전을 강조하며 '보안 카메라'라는 말을 제시했지만, 단속의 의미를 담은 '감시 카메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하지만 저희는 교실이 학교 폭력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교육부 조사와는 달리 학교 밖 폭력이 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언어폭력은 습관성 욕설과 비속어 등으로 나타나는데, 시시 티브이에는 녹음 기능이 없으므로 이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현재 학교 복도나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시 티브이의 화질이 좋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교실에까지 설치한다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이 글은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반대 신문은 상대 측이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 이유,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 따져 묻는 말하기이다.

오답 해설 ①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찬성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들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해야 한다. ② 정책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논제로, '~해야 한다.'의 형태로 써야 한다. ③, ④ 반대 신문식 토론은 논제의 쟁점으로 문제, 해결 방안, 이익 및 효과 등을 살필 수 있다.

08 (다)에서 찬성 2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례를 근거로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사회자는 찬성 2의 발언을 요약·정리하고, 반대 측 제1 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할 차례임을 알려 주고 있다. ② 찬성 1은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반대 1은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반대 2는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09 (다)에서 찬성 2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받게 된 이유가 학교 폭력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교실에 시시 티브이가 있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다)에서 찬성 2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거나, 주요 개념을 비교하거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10 상대측 발언 순서 준수 여부는 반대 신문할 내용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⑤ 상대측의 논제 분석과 용어 사용이 적절한지, 상대측 논증의 이유와 근거가 신뢰할 만한지, 상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고려하여 반대 신문을 해야 한다.

11 (나)는, 언어폭력은 시시 티브이로 예방할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찬성 측이 반대 신문을 하는 단계이다. 학교 폭력을 언어폭력으로 한정지어 주장의 근거로 삼은 허점을 지적하여, 학교 폭력은 언어폭력뿐 아니라,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시시 티브이로 잡아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찬성 1이 ㉠과 같이 말한 의도와 거리가 멀다.

12 ②에 제시된 근거는, '동물과 인간의 생리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하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와, 자동차 매연이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근거로,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③ 과도한 장시간 노동은 산업 재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유와,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 시간이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시간보다 20퍼센트 이상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④ 케이블카 설치는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유와, 케이블카 설치 비용보다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관광 수입이 더 크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립 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⑤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면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이유와, 사용한 종이컵은 재사용률이 1퍼센트로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학교에서 개인 컵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13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해결 및 실행 가능성, 효과 및 이익이다. ①은 필수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③ 필수 쟁점 중 '문제'에 해당한다. ④ 필수 쟁점 중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⑤ 필수 쟁점 중 '이익 및 효과'에 해당한다.

14 (나)에서 반대 측은 시시 티브이의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근거로 들어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으며 녹화된 영상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시시 티브이 설치로 인한 부작용으로 밝히고 있다. 시시 티브이가 감시의 역할을 하여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시시 티브이의 부작용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교실 내 시시 티브이가 초상권, 사생활권,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④ 시시 티브이의 내용이 웹이나 모바일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안에 해당한다.

15 (다)에서 반대 1은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시시 티브이 설치보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를 근거로 든 것이 아니라, 〈2022년 2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게다가 교실 내 시시 티브이는 부작용이 큽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반대 2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학교 보안관이나 배움터 지킴이처럼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라는 찬성 2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의 "학내 여러 곳곳에 설치된 시시 티브이를 피해 사각지대에서만 반복적으로 폭력을 입은 학생의 사례가 뒤늦게 보도된 것처럼 최신형 시시 티브이에도 사각지대는 있었습니다."라는 반대 1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바)의 "시시 티브이에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라는 찬성 2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는 동물원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보기〉의 필수 쟁점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는 '문제'에 해당하는 필수 쟁점이고 ⓑ는 '효과 및 이익'에 해당하는 필수 쟁점이다. ⓒ는 ⓐ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는 ⓑ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40~141쪽

01 • 논제: 교실 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 • 논제의 유형과 개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이다. **02** ㉠: 문제 ㉡: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 ㉢: 이익 및 효과 **03** 감시 카메라 **04**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소개한다.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토론자에게 발언 기회와 시간을 균등하게 제공한다. 논제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들이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지키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 등 **05** • 주장: 교실 내 시시 티브이는 부작용이 크다. • 이유: 교실 내 시시 티브이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근거: 2012년에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교실 내 시시 티브이가 기본권을 제한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01 이 글의 논제는 "교실 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이다.

02 (가)의 필수 쟁점 중 '문제(㉠)'는 '교실 내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이다.'이고, '해결 방안'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이며, '이익 및 효과(㉢)'는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회 비용을 줄일 수 있다.'이다.

03 (나)에서 반대 1은 시시 티브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긴 '감시 카메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04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배경과 논제 소개, 토론자의 발언 내용 요약·정리, 토론자에게 발언 기회와 시간 균등하게 제공, 논제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토론 진행, 토론자들이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지키며 토론에 참여하도록 유도'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05 주장은 '교실 내 시시 티브이는 부작용이 큽니다.', 이유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이미 2012년에 국가 인권 위원회는 교실 내 시시 티브이가 초상권과 사생활권,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42~14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2 찬성 측은 현 상황의 변화를, 반대 측은 현 상황의 유지를 주장한다.

03 입론은 자기 측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말하기이다.

05 찬성 측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방안이 실행 가능함을 입증해야 한다.

07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토론자의 역할이다.

11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13 찬성 1은 시시 티브이에 대해 안전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의미로서 '보안 카메라'라고 정의하고 있다.

15 반대 측은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 이익이 생길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비용이나 부작용이 더 클 것임을 주장하며 반박해야 한다.

20 찬성 측은 시시 티브이가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문학의 갈래

(1) 뿌리에게_나희덕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48~151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④ 05 ④ 06 ③ 07 ④ 08 ①
09 ② 10 ⑤ 11 ⑤ 12 ⑤ 13 ④ 14 ④ 15 ② 16 ③
17 ⑤

01 '흙'을 화자로, '뿌리'를 청자로 설정해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데, '흙'이 '뿌리'에게 '발 적시며 뻗어 가려무나', '나를 뚫고 오르렴', '마지막 잔을 마셔 다오' 등과 같이 말하는 데에서 애정과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자연물인 흙과 뿌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 아니다. ③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동일한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⑤ '뿌리'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며,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02 흙 속에 있던 뿌리가 흙의 영양분을 받아 푸른 줄기로 성장하는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 있지만 계절의 흐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외부의 풍경 묘사 후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④ 인간과 자연이 아닌 뿌리의 성장과 흙의 노쇠를 대비하고 있다. ⑤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나(흙)'는 '너(뿌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는 희생적 사랑을 보여 주고 있을 뿐, 둘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뿌리에 대한 흙의 헌신, 희생, 포용의 태도가 드러나 있지만, 흙에 대한 뿌리의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③ 나는 화자로 흙을 의인화한 것이고, '너'는 청자로 뿌리를 의인화한 것이다. ⑤ 뿌리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황폐해지는 흙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4 흙은 뿌리에게 영양분을 주며 기뻐하던 '연한 흙'에서 성장하는 뿌리를 감싸주던 '착한 그릇', 헌신하는 '껍데기', 그리고 뿌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준 '빈 그릇'으로 변화하고 있다. '벌레들'은 뿌리에게 줄 수 있는 영양분으로 뿌리에 대한 흙의 사랑을 보여 주는 소재일 뿐, 흙의 변화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연한 흙'은 뿌리에게 영양분을 주며 기뻐하던 흙을 가리킨다. ② '착한 그릇'은 성장하는 뿌리를 감싸 주던 흙을 가리킨다. ③ '껍데기'는 성장하는 뿌리를 위해 헌신하는 흙을 가리킨다. ⑤ '빈 그릇'은 뿌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준 흙을 가리킨다.

05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은 역설법을 사용하여, 뿌리를 향한 흙의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을 뿌리가 알지 못한다하더라도 자신은 이러한 희생과 사랑이 기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④의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거니'는 '밤에 유리를 닦는 것'을 '외로운 황홀한'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자식의 죽음 후에 '외로움'을 느끼지만 유리창을 통해 아이를 느낄 수 있기에 '황홀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세차장 고무호스의 물줄기처럼 솟아오르는 삶을 살고 싶음을 직유법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② 반복법과 열거법을 통해 별을 보고 느끼는 생념을 표현하고 있다. ③ 수유나무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말을 건네는 의인법이 사용되

었으며, 설의법을 활용하여 수유나무가 살아온 나날이 어둠뿐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의인법, 직유법, 대구법을 통해 하늘을 우러르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06 '바람'은 외부의 시련을 의미하지만, '더운 김'은 뿌리를 만났을 때의 벅찬 감동과 뜨거운 사랑을, '먼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은 더 크게 성장하고픈 뿌리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를 통해 화자인 '나'(흙)가 과거를 회상함을 알 수 있다. ② 과거의 모습을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현재의 모습을 '하나의 빈 그릇'이라고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A]에서 연했던 흙은 뿌리에게 영양분을 준 후 [D]에서 단단해지고 황폐화된다. 그러나 [E]에서 흙은 재생되어 다시 연해지면서 자연의 순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A]~[E]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뿌리의 성장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07 ㉣은 자라나는 뿌리를 축복하는 흙의 마음이 담긴 표현으로, 포용력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를 회복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오답 해설 ㉠은 흙과 뿌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올라오던 더운 김을 통해 흙의 따뜻함을, ㉡은 피를 흘려보내는 모습에서 흙의 희생적 사랑을, ㉢은 '감싸고'에서 흙의 포용력을, ㉤은 모든 것을 주고 껍데기가 되어 버린 흙이 마지막 하나까지 '뿌리'에게 주려는 모습에서 '흙'의 한없는 희생을 느낄 수 있다.

08 '⑧('막 갈구어진 연한 흙') → ⓑ('단단해지는 나의 살') →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에는 뿌리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연했던 흙은 점점 거칠어지고 단단해지며, 마침내는 빈껍데기가 되어 다시 연한 흙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 과정을 통해 생명의 지속성, 즉 영원한 모성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흙의 변화 과정을 통해 모성이 차가우면서도 따뜻하다는 의미는 도출할 수 없다. ③ 흙의 헌신적인 모습은 드러나지만, 희생을 통해서만 모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자연의 순환 과정을 통해 생명이 지속됨을 강조하고 있다. ④, ⑤ 모성이 강인하거나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09 흙과 뿌리를 의인화하여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자연의 충만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자연의 충만한 사랑'이라는 주제와 거리가 멀다. ④ 흙이 가진 생명력을 뿌리에게 불어넣어 성장시키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생명력의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10 '아 나의 사랑을', '뻗어 가려무나', '가졌어라', '마셔 다오' 등의 영탄적 어조를 통해 뿌리에 대한 흙의 희생적 사랑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조적'은 자기를 비웃는 듯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자조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나 움직임, 행동 등을 흉내 낸 말로, '반짝'이 사용되었으나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③ 1연과 5연의 첫 행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불꽃 같은 바람' 등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나, 대상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11 화자인 흙은 뿌리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④ 화자인 흙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

12 처음에 '연한 흙'이었다가 뿌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고 '껍데기, 빈 그릇'이 되었지만 다시 다른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는 순환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생명이 탄생해서 소멸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는 연한 흙의 형태로 뿌리에 영양분을 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는 뿌리가 잘 자랄 수 있게 착한 그릇이 되어 감싸며 뿌리의 성장을 기원하는 흙의 모습을 의미한다. ③ ㉰와 ㉱는 뿌리에게 영양분을 다 내어 주고 흙이 단단해진 껍데기가 되어 빈 그릇이 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④ ㉲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 주고 다시 연한 흙이 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13 3연에서 흙은 뿌리를 감싸는 '착한 그릇'이 되어, 모진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뿌리가 뻗어 가는 것을 축복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갖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은 희생의 기쁨을 강조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자기 성찰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밝은 피'는 뿌리의 성장을 돕는, 흙 속에 있는 물 또는 영양분을 의미한다. ② '나의 사랑'은 흙의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의미한다. ③ '착한 그릇'은 뿌리를 감싸는 흙의 포용력을 의미한다. ⑤ '푸른 줄기'는 흙의 희생을 통해 뿌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빈 그릇'이 된 흙과 대조적인 성격을 띤다.

14 '벌레들'은 뿌리에 대한 흙의 사랑을 보여 주는 소재로, 흙이 뿌리에게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었던 과거의 흙 상태를 가리킨다.

오답 해설 ①, ② '벌레들'은 흙이 뿌리에게 많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었던 연한 흙일 때 존재하던 것으로, 장애물이나 부정적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③, ⑤ 흙의 가슴에 '벌레들'이 끓어오르던 때는 뿌리에게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었던 과거의 흙 상태로, 영양분을 다 빼앗겨 황폐해진 흙의 모습을 나타내는 '빈 그릇'과 대조를 이룬다.

15 우물 앞에서도 여전히 물을 갈망하는 뿌리의 모습은 성장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으로, 뿌리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뿌리와 흙이 처음 만나 생명이 탄생하는 장소를 표현하고 있다. ③ 뿌리가 점점 성장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뿌리가 흙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⑤ 뿌리의 희생으로 성장한 나무의 모습을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16 ⓒ는 외부의 시련으로, 흙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에는 밝은 피를 뽑아 뿌리에게 흘려보내는 흙의 헌신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② ⓑ에는 뿌리가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 나가길 바라는 흙의 희생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④ ⓓ에는 점점 성장하며 뻗어 나가는 뿌리를 축복하는 흙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에는 마지막 남은 잔까지 모두 뿌리에게 주고자 하는 흙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17 '슬픔만 한 두름 꿰어 있는 껍데기'는, 뿌리가 '푸른 줄기'로 솟아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흙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오염되고 파괴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현대의 시인은 대지의 남아 있는 생명력과 유기적 질서를 노래하는 동시에'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한 감상이다. ② 〈보기〉의 '시인은 '흙'을 전 지구적 생태 위기를 대변하는 '물질'로 바라보고'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한 감상이다. ③ 흙의 헌신적인 사랑은 타인을 부정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현대인에게 조화와 상생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④ 〈보기〉의 '일찍이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를 통해 인간을 흙에서 생명을 얻는 뿌리와 같은 존재로 여김을 알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52~155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8 ⑤
09 ③	10 ⑤	11 ④	12 ④	13 ⑤	14 ⑤	15 ④	16 ③

01 (가)의 화자는 흙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뿌리의 성장 과정을 보여 주며 뿌리에 대한 희생적, 헌신적인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암담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나) 둘 다 서정 갈래로,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글로 객관적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② (가)에서는 회상적, 독백적 어조가 나타날 뿐, 격정적인 어조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나) 역시 의지적 어조로 조국 광복과 민족의 이상 실현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드러낼 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찾을 수 없다. ④ (나)에서는 암담한 현재의 상황이 드러나 있지만, (가)에서는 현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와는 거리가 멀다.

02 ㄱ. (가)에는 뿌리에 대한 희생적, 헌신적인 태도가, (나)에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에 조국 광복을 위한 자기희생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ㄴ. (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뿌리와 황폐해져 가는 흙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나) 역시 태초의 광야에서 시련의 현재 상황, 그리고 희망적 미래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ㄷ. (가)에서는 흙과 뿌리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나)의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에서 산맥이 생겨나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ㄹ. (나)의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꽃이 피고 지는 구체적 현상으로 표현하였다. ㅁ. (가)의 '불꽃 같은 바람'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03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은 뿌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흙의 모습과, 그러한 희생적 사랑을 뿌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베풀고자 하는 흙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인 '나'는 흙으로, 청자인 뿌리에 대해 희생적, 헌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착한 그릇'은 '척추를 휘어 접고 더 넓게 뻗'는 뿌리를 감싸 주는 흙을 의미한다. ④ '기쁨'은 성장하는 뿌리의 모습을 축복하는 흙의 마음을 나타내며, 비록 뿌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흙은 아낌없이 사랑하며 기쁨을 느낀다는 점에서 '은밀하다'고 표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마지막 잔'은 모든 것을 뿌리에게 내어 준 흙의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4 '나'는 화자인 흙이며, '너'는 청자인 뿌리이다. 흙과 뿌리를 의인화하여 흙이 뿌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화자는 흙이고 청자는 뿌리로, 뿌리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다거나 뿌리와 화자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④ 흙은 뿌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순환하는 존재로, 뿌리가 흙에게 깨달음을 주거나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05 5연의 '연한 흙'은, 뿌리를 성장시키고 빈 그릇이 된 흙이 자연의 순환에 따라 생명력이 채워져 또 다른 이를 향해 희생적 사랑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마음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1연의 '연한 흙'은 뿌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흙이고, 5연의 '연한 흙'은 뿌리가 성장한 후 다시 재생되는 흙이므로, 모두 충만한 생명력과 희생적 사랑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③ 1연의 '연한 흙'은 뿌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황폐해졌다가 다시 재생하는 순환의 과정을 거쳐 5연의 '연한 흙'이 된다. ⑤ 1연의 '연한 흙'은 뿌리가 성장하기 이전의 상태이고, 5연의 '연한 흙'은 뿌리를 성장시키고 황폐해진 후 다시 재생한 상태이다.

06 (가)에는 뿌리에 대한 흙의 희생적 사랑이 드러나 있다. ⑤ 역시 아픈 자식을 위해 눈 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 오신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치욕스러운 역사와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자기 성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싸락눈이 쌓인 길을 걷다가 까치 소리를 듣고 가난한 이웃들을 걱정하며 그들이 기다리는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노래한 작품으로, 가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③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 세계(조국 광복)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으로,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 ④ 접동새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민족 고유의 정서인 한을 노래하고 있다.

07 ㉤은 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난 후 다시 일구어져 새로운 뿌리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쓸모없어 버려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화자를 흙에, 대상을 뿌리에 비유하고 있다. ② ㉡에서 자신을 뚫고 오르라는 것은 뿌리에 대한 흙의 헌신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③ ㉢은 뿌리에게 모든 것을 준 흙의 모습에 해당한다. ④ ㉣의 '슬픔'에 흙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08 때 연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의 뿌리여', '나의 살을 보아라' 등에서 뿌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② 흙과 뿌리를 의인화하여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자연의 충만한 사랑'이라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③ '아 나의 사랑을', '가졌어라' 등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뿌리에 대한 사랑과 뿌리의 성장을 보며 느끼는 기쁨 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은 역설적 표현으로, 흙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리석지만 뿌리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더 큼을 나타내고 있다.

09 '바람'은 흙이 겪게 되는 외부의 시련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뿌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희생, 사랑, 영양분 등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은 흙이 처음 뿌리를 만났을 때 있었던 것으로, '빈 그릇'이 된 현재의 흙의 모습과 대조되면서 흙의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 따라서 A에서 C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화자의 감정이 고조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뿌리의 성장 과정과 흙의 순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11 〈보기〉는 플라타너스를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친근감을 유발하고, 플라타너스를 꿈과 덕성을 지닌 존재로 예찬하며 그러한 자세로 삶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뜻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글에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거무스레', '푸른'에서, 〈보기〉는 '파아란'에서 색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이 글은 뿌리를, 〈보기〉는 플라타너스를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⑤ 이 글에서 흙은 희생적 사랑을 베풀어 뿌리를 성장시킨다. 한편 〈보기〉의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는 플라타너스가 가지를 펼쳐 화자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타인을 향한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lus 〈보기〉 플라타너스_김현승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명상적
주제	고독한 삶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해제	플라타너스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말을 건네며 플라타너스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을 투영함.

12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를 통해 흙이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킬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흙은 뿌리에게 희생적 사랑의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고 있다. ② 흙은 뿌리에게 모든 것을 주며 황폐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③ 흙은 뿌리가 자신을 기반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⑤ 흙은 자신의 희생과 고통을 뿌리가 알아 주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

13 '밝은 피 뽑아 네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에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면서도 기뻐하는 흙의 희생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④ 흙이 흘려보내주는 '피'는 뿌리를 살게 하는 존재이다. 즉, '밝은 피'는 흙의 희생적 사랑을 의미함과 동시에 흙에게서 뿌리에게 전해지는 순수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4 1~4연에서 흙은 뿌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푼다. 흙은 이러한 사랑과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며,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는 날,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것을 확신한다. 따라서 '연한 흙'이 '착한 그릇 → 껍데기 → 빈 그릇'의 과정을 거쳐 다시 '연한 흙'이 되는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탄생, 성장시키는 순환 과정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15 ㉣은 뿌리가 자랄수록 영양분을 모두 내어 주고 점점 황폐해지는 흙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흙이 예전의 일을 회상함을 나타낸다. ② ㉡에서 뿌리가 먼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다고 한 것은, 그만큼 뿌리가 성장을 갈망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③ ㉢의 '착한 그릇'은 뿌리를 감싸안는 흙의 포용력을 나타낸 것이다. ⑤ ㉤은 흙이 또 다른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연의 순환과 생명에 대한 긍정이 드러나 있다.

16 흙의 순환 과정을 통해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희생적 사랑이 계속 이어짐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창작 계기가 제시되어 있다. ② 얼었던 흙이 녹으며 김을 내뿜는 것을, 흙이 뿌리를 만났을 때 느끼는 뜨거운 사랑이라고 생각하여 이 글을 창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흙이 어머니 대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통해 흙과 어머니의 이미지가 상통함을 알 수 있다. ⑤ 흙의 희생을 어머니의 사랑이나 헌신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서, 흙과 뿌리의 관계를 '스승-제자'로 확장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56~157쪽

01 ⓐ: 착한 그릇, ⓑ: 빈 그릇 → 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 뿌리를 성장시킨 후 다시 연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순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02 점차 큰 식물(나무)로 성장해 가는 뿌리와 황폐해지는 흙의 모습을 통해 흙의 헌신적(희생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03 흙 – '풀잎'은 누구에게나 먹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존재로, 대상을 위해 희생하고 이를 기쁘게 여긴다는 점에서 '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04 ㉠은 흙의 사랑을 뿌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흙은 뿌리를 위한 희생과 사랑이 기쁘다는 의미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1 '연한 흙 → 착한 그릇 → 껍데기 → 빈 그릇 → 연한 흙'으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순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02 성장해 가는 뿌리와 황폐해지는 흙의 모습을 대조하여 흙의 희생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03 〈보기〉의 '풀잎'은 대상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는 존재로, 뿌리를 위해 희생하는 흙과 그 시적 의미가 유사하다.

Plus 〈보기〉 몸시·32 – 풀잎_정진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영탄적
주제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살리는 기쁨
해제	풀이 작두에 먹히는 속성을 통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희생과 그 희생의 기쁨을 노래함.

04 흙이 뿌리를 향해 보내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 주며 뿌리가 뻗어 나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축복하는 헌신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뿌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흙은 아낌없이 사랑하며 기쁨을 느낀다는 점에서 ㉠과 같이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58~15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화자는 뿌리에 대한 희생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관조적 태도로 뿌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13 '나의 사랑'은 뿌리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4 '먼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은 성장하며 생명력을 원하는 뿌리의 모습에 해당한다.

17 '벌레들'은 흙이 뿌리에게 줄 수 있는 영양분과 사랑을 의미한다.

18 '빈 그릇'은 뿌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척박해진 흙의 상태를 나타낸다.

(2)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_윤흥길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62~169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②	05 ⑤	06 ①, ②	07 ②	08 ⑤
09 ④	10 ⑤	11 ③	12 ④	13 ②	14 ⑤	15 ②	16 ④
17 ④	18 ②	19 ⑤					

01 권 씨가 투쟁에 참여하여 전과자가 된 과거의 사건을 서술자인 '나'에게 이야기하며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는 권 씨의 언행과 심리, 사건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어리숙한 서술자로 볼 수 없다. ③ 권 씨가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타나 있을 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의 반응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 과거 행적, 사건의 전말을 모두 이야기해 주는 시점이다. 이 글은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⑤ 이 글은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서술자 '나'는 중심인물인 권 씨의 언행과 심리를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앞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권 씨는 투쟁 위원회가 조직되고 억지로 위원회 감투를 쓰게 되었으므로 권 씨가 투쟁 위원회를 조성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나'가 대여섯 켤레나 되는 구두를 꺼내 놓고 광을 내는 권 씨의 모습을 본 일과 구두를 신고 사무원 복장으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권 씨를 마주친 일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경찰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사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 어느 것이나 내 얼굴이 분명하긴 한데 나로서는 전혀 기억에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라는 권 씨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권 씨의 이야기를 듣던 '나'가 "그 뒤 권 선생이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앞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셋방살이를 하던 '나'는 무리를 하여 성남 고급 주택가에 집 한 채를 장만했음을 알 수 있다.

03 자신이 투쟁하는 무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여기며 거리를 두었던 권 씨는, 쏟아진 '참외'를 향해 몰려든 군중을 보며 먹을 것 앞에서 절실한 인간의 본능을 목격하고 자신 역시 그들과 같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발버둥치는 처지라는 점을 자각한다. 이로 보아, '참외'는 권 씨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깨닫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참외'가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로 작용한다거나, 갈등의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시된 부분에는 '나'와 권 씨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투쟁 중 쏟아진 '참외'를 주워 먹는 군중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참외'가 권 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③ '참외'와 권 씨의 자존심은 관련이 없다.

04 〈보기〉에 따르면 광주 대단지로 이주한 철거민은 불안정한 주거 상태와 실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웠다. '나'는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집 한 채를 장만한 초등학교 교사로, 광주 대단지로 이주한 철거민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③ 〈보기〉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위성 도시를 조성하여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철거민을 이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 분양과 일자리 제공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철거민들은 이러한 조처에 반발하여 생존권 투쟁을 벌였다. 권 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무주택자의 입주권을 산 가장으로, 철거민들이 투쟁을 벌이는 장면을 바라보다가 자신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처지임을 자각하고 투쟁에 참여하여 전과자가 된다. 따라서 부당한 도시 개발 정책과 행정 절차는 권 씨가 전과자로 전락하여 출판사를 그만두고 공사장을 전전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④, ⑤ 〈보기〉에 따르면, 강제로 이주당한 철거민들은 서울시의 조처에 크게 반발하여 생존권 투쟁을 벌였다. 이로 보아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타난 '최후 결단의 날'은 철거민들이 서울시에 맞서 생존권 투쟁을 벌인 날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중이 경찰의 최루탄에 투석으로 맞선 상황은 철거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벌인 투쟁의 장면을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5 '발단–전개–절정–하강–대단원'은 극 갈래의 구성 단계이다. 소설은 일반적으로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5단 구성을 취한다.

오답 해설 ① 갈등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인물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엇갈리거나 또는 인물 간의 관점이나 태도가 서로 엇갈려서 발생하는 대립과 충돌을 말한다. 소설은 이러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갈래이다. ② 소설은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인 서술자에 의해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갈래이다. ③ 소설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④ 소설은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허구의 이야기이다.

06 권 씨에게 돈을 빌려 줄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는 '나'의 내적 갈등(한 인물의 내적 갈등)과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는 '나'와 이러한 거절에 따른 무안함을 느끼는 권 씨의 외적 갈등(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한편 글 전체적으로는 불합리한 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하던 사회에서 전과자가 된 권 씨가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③ 인물이 역사와 갈등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은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 글에 이러한 갈등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은 인물이 자연 현상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 글에 이러한 갈등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A]에서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자신은 돈을 빌려줄 형편이 아니라며 병원장에게 다시 한번 사정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부탁을 완곡하게 돌려서 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에서 권 씨는 이해타산적인 원장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임을 말하며 '나'의 제안이 소용없음을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A]와 [B] 모두 해당하지 않는 진술이다. ③ [A]에서 '나'가 권 씨에게 원장에게 다시 한번 매달려 사정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으나, [B]에서 권 씨는 이러한 '나'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다. ⑤ [B]에서 권 씨는 '나'의 제안이 소용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에서 '나'가 권 씨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08 ㉣에서 '나'는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원장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지, 원장의 말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다는 권 씨의 말에서 자신의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를 걱정하는 절박한 심정을 알 수 있다. ②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권 씨는 자존심을 버리고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를 거절당한 후 발을 들어 다른 쪽 바짓가랑이 뒤에 문지르는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는 구두를 닦음으로써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해 보려는 권 씨의 심리가 반영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권 씨는 부탁을 거절당한 뒤 자신이 대학을 나온 지식인임을 언급하며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④ '나'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뒤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는데, 권 씨가 내딛는 매 걸음이 '나'의 눈에는 저주하는 동작으로 비치는 것에서 이러한 심리를 알 수 있다.

09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의 삶과 부당한 현실 고발'로, 이웃 간의 연대를 통해 부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아내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돈을 빌리려는 권 씨의 상황을 통해, 권 씨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가난한 처지에 내몰린 빈민 계층을 대변함을 알 수 있다. ②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산모를 눈앞에 두고도 수술 비용을 받기 전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원장의 모습을 통해 비인간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인 세태를 나타내고 있다. ③ '나'는 권 씨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돈을 돌려받기 힘들 것임을 떠올리며 처음에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이를 통해 '나'가 이웃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중성을 지닌 소시민을 대변함을 알 수 있다. ⑤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나'는 권 씨가 참외를 주워 먹던 군중의 모습을 목격했던 때를 떠올리며 과거에 권 씨가 군중에게 느꼈던 것처럼, 권 씨에게 거리를 두며 곤란한 일에 휘말리려 하지 않으려 한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는다. 이러한 '나'의 자각은 '나'가 이후 권 씨를 이해하고 돕는다는 설정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10 '딴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웠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와 같은 직접 제시 방식과 '멱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와 같은 간접 제시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인물인 권 씨의 성격과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았-'을 사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② 서술자인 '나'가 알지 못하는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에게 부탁을 거절당한 권 씨가 강도 행각을 벌인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요약적 서술이란 서술자가 사건의 전말과 과정 등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 요약적 서술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Plus 〈참고〉 인물 제시 방법

	직접 제시(말하기)	간접 제시(보여 주기)
개념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인물의 말과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특징	독자에게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 간접 제시에 비해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음.	직접 제시에 비해 생생한 느낌을 부여하고, 독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줌.

11 ⓒ의 '우발적인'은 '어떤 일이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는'을 의미한다. '일부러 하는'은 '고의적인'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공교롭다'는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⑧의 '공교롭게'는 '우연히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간파하다'는 '속내를 꿰뚫어 알아차리다.'를 의미한다. ④ '경거히'의 의미로 적절하다. ⑤ '이죽거리다'는 '이기죽거리다'의 준말로, '자꾸 밉살스럽게 지껄이며 잣궂게 빈정거리다.'를 의미한다.

12 '주객전도(主客顚倒)'는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로, 강도가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는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한자 성어이다.

오답 해설 ①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②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 ③ 오 리나 되는 짧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⑤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13 '나'는 강도의 눈을 보고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짐작하고 있다. ㉡에서 '나'가 강도에게 신경질을 부린 것은, 천성이 착한 권 씨가 자신을 해치지 못하리라는 확신과 아내가 깨서 일이 커지기 전에 권 씨가 자존심을 지킨 채 방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지, 강도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칼을 든 손을 덜덜 떠는 행동에서 강도가 이러한 행각을 벌이며 매우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있음과 이러한 행위에 익숙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동준이 칭얼거리자 깜짝 놀라 아이를 토닥이는 모습에서 강도의 어수룩하고 순진한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④ '나'는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을 확신했기에 그에게 칼을 돌려준 것이다. ⑤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에서 강도가 이웃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권 씨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일을 가리킨다.

14 강도의 정체를 모른 척하여 권 씨가 자존심을 지키고 무사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나'와,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연기를 하는 '나'의 의도에 자존심이 상한 권 씨 사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나'와 권 씨 사이의 외적 갈등은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데에서 연유하므로, 권 씨가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려고 한 것이 갈등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권 씨가 강도임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나'와, 그러한 '나'의 연기에 자존심이 상한 권 씨 사이에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②, ③ '나'는 강도의 정체가 권 씨인 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척하여 그가 자존심을 지키고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④ 권 씨는 '나'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조롱한다고 생각하며 자존심이 상한 채 방에서 나갔다.

15 '잘 닦인 일곱 중에서 비어 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 권 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에서 '나'는 권 씨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권 씨가 떠날 때 신은 한 켤레를 제외한 '남아 있는 구두'는 권 씨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③ 희화화란 인물의 외모나 성격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표현 방식으로, 이 글에 인물을 희화화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인물의 겉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와 권 씨, '나'와 아내가 나눈 대화가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16 '남아 있는 아홉 켤레의 구두'는 권 씨의 부재를 의미한다. 즉, '구두'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의 삶과 부당한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장 값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그런 자리에 아홉 켤레나 되는 구두가 사열 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에서 권 씨가 '구두'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팡발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에서 '구두'가 권 씨의 심리 상태를 암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잘 닦인 일곱 중에서 비어 있는 하나'는 권 씨가 집을 나갈 때 신은 한 켤레의 구두를 가리키므로, 이는 행방불명된 권 씨를 의미한다. ⑤ "이래 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라는 말로 보아, 권 씨는 빈곤한 형편임에도 지식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인물이다. 공사장에 일하러 나갈 때에도 '구두'를 신는 모습을 떠올릴 때 '구두'는 지식인으로의 권 씨의 자존심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17 '나'는 권 씨가 자존심을 지키고 돌아가기를 바라며 의도적으로 강도의 정체를 모른 척하고 있다. '나'가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한 권 씨에게 "대문은 저쪽입니다."(㉠)라고 지적한 것은 끝까지 강도의 정체를 모른 척하여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에는 ④와 같은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나'가 권 씨를 떳떳하게 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다. '나'는 강도의 정체를 모른 척하고 그에게 대문을 안내함으로써 아침에 권 씨가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② '나'가 권 씨의 가족들에게 권 씨의 행각을 숨겨 주려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가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권 씨를 제지한 것은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모른 척함으로써 권 씨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⑤ '나'가 대문의 위치를 안내한 것은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모른 척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지금 '나'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강도 신분이 아니라 권 씨여야 한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18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의 집에 들어와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권 씨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음을 알고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는 모습에서 권 씨가 느끼는 무력감(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을 짐작할 수 있다. 권 씨가 이러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이래 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라고 말한 것에는 '갈기갈기 찢긴 한 줌의 자존심'이라도 지키고자 한 심리가 담겨 있다. 따라서 작가는 ⓐ를 통해 권 씨가 현실에서 무력함을 느끼면서도 자존심은 끝내 버리지 않는 인물임을 보여 주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⑤ 권 씨가 현실과 타협하거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항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③ ⓐ에는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권 씨의 심리가 담겨 있으므로, 내면의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④ 권 씨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고 있으므로, 권 씨를 내면의 욕망까지도 포기하는 인물로 그려 내고자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이 글은 '나'(오 선생)를 서술자로 하는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기〉는 '나'(권 씨)를 서술자로 하는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나'가 강도의 정체를 모른 체한 의도는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 주어 그를 '편안케' 하려는 것이었으나, 〈보기〉의 '나'(권 씨)는 이를 '사람을 여지없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투'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강도의 정체를 모른 척한 오 선생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오 선생이고, 〈보기〉의 서술자인 '나'는 권 씨이다. ② 이 글의 '나'는 중심인물인 권 씨를 관찰하여 서술하는 주변 인물이고, 〈보기〉의 '나'인 권 씨는 사건의 중심인물이다. ③, ④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는 이 글과 달리,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는 〈보기〉에서는 서술자 '나'(권 씨)가 자신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Plus 〈보기〉 직선과 곡선_윤흥길

갈래	세태 소설
성격	현실 고발적, 사실적
주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생존의 절박함에 몰린 지식인의 변모
해제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 네 편 중 두 번째 작품으로, 권 씨(권기용)가 서술자가 되어 산업화 과정에서 점차 현실과 타협하며 변모해 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그림.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70~175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⑤ 06 ⑤ 07 ⑤ 08 ④
09 ⑤ 10 ④ 11 ⑤ 12 ② 13 ②, ⑤

01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 부인이 괴상한 소리를 내며 진통하자 '나'의 아내는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라며 불안감과 우려를 드러낸다. 이를 계기로 '나'는 문간방의 권 씨를 불러내어 자신의 염려를 드러내게 된다.

오답 해설 ① 문간방에 쌀이나 연탄을 몰래 갖다 주고 난 후 아내가 생병을 앓은 이유는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얼간이 사내'(권 씨)까지 돕게 된 상황이 괘씸해서이다. ② 아내가 '엊그제까지' 권 씨가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속삭이기는 했으나,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권 씨가 그의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권 씨 부인의 진통은 '나'가 아내에게 알려 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귀띔해 준 것이다. ⑤ 권 씨는 '위로해 주는 투로' 염려 말라고 말하고 있을 뿐, 권 씨가 실제로 '나'를 위로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후의 장면이 제시되지 않아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이 누그러졌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02 ㉡에서는 예정일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 부인의 상황이 아내의 발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나'가 꾼 꿈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꿈에 대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③ ㉢에서 '나'는 권 씨 부부가 사태를 최악의 선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 부부의 내면 심리나 의도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④ ㉠과 ㉢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나'의 심리적 갈등이다. '나'와 권 씨 부부 간의 외적 갈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에서 아내는 출산 예정일도 모르는 권 씨 부인의 상황을 전하며 '낄낄낄' 웃고 있다. ㉢에는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몰고 가는 권 씨 부부에 대한 '나'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과 ㉢에 인물들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 시선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삼순구식(三旬九食)'은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이다. '나'의 집 문간방에 세 들어 살면서 출판사에서 해고당한 뒤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공사장에 나가는 권 씨와 출산일이 다가옴에도 가난하여 해산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 끼니때가 되어도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티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보아 권 씨가 빈곤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삼순구식(三旬九食)'은 이러한 권 씨네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한자 성어이다.

오답 해설 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②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④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⑤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04 '우리를 위해서'의 '우리'는 '나'와 아내를 가리킨다. 즉, '나'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같은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출산 과정에서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 씨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나'가 권 씨네를 염려하는 모습에는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적 유대감이 일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것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점에서 소시민적 개인주의 역시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을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욕망으로 이해한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권 씨네를 의식하는 행위가 공동체적 유대감의 표현이고, 권 씨네 상황에 대한 거리 두기가 개인주의의 표현이라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의 모습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하는 권 씨를 통해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권 씨네를 염려하면서도 권 씨네를 돕고 나서 괘씸해하는 아내의 이중적 태도에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의식과 남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개인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④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별다른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혼자 힘으로 해산하려는 권 씨 부인의 모습에서 궁핍한 소외 계층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05 '나'는 문간방에 세 들어 살고 있는 딱한 처지의 '그'를 도우려는 마음은 있지만, 상대의 여건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더 중시함으로써 심한 내적 갈등을 느끼다가 권 씨의 청을 거절한다. 이를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나'의 태도와 대응의 문제점은, 착한 마음이면에 개인의 입장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 ② '나'는 권 씨에게 연민을 느끼고 결국 권 씨 부인의 수술비를 마련하여 출산을 도왔으므로, '나'가 남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06 '문간방'은 권 씨 가족이 세 들어 사는 공간으로, 정체를 숨기고 강도 행각을 벌이던 그가 '문간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권 씨가 강도임을 알려 준다. 세상에 자신을 아끼는 이웃은 없다며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권 씨의 불행한 모습에서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애로 뭉친 가장의 모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제기랄'이라는 말이 '평상시의 권 씨답지 않'다고 서술한 부분에서 권 씨가 평소에는 '말'을 점잖게 사용해 온 편이라는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권 씨가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얻어걸리는 번역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라는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들고 온 '칼'을 떨어뜨리거나 '나'가 내민 '칼'을 보고 기절할 만큼 놀라는 권 씨의 모습에서 그가 강도 행각에 익숙하지 않다는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자신을 아끼는 '이웃'은 없다는 권 씨의 말을 통해 그가 평소 주변 사람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07 [B]의 서술자 '나'는 오 선생이고 '그'는 권 씨이다. 반면 〈보기〉의 서술자 '나'는 권 씨이고 '그'는 오 선생이다. 〈보기〉에서는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이 주인공인 '나'(권 씨)로 바뀌었으므로, 권 씨의 심리가 '나'(오 선생)에 의해 관찰되어 서술되는 [B]에 비해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B]와 〈보기〉의 등장인물은 오 선생과 권 씨로 동일하다. ② [B]는 과거 시제, 〈보기〉는 현재 시제로 서술되고 있으나, [B]와 〈보기〉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떠올려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B]는 일인칭 관찰자 시점, 〈보기〉는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추측성이 강한 관찰자인 오 선생의 시점이 부각되는 것은 [B]이다. ④ 〈보기〉는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꾼 것이지, 멀어져 가는 사람의 시선에서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

08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눈치챈 '나'는 [C]에서 자신이 권 씨 부인의 수술비를 마련해 주었음을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돌려 말하며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분석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며, '나'가 권 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② '나'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격언이란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이다. [C]에 격언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나'가 권 씨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09 작품 속 부수적인 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술자 '나'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등과 같이 권 씨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 마음에 스치는 느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때 서술에 논리적 순서가 없으며 사건의 인과성이 중요시되지 않는다. 이 글에 의식의 흐름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인 '나'가 관찰한 인물의 언행을 분석하여 제시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이나 과거의 사건 등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서술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 '나'가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뒤, 권 씨에게 거리를 두면서 그의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 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인식의 변화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글은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나'의 학교 앞과 원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나)에서는 '나'의 집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0 ⓔ에서 원장은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자신의 비정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나'의 말을 '한차례의 너털웃음으로' 넘기고 있으므로, 반성의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에 이어 권 씨는 이해타산적인 원장이 수술 비용을 받기 전에는 수술을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에서 권 씨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행동은 원장에게 한 번 더 매달려 보라는 '나'의 제안이 소용없을 것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② ㉡에서 부탁을 거절당한 권 씨는 자신이 대학 나온 사람임을 밝히며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 ③ 과거 권 씨는 쏟아진 참외에 몰려드는 군중을 보며 자신도 그들과 같이 생존 본능 앞에서 절박한 인간이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처지임을 자각하여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에서 '나'는 본인과 가족의 안위만을 우선시하여 투쟁에서 빠져나가려던 권 씨처럼 자신 역시 이기적인 인간임을 자각하여 권 씨를 돕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⑤ ㉤의 '비어 있는 하나'는 행방불명된 권 씨를 의미한다. '나'가 '한 켤레의 구두'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보아, ㉤에서 '나'는 행방불명된 권 씨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나)의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로 보아, '나'의 '본의(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마음)'는 권 씨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존심을 지키고 돌아가, 다음 날 전처럼 자신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나'가 권 씨에게 강도 행각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주려는 모습이나 권 씨가 강도 행각을 자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권 씨는 그의 아내가 무사히 셋째 아이를 출산했음을 모르고 있지만, '나'가 그러한 사실을 권 씨가 알게 하기 위해 그를 강도로서 대우한 것은 아니다. ④ '나'는 강도로 들어온 권 씨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며 그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기를 바랐을 뿐, 권 씨가 돈을 찾아 무사히 빠져나가기를 바란 것은 아니다.

12 ⓑ는 '깊이 들지 못하거나 흡족하게 이루지 못한 잠'을 뜻한다. '짧은 틈을 타서 불편하게 자는 잠'은 '쪽잠'의 의미이다.

13 〈보기〉에 나타난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열린 결말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명확하게 끝맺지 않고 독자들이 작품의 결말을 상상하도록 하는 마무리 형식이다. 이 글은 이러한 열린 결말의

형식을 취하여 권 씨의 행방과 관련하여 독자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⑤),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②).

오답 해설 ①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결말은 사건이 마무리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이다. 열린 결말 형식을 취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④ 열린 결말 형식과 사실성, 개연성은 관련이 없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76~177쪽

01 • 권 씨: 먹을 것을 보고 달려가는 군중을 보며, 자신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처지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 '나': 권 씨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과거 권 씨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웃의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 하는 이기적인 사람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02** 권 씨가 군중에게 느낀 감정 변화를 '나' 역시 권 씨에게 동일하게 느끼고 있음을 제시하여 권 씨에게 동류의식을 느낀 '나'가 권 씨를 돕게 된다는 내용 전개에 설득력과 개연성을 부여한다. **03** ㉠으로 보아 권 씨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반짝반짝 닦여 있는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의미한다. **04** ⓐ: 권 씨의 부재, ⓑ: 행방불명된 권 씨

01 (가)에서 자신은 투쟁에 참여한 철거민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거리를 두었던 권 씨는, 참외를 향해 몰려든 군중을 보며 자신도 그들과 같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발버둥치는 처지임을 자각하고 투쟁에 참여하게 된다. (나)에서 문간방에 세 들어 사는 권 씨에게 거리를 두었던 '나'는 부탁을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권 씨의 뒷모습을 보고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는다. 또한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권 씨나 남이 맡긴 전셋돈으로 간신히 집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이나 다를 바 없음을 자각하고 권 씨를 돕게 된다.

02 (가)와 (나)를 유사한 구도로 제시하여 권 씨가 군중에게 느꼈던 감정 변화를 '나' 또한 권 씨에게 동일하게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어, 이후 '나'가 권 씨를 이해하고 돕는다는 설정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03 ㉠에서 권 씨는 자신이 대학을 나왔음을 밝히며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따라서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잘 닦인 '구두'는 지식인으로서 권 씨의 자존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4 열 켤레의 구두 가운데 한 켤레가 빠진 '아홉 켤레나 되는 구두(ⓐ)'는 권 씨가 돌아오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비어 있는 하나(ⓑ)'는 권 씨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의미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78~17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이 글에는 '나'의 내적 갈등, '나'와 권 씨 사이의 외적 갈등, 권 씨와 사회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권 씨의 언행과 심리는 주로 서술자인 '나'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 글이 권 씨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5 '나'가 셋방살이를 하다가 무리를 하여 성남의 고급 주택 한 채를 장만하게 된 상황이라는 점과, 권 씨 부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불을 받고 동료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 역시 부유하고 넉넉한 형편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08 권 씨는 투쟁 위원회가 조직된 뒤 억지로 위원회 감투를 쓰게 되었으며, '최후 결단의 날' 투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서울로 도망치려다가 한 무리의 청년들에게 붙들렸다.

09 권 씨는 쏟아진 참외를 먹기 위해 몰려드는 군중을 보고 자신 역시 그들처럼 생존 앞에서 절박한 상황이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처지임을 깨달아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15 '나'는 복면 위로 드러난 강도의 눈과 언행을 보고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짐작했으므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또한 도둑질을 하러 남의 집에 침입했음에도 부주의하게 아이의 발을 밟고, 아이가 깰까 봐 어깨를 토닥여 주는 등 전혀 도둑답지 않고 어수룩한 모습에 웃음이 난다고 했다.

17 권 씨는 '나'가 부인의 수술비를 대신 내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술에 취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는 당신을 아끼는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나'의 말에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불편한 편의점_김호연 원작·홍현우 각색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82~187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③ 05 ② 06 ④ 07 ④ 08 ⑤
09 ③ 10 ③ 11 ③ 12 ⑤

01 이 글의 갈래는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다.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므로, 장면 전환이 자유롭지 않고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따른다.

오답 해설 ①, ② 이 글은 희곡으로, 희곡은 작가나 서술자의 개입 없이 배우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③ 희곡은 등장인물이 내적, 외적으로 겪는 갈등과 충돌, 그 해소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Plus 〈참고〉 희곡의 구성 단계

발단	인물과 배경이 제시되고 갈등의 실마리가 드러남.
전개	사건이 진전되면서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시작됨.
절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사건의 전환점이 생김.
하강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제시됨.
대단원	갈등이 해소되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됨.

02 선숙 아들이 "아버지가 집을 왜 나갔는데? 엄마가 얼마나 피를 말렸으면 집을 나갔겠냐고!"라고 말하고 있을 뿐, 선숙이 남편의 가출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엄마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대사와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가만 놔두라고요!"라고 말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모습에서 선숙 아들이 선숙과 대화하기를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 집에 처박혀 그놈의 게임만 하다 죽을 거야?"라는 대사에서 선숙이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아들을 못마땅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독고는 선숙에게 아들이 왜 회사를 그만둔 것인지, 왜 주식과 영화를 했는지 등을 물어보고 아들의 말을 들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⑤ 아들과 다투어 기분이 상한 채로 편의점에 출근한 선숙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독고 씨, 지금 나랑 세상 이치 따지자는 거예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독고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03 독고는 감정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린 선숙에게 ㉠(옥수수차)을 건네고, 아들이 게임할 때 편지와 같이 주라며 ㉡(삼각김밥)을 주었다. 즉, ㉠, ㉡은 모두 선숙의 마음을 헤아린 독고의 배려가 담긴 것으로, 독고의 심리적 갈등과는 관련 없다.

오답 해설 ① 아들과의 다툼으로 속상한 선숙은 독고가 건넨 ㉠을 마신 뒤 그에게 아들과의 관계를 털어놓고 있다. ②, ③ 독고에게 ㉡을 받은 선숙은 종이와 펜을 꺼내어 아들에게 줄 편지를 쓴다. 이는 선숙이 아들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04 독고는 선숙의 사연을 들어 주고, 그녀가 아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 선숙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누구나 한 번쯤 드나들었을 법한 공간인 편의점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② 독고는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을 잃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인물로, "전 그저…… 제 생……각을…… 죄송……합니다."와 같이 대사에 말줄임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그가 말을 어눌하게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독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인물이다. "겁나셨구나. 아들이…… 아버지처럼 될까 봐."라는 대사에는 선숙의 마음을 헤아리는 독고의 됨됨이가 나타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이 글은 삶은 관계이고 관계는 소통이며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따뜻한 주제를 드러낸다. 독고가 선숙의 사연을 들으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것을 권유하고, 선숙이 아들과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은 이러한 주제를 보여 준다.

05 독고는 계속하여 자신의 정체를 묻는 인경의 질문에 대답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으므로, 그가 인경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음……. 확실한 거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런 따뜻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처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거요……."라는 독고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③ 경만의 두 딸이 아빠가 힘들게 돈을 번다며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독고와의 대화를 수첩에 적으며 "내 작품에 쓴다고요. 나 극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라고 말하는 인경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⑤ 독고에게 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눈물짓는 경만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06 '짧은 암전'과 같이 조명을 어둡게 처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만, 이는 장면 전환과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제시된 부분은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는 전개 단계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독고, 경만, 인경의 대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옥수수차, 초콜릿, 참참참 세트와 같은 소품을 활용하여 공감과 위로를 통한 관계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자신의 정체를 묻는 인경의 질문에 답하는 독고의 대사를 통해, 그가 편의점에서 일하기 전 노숙자였으며 알코올성 치매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무대 밖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⑤ 지시문은 배경, 효과, 인물 소개 및 무대 설명,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구성 요소이다. 이 글은 '창고에서 독고 나오며 경만을 보고 싱긋' 등과 같은 지시문을 활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Plus 〈참고〉 희곡의 구성 요소

지시문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상태 등을 설명하거나 조명, 효과음 등을 지시하는 부분

행동 지시문	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등을 지시함.
무대 지시문	배경이나 무대 장치, 음향 효과 등을 지시함.

대사

등장인물이 하는 말로,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의 내면이나 성격을 드러내며 사건의 분위기를 나타냄.

대화	등장인물 간에 서로 주고받는 대사
독백	청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등장인물이 혼자 하는 말
방백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의 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

해설

희곡의 첫 부분에서 등장인물, 장소, 무대 장치 등을 설명해 주는 글로, 지시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07 ㉣의 '딸랑'은 인경이 편의점을 나서며 편의점 문을 열고 닫는 소리로, 인경의 심리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의 옥수수차는 경만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독고가 건넨 것으로, 경만을 배려하는 독고의 마음이 담겨 있다. ② 경만의 두 딸은 힘들게 돈을 버는 아빠를 배려하여 1+1 행사를 할 때에만 ㉡의 초콜릿을 구입한다. 독고에게 이러한 두 딸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경만은 가족의 사랑을 실감하고 눈물짓는다. ③ ㉢의 참참참은 인경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녀가 독고와 대화를 나누는 계기로 작용한다. ⑤ 암전은 연극에서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꾸는 일을 뜻한다. ㉤의 짧은 암전 후 장면이 다음 날로 전환되므로, ㉤은 장면이 전환될 것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8 "지금처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거요…….", "편의점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친해진 거 같아요. 진심 없이 그냥 친절한 척만 해도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라는 대사에서 독고가 편의점에서 일하며 주변 사람들과 허물없이 소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그의 태도를 편의점 매출을 올려 브랜드 편의점과의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해석하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희곡은 소설과 달리 지시문을 활용하여 인물의 동작과 표정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 글의 지시문은 원작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요소에 해당한다. ②~④ 독고에게 옥수수차를 받은 경만이 술을 끊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힘든 회사생활을 하는 아빠를 배려하는 두 딸을 두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보기〉의 쌍둥이 아빠가 경만임을 알 수 있다. 경만이 눈물 짓는 이유는 편의점에서 독고와 소통하며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관계를 실감했기 때문이며, 그가 술을 끊고 두 딸을 위해 초콜릿을 사 가는 모습은 경만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09 인경의 통화를 통해 작가 생활을 끝내려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희곡을 한 번 더 써 보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장면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인물의 복장을 묘사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극 중 김 대표가 등장·퇴장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으나, 이는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A]에 나타난 인경의 노래 중 '네가 만나는 사람은 /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는 우리 주변 인물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러니 친절해야 해'는 따뜻한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는 공감과 위로를 통한 관계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극 중에 삽입된 노래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 [A]는 독고와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해결하고 자신만의 작품을 써 보기로 한 인경의 결심 및 글의 주제 의식과 맞물려 작품의 전개를 자연스럽게 이어 주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암시와는 관련 없다. ㉤ [A]에 인물의 행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인경이 희수 샘과 통화하는 장면은 통화 상대의 목소리 없이 인경의 대사로만 처리된다. 따라서 희수 샘을 목소리로만 표현하도록 하자는 지시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인경과 김 대표가 사용하는 전화기, 인경이 앉을 편의점 앞 야외 탁자 등과 같은 소품을 준비해야 하므로, 적절한 지시 사항이다. ② 무대라는 공간적 제약과 김 대표가 객석의 문으로 등·퇴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지시 사항이다. ④ '인경, 독고를 관찰한다. 독고, 인경이 훔쳐보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지시문으로 보아, 적절한 지시 사항이다. ⑤ 인경과 김 대표가 서로 떨어진 공간에서 통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지시 사항이다.

12 인경이 희수 샘과 통화하며 "마지막으로 희곡 한 번 더 써 보고 싶어졌어요."라고 말하는 부분과, 김 대표와 통화하며 자신이 구상한 작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계약서를 쓰기로 한 부분에서, 인경이 독고를 주인공으로 하는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해 보기로 하며 작가 생활과 관련한 고민을 해소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경이 독고와 대화하면서 그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것이 고민을 해결한 방법은 아니다. ② 인경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작품을 써 보기로 했다. ③ '연출'은 연극이나 방송극 따위에서, 각본을 바탕으로 배우의 연기, 무대 장치, 의상, 조명, 분장 따위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을 말한다. 인경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창작해 보기로 한 것이지, 그러한 작품의 연출을 맡기로 한 것이 아니다. ④ 인경이 직접적으로 독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은 아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88~193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④ 05 ④ 06 ⑤ 07 ④ 08 ⑤
09 ④ 10 ② 11 ③

01 선숙과 선숙 아들의 갈등이 제시된 후 선숙이 독고와 대화하며 아들과의 갈등에 따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글 전체의 배경이 청파동이지만 그로 인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부분에는 지명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②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④ 선숙의 집에서 올웨이즈 편의점으로의 공간 이동은 나타나지만, 이러한 공간 이동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연극 상연을 위한 대본인 희곡이다.

02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숙의 집에서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바뀌므로, 암전을 활용하여 무대 위 공간을 선숙의 집에서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무대 위 공간을 선숙의 집과 올웨이즈 편의점 양쪽으로 분리하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독고는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을 잃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인물로, 독고의 대사에 빈번하게 나타난 말줄임표를 활용하여 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독고를 연기하는 배우는 대사를 어눌하고 느린 말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선숙은 아들과 다투며 감정이 상한 채로 편의점에 출근하여 독고에게 언짢은 감정을 표출하고, 독고와 대화하며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선숙을 연기하는 배우는 이러한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해야 한다. ④ 독고가 선숙에게 건네는 옥수수차와 삼각김밥 2+1 세트, 선숙이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용하는 종이와 펜 등을 소품으로 준비해야 한다. ⑤ '"아들! 나와 봐. 문 열어! 엄마랑 얘기 좀 해." ~ 선숙의 아들,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온다.', '아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선숙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신발을 신는다.'라는 지시문으로 보아, 적절한 내용이다.

03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희곡인 [A]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서사 갈래 중 소설인 〈보기〉는 인물의 행동과 대사,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희곡은 사건을 무대 위에서 바로 표현하여 보여 주므로, 사건을 현재화하여 표현한다. ②, ③ 희곡은 지시문을 활용하여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나타낸다.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보기〉와 달리, [A]에서는 '삼각김밥 2+1 세트를 주며'와 같은 지시문을 활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⑤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따른다. [A]에서 〈보기〉 중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온 장면을 생략한 이유는 무대 상연에 따른 갈래상 제약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04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므로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가)의 백곰은 경만이 주인공인 독고를 일컫는 표현이므로, (가)를 (나)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 수를 줄이기 위해 백곰과 같은 주변 인물을 제외해야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므로, 무대에서 상연할 때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원작 소설인 (가)와 비교할 때, 이를 각색한 희곡 (나)는 인물의 일부 대사를 생략하는 등 사건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가)와 비교할 때 (나)에는 '안절부절', '창고에서 독고 나오며 경만을 보고 싱긋' 등과 같은 행동 지시문이 추가되어 있다. 희곡은 지시문을 활용하여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지시한다. ③ (가)와 (나) 모두 야외 탁자를 놓은 편의점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⑤ (가)와 비교할 때 (나)는 독고의 마지막 대사 뒤에 "……저 술 끊었어요, 이놈 덕분에. 감사합니다. (초콜릿을 들며) 좋아하겠네요."라는 경만의 대사를 추가하여 그가 술을 끊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05 (가)는 서사 갈래 중 소설이고, (나)는 극 갈래 중 희곡으로 (가)

를 각색한 작품이다. (나)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므로, 사건을 현재화하여 표현한다. 이와 달리 (가)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③ 소설인 (가)는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반면, 희곡인 (나)는 작가의 개입 없이 대사와 행동, 이를 지시하는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⑤ (가)와 (나) 모두 일상생활과 밀접한 '옥수수차', '초콜릿'과 같은 소재를 활용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관계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06 ㉤에서 경만이 '숨이 다 막힐 지경'인 까닭은 독고에게 자신의 두 딸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서 듣고 싶어서이지, 독고의 어눌한 말투에 짜증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의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에서 독고가 과거에도 경만에게 옥수수차를 권하며 술을 끊도록 권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의 '저거'는 경만의 딸들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할 때에만 구입했던 초콜릿으로, 경만에게 옥수수차 금액을 결제하는 대신 초콜릿을 사 가도록 하는 독고의 행동에는 경만이 가족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우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③ ㉢에서 경만의 심장이 두근거린 이유는 앞서 독고가 말한 "청파동에서 제일 고운…… 그러니까…… 아주 똑같이 고운 아이 둘"이 자신의 딸들임과, 독고가 경만의 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임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④ ㉣에서 경만이 카드를 받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는, 독고에게 자신을 배려하는 두 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족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07 〈보기〉에 따르면,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상처를 돌아볼 용기와 힘을 채워 나가는 인물은 독고이다. 이러한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을 때 경만이 독고와의 소통을 계기로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돌아볼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편의점의 고객인 경만은 혼자 술을 마시며 힘든 회사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를 푸는 인물로, 그 역시 〈보기〉에 나타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②, ⑤ 〈보기〉에 따르면, 서울역 노숙자였던 독고는 영숙과의 인연으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술을 끊게 되었다. 독고가 경만에게 옥수수차를 권하는 이유는 경만 역시 술을 끊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또한 경만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옥수수차를 챙겨 주는 독고의 행동에서 〈보기〉에 나타난 '타인을 도울 줄 아는'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③ 독고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객인 경만과 1+1 초콜릿을 사 가는 그의 두 딸을 만나게 되었다.

08 '불편한'과 '편의점'이라는 서로 의미가 모순되는 표현을 결합한 역설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참참참 세트(참○ 라면, …… 참치김밥, 참○○ 소주), 옥수수차, 아이스크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품을 활용하여 극의 사실감과 재미를 더하고 있다(ⓓ).

오답 해설 ⓐ 편의점과 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한 것은 아니다. ⓑ 등장인물의 의상 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09 독고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느낀 인경이 그와 대화를 계속하기 위하여 알코올성 치매에 대화가 좋다고 말하고 있을 뿐, 독고가 인경과 대화를 나누며 알코올성 치매를 치료하고자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인경은 독고의 정체에 호기심을 느끼며 그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② 독고는 서울역에서 노숙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는 인경에게 "그, 그 전엔…… 몰라요. 술 너무 마셔 치매 왔어요."라고 대답하고 있다. ③ 인경과 김 대표의 대화에서 그녀가 독고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창작하려 함을 알 수 있다. ⑤ 김 대표가 인경에게, 인경이 구상한 작품을 자신과 해 보자며 계약서를 쓰자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0 'O.L.(오버랩)'은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에서는 사내의 과거가 회상 장면으로 교차하며 등장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O.L.(오버랩)' 기법을 사용하여 영상을 처리하는 것이 어울린다.

오답 해설 ① 장면의 실감을 더하기 위하여 넣는 소리 ③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 ④ 화면이 처음에 어둡다가 점차 밝아지는 일 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화면이 처음에 밝았다가 점차 어두워지는 일

11 ㉣은 독고가 인경을 상대로 하여 말하는 것이므로, 독백이 아니라 대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은 인경의 동작을 지시하는 행동 지시문이고, ㉡은 음향 효과를 지시하는 무대 지시문이다. ② ㉢을 전후로 하여 시간이 다음 날로 바뀌었으므로, ㉢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장치에 해당한다. ④ ㉤에서 김 대표는 객석의 문으로 퇴장하고 있는데, 이는 무대 위에 모든 공간적 배경을 표현할 수 없다는 제약과 관련 있다. ⑤ 야간의 편의점에서 주인공 독고가 동료 및 손님들과 소통·공감하며 서로 따뜻한 관계를 맺고 위로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따뜻한 소통의 가치와 인간애라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94~195쪽

01 • 표현 방법: 역설 • 효과: 서로 모순되는 두 표현을 결합하여, 삶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02** 야간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고, 편의점은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 본 익숙한 공간이다. 이러한 배경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의 힘겹지만 따뜻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그려 내어 독자의 몰입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03** 지시문,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01 제목인 '불편한 편의점'에는 '불편한', '편의점'과 같이 의미가 상충되는 단어를 결합한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제목을 활용하여 삶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02 편의점은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 본 익숙한 공간이며, 야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각자의 고단한 사연을 지녔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배경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의 힘겹지만 따뜻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그려 내며, 작품에 더 잘 몰입하게 하고 공감하게 한다.

03 희곡은 작가의 묘사나 해설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하며 주제를 형상화하는 갈래이다.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소설인 ㉠과 달리, 희곡인 ㉡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지시문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96~19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2 희곡은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는 문학 갈래이다.

07 독고는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서울역에서 노숙하기 전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09 독고는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선숙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독고가 선숙을 나무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독고는 경만에게 옥수수차를 건네며 그가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울 뿐, 경만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까 봐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17 극 중 인경의 노래는 공감과 위로를 통한 관계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관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인경의 노래에서 독고의 행적은 알 수 없다.

(4) 수오재기_정약용

기출 실전 문제 본문 200~203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③ 05 ③ 06 ② 07 ③ 08 ⑤
09 ③ 10 ⑤

01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며 '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깨달음과 교훈을 전하고 있다.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나'를 잃고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있다. ②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쓴이의 체험과 깨달음을 기록하여 독자에게 전하는 문학 양식인 교술 갈래로, 그중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하여 독자에게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려는 목적을 지닌 '기(記)'에 해당한다. ④ '수오재'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서술자는 글쓴이 자신이다.

02 '전'에서 글쓴이가 되찾고자 한 것은 '현상적 자아'가 아니라 '본질적 자아'이다. 이때 '현상적 자아'란 상황이나 환경, 현실적 조건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나'를, '본질적 자아'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나'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기'에서 글쓴이는 큰형님이 서재에 붙인 '수오재'라는 이름을 의아하게 여기며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② '승'에서 글쓴이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기'에서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해 제기한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④, ⑤ '결'에서 글쓴이는 큰형님의 말과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03 [A]에서 글쓴이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나'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상황을 가정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도리에 어긋난 현실을 비판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내 밭', '내 집', '내 동산의 꽃과 나무', '성현의 경전', '내 옷과 양식'과 같이 대상을 달리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 공간의 이동과 글쓴이의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사건의 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요약적 진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외적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자아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 ㉡, ㉣, ㉤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중심을 잡으며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자아로, 글쓴이가 지키고자 하는 '나'에 해당한다.

05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장기로 온 '나'는 지난날 글쓴이가 잃어버린 '나'로, 이것이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럽고 고독한 삶을 표현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글쓴이는 유배지에서의 고통과 고독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정약용은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죄인의 신분이 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로 귀양 온' 이유는 신유박해와 관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지난 40년의 인생을 성찰하고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여겼다. '한강을 건너 문경 새재를 넘어' 도착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은 글쓴이가 귀양살이를 떠난 곳으로,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를 얻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며 지난 40년의 인생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글쓴이가 귀양살이를 떠나기 전

'백주 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보낸 12년은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임을 알 수 있다. ⑤ 글쓴이가 유배지에서 붙잡아 함께 머무른 '나'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본질적 자아(참된 '나')로, 〈보기〉의 진정한 '나'를 찾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06 '고사(故事)'란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 또는 그런 일을 표현한 어구를 말한다. 이 글에 고사를 활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천하 만물 중 지켜야 할 것이 오직 '나'뿐이라는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④ "아버지께서 나의 자(字)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하였다."라는 큰형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수오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독자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함으로써 글쓴이의 생각이 옳음을 부각하고 있다.

07 글쓴이가 가족과 이웃이 있는 고향인 '소내'에서 '장기'로 거처를 옮긴 것은 관직 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지, 자신의 관직 생활에 회의를 느껴 자발적으로 '장기'로 떠나 온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큰형님이 서재에 붙인 이름인 '수오재(守吾齋)'를 보고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며 의아하게 여겼다. ②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오재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에서 알 수 있다.

08 글쓴이는 자신을 '허투루 간수했'던 지난 삶을 성찰하며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⑤의 화자 역시 지난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글쓴이와 유사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단호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자식을 잃은 슬픔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③ 미래에 대한 희망적,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④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09 글쓴이는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수오재'라는 이름을 처음 보았을 때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며 의아하게 여겼지만, 귀양살이를 떠난 ㉡(장기)에서 그 의문점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즉, ㉡은 글쓴이가 ㉠(수오재)의 진정한 의미, 즉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공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과 ㉡ 모두 글쓴이가 간절히 그리워하며 바라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은 글쓴이가 귀양살이를 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글쓴이에게 시련을 주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은 글쓴이가 그 이름의 의미를 의아하게 여기며 호기심을 느끼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은 글쓴이가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⑤ ㉠과 ㉡ 모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다.

10 글쓴이가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숲이 있는 곳'에 간 것은 먼 길을 거쳐 유배지에 다다른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 여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아니다. 또한 기행문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글로, 이 글은 기행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인 '수오재'를 보고 의아하게 여긴 글쓴이의 경험이 나타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기(記)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독자에게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려는 목적을 지닌 글이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한다는 점으로 보아, 이 글은 기(記)에 해당한다. ③ 〈보기〉에 따르면, 기(記)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글에는 글쓴이가 벼슬아치가 되어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뜻밖의 상황으로 고향을 떠나 장기로 유배 온 과정이 나타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교술 갈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쓴이의 체험과 경험을 기록하여 독자에게 전하며, 경험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깨달음을 제시한다. 이 글은 귀양을 떠난 글쓴이의 체험과 유배지인 장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204~207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① 06 ⑤ 07 ④ 08 ③ 09 ③

▶ (나) 길_윤동주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성찰적, 의지적
주제	본질적 자아 추구에 대한 의지
해제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젊은 지식인의 고뇌가 드러난 작품으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탐색과 성찰의 과정이 드러남.

01 (가)의 글쓴이는 '나'를 잃고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장기', '소내'와 같은 특정 지명을 언급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달리 (나)는 특정 지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되어 보이는 발상을 활용하여 교훈을 제시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의 글쓴이는 유배지에서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의 화자는 돌담에 가로막혀 참된 '나'를 들여다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을 극복하고 참된 자아를 찾고자 다짐하고 있을 뿐, 역시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가)와 (나) 모두 부정적 사물과 긍정적 사물을 대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에서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을 뿐, (가)에 인물 간의 대화를 활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 "아버지께서 나의 자(字)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오'라고 하였다." /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역시 큰형님의 말을 인용한 것일 뿐, 글쓴이와 큰형님이 나눈 대화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기는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승은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전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결은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오재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 드리고 수오재의 기문으로 삼는다.'이다. ②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에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가 깨달은 바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④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하여 독자에게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는 기(記)에 해당한다.

03 (나)의 ⓐ는 화자가 상실한 참된 자아로, 화자는 이러한 '나'를 찾고자 길을 따라가며 돌담 안쪽을 탐색하고 있다. (가)의 ㉠, ㉡, ㉢, ㉤의 '나' 역시 글쓴이가 되찾아 지키고자 하는 참된 자아로, ⓐ와 유사한 대상이다. 이와 달리 ㉣은 참된 자아를 잃은 '나'에 해당한다.

04 (가)의 글쓴이는 유배지인 ㉮(장기)에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으므로, ㉮는 글쓴이가 참된 자아를 되찾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길)에서 돌담을 따라 걸으며 잃은 것, 즉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고 있으므로, ㉯는 화자가 참된 자아를 찾아 나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글쓴이가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고 허탈하고 맥이 빠졌음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화자는 ㉯에서 참된 자아를 잃은 상실감을 느끼고 자아를 찾으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을 뿐, 자신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② 글쓴이가 ㉮를 벗어나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는 (나)의 화자가 현재 위치한 공간이다. ③ (가)의 글쓴이는 ㉮에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으므로, ㉮가 상실감을 유발하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화자는 현재 잃은 것을 찾지 못한 상황이므로, ㉯가 만족감을 유발하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화자는 ㉯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를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의 글쓴이가 ㉮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며 당당함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5 (나)는 길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과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화자의 의지가 확고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쇠문'은 본질적 자아가 있는 돌담 안쪽으로 갈 수 있는 통로로, 이러한 '쇠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③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는 것은 시간의 영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길'을 따라가며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임을 의미한다. ④ '눈물'은 돌담 건너편에 있는 본질적 자아에게 닿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과 탄식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⑤ 화자가 '풀 한 포기 없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은 '담 저쪽에' 화자가 찾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가 있기 때문이며, 7연으로 보아 이는 화자가 살아가는 이유에 해당한다.

▸ **(나) 연덕 서너 개 구름 한 점**_한정원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성격	사색적, 성찰적, 경험적
주제	산책하며 만나는 것들과 그 시간 속의 진정한 '나'
해제	산책을 하며 '자신의 몸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것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남.

▸ **(다) 보리타작**_정약용

핵심 정리

갈래	한시, 행(行: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형식)
성격	사실적, 묘사적, 반성적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
해제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노래한 한시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통해 세속적 욕망에 집착했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가 드러남.

06 (가)는 고전 수필, (나)는 현대 수필이다. 수필의 서술자는 글쓴이 자신이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나')는 글쓴이가 되찾은 참된 자아를 의미하고, (나)의 ⓑ 역시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서로 의미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② 고전 수필인 (가)와 현대 수필인 (나)는 교술 갈래에, 고전 시가인 (다)는 서정 갈래에 해당한다. ③ (가)에는 참된 자아를 찾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나)에는 산책하며 만나는 대상들과 진정한 '나'의 모습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④ (가)의 글쓴이는 참된 '나'를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다)의 화자 역시 세속적 욕망을 좇았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농민들의 삶을 통해 육체와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을 깨달았다.

07 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로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다)에 연쇄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선경후정(先景後情)은 시에서, 앞부분에 자연 경관이나 사물에 대한 묘사를 먼저 하고 뒷부분에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그려 내는 구성을 말한다. 1~8구는 마당에서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표현한 선경(先景)에, 9~12구는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과 벼슬길에 집착했던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을 담은 후정(後情)에 해당한다. ②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 무엇 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깨달은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③ '젖빛처럼 뿌옇고',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등에서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젖빛처럼 뿌옇고'에서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막걸리의 속성(뿌연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08 '검게 탄 두 어깨'는 보리타작하는 농민의 어깨로, ㉢은 건강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 글쓴이는 큰형님이 서재에 붙인 '수오재'라는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② ㉡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나'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보리타작을 하며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농민들의 삶을 평가한 시구이다. ⑤ ㉤에서 화자는 벼슬길이라는 세속적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09 ㉮(수오재)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으로, 큰형님이 '나'를 잃지 않고 본분을 지키며 단정히 앉아 있는 공간이므로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사방)에서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며 육체와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있으므로, ㉯는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와 ㉯ 모두 해당하지 않는 진술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208~209쪽

01 ⓐ: '나'를 지키는 일, ⓑ: 기(記) 02 귀양 03 '나'는 외적 요소에 흔들리기 쉬워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 04 세상의 유혹이나 이익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본질적 자아를 되찾았음을 의미한다.

01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기록하여 교훈을 주는 기(記)이다.

02 귀양을 가기 전 글쓴이는 큰형님이 서재에 붙인 이름인 '수오재'를 보고 의아하게 여겼다. 바쁘게 벼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귀양살이를 떠난 장기에서 글쓴이는 그러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얻으며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수오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달라진 계기에 해당하는 사건은 '귀양'이다.

03 '이익', '위험과 재앙', '질탕한 음악 소리',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는 세상의 이익, 위협, 유혹으로, '나'를 흔들리게 하는 외적 요소에 해당한다. ㉠에서는 '나'는 이러한 외적 요소에 흔들릴 수 있으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존재이므로 '나'를 굳게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04 ㉡에서 글쓴이가 붙잡아 함께 머무른 '나'는 세상의 유혹이나 이익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본질적 자아로, ㉡은 글쓴이가 외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본질적 자아를 되찾아 본분을 지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210~21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6 '수오재'는 글쓴이의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10 '나'는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12 글쓴이는 과거 시험과 벼슬 생활에 매진하며 참된 '나'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다.

13 글쓴이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벼슬 생활을 하는 동안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었다고 했다.

16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에서 둘째 형님 역시 '나'를 간수하지 못하여 잃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9 큰형님은 자신이 서재에 붙인 이름과 같이 '나'를 잃지 않은 인물이므로, 글쓴이가 큰형님을 깨우치려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5 함께 읽고 더불어 살아가기

(1)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 / (2)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

기출 실전 문제

본문 216~221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① 06 ④ 07 ④ 08 ⑤
09 ③ 10 ④ 11 ⑤ 12 ②, ⑤ 13 ③ 14 ④ 15 ③ 16 ①
17 ② 18 ② 19 ⑤ 20 ②

01 '먼저 제일 큰 호텔로 가서 "여기서 혹시 오늘 학회가 열리고 있나요?"라고 묻고'에서 글쓴이 자신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게 재미없는 건 아니다. ~ 뭐든 하라고 정해 주면 하겠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역시 학생들이 주로 고민하는 내용을 나열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상대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편안한 어조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④ 초청받은 학회가 열리는 장소를 찾아 테키르다 곳곳을 헤맨 경험(글쓴이의 일화)과 전날 테키르다를 헤맨 덕분에 도시 곳곳을 즐길 수 있었다는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⑤ 방황과 실패의 과정을 거치며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을 '탐험'에 비유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찾아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02 '사람이 참 희한하게 시간이 이미 지나서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계속 학회 장소를 찾아 헤매게 되더라고요.'에서 글쓴이가 학회가 시작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학회 장소를 계속 찾아다녔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제가 연구실 대학원생들 외에 학부 학생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요일 오후마다 면담을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학회가 테키르다에서 열린다는 건 알겠는데, 테키르다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스탄불에 내려서 차를 빌리고, 태어나서 처음 가 보는 테키르다라는 곳으로 지도를 옆에 끼고 출발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글쓴이는 학회가 열리는 장소를 찾기 위해 호텔과 대학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다.

03 [A]에는 학회가 열리는 장소를 찾아 테키르다 구석구석을 헤맨 글쓴이의 경험이, [B]에는 그러한 경험 덕분에 테키르다의 좋은 곳을 모두 즐길 수 있었다는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가 학회 장소를 찾지 못한 것은 지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학회가 열리는 구체적인 장소를 몰랐기 때문이다. ② 글쓴이가 학회가 열리는 구체적인 장소를 모른 채 테키르다로 떠난 것은 맞지만, [B]에 나타난 글쓴이의 깨달음은 테키르다 구석구석을 헤맨 덕분에 도시의 좋은 곳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③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④ 글쓴이가 테키르다의 좋은 곳을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전날 테키르다의 구석구석을 헤매고 돌아다닌 경험 때문이다.

04 글쓴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아 인생을 모두 걸 만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하더라도 수많은 시도를 해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 보며 나만의 지도를 그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글쓴이는 실패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꿈을 찾아 나가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이 글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③ 글쓴이는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인 줄 착각하도록 하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집단적 선택을 따르며 안전함을 느끼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05 '직접 가서 여행하고,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체적인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해요.'에서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지도를 그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는 적극적으로 방황하는 기술을 배워 지도를 그려야 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수많은 시도를 해 봐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체적인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③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세상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그리고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그 지도를 끊임없이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젊은 시절에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지 못하면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남의 지도를 기웃거리게 됩니다.'에서 알 수 있다.

06 글쓴이는 목표 지점만을 보고 달리는 마라토너의 마음이 아니라 삶을 탐색하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기 위해 방황과 탐색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목표한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방황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③ 글쓴이는 방황과 실패, 탐색의 과정을 거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② 글쓴이는 젊은이들이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인 줄 착각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에서 방황의 시간을 박탈당한 채 집단적 선택을 따르게 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⑤ 글쓴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방황과 실패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수많은 시도를 해 봐야 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07 글쓴이는 방황과 실패의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야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방황의 시간 없이 집단적 선택을 따르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선망받는 직업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로 보아, 지도를 그릴 때 고려할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②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도 위 어디에 있는지'로 보아 지도를 그릴 때 고려할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일할지'로 보아, 지도를 그릴 때 고려할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10년 후 지도는 어떤 모습일지'로 보아, 지도를 그릴 때 고려할 내용임을 알 수 있다.

08 글쓴이는 다양한 것을 탐색하며 방황과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마라토너)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을, ㉡(탐험가)은 다양한 것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삶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앞만 보며 달리는 것과 성공을 지향하는 것은 다르므로, ㉠을 성공을 지향하는 삶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은 다르므로, ㉡을 실패를 용납하는 삶이라 하기 어렵다. ② 글쓴이는 다양한 것을 탐색하며 경험하는 것을 중시하므로, ㉡은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앞만 보며 달리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므로,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③ 앞만 보며 달리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과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것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것은 여유를 즐기는 삶과 거리가 멀다. ④ ㉠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삶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또한 다양한 것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삶을 중시하므로, ㉡을 타인과 경쟁하는 삶이라 할 수도 없다.

09 진로나 관심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먼저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글을 찾아(㉡) 읽기 목적과 수준, 분량 등을 고려하여 읽을 글을 선정한 뒤(㉣), 진로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읽는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 중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통합하여 읽은 결과를 공유한다(㉢).

10 주제 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과 형식의 글이나 자료를 선택적으로 읽고, 읽기 목적에 맞게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며 이해하는 독서 활동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 주제 통합적 읽기는 읽기 목적에 맞게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 통합하며 읽기 목적을 찾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주제 통합적 읽기와 거리가 먼 내용이다. ③, ⑤ 주제 통합적 읽기란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다양한 관점, 형식의 글을 선별하여 읽고 정보를 통합하며 재구성하는 활동이다.

11 '통념(通念)'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이견(異見)'은 어떠한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을 뜻한다. 이 글은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독서가 부족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과도해서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라는 기존의 통념을 제시한 뒤, '그러나 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문자답'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질문한 뒤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글의 화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자문자답의 방식이 아니라 '문해력'의 의미를 정의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문해력'의 개념을 직접 설명하고 있을 뿐,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반대 상황을 가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온라인상에 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으로 발화의 의도와 맥락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문해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해결 과정이 단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12 '쟁점(爭點)'이란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을 말한다. 2문단에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은 부족한가?'라는 사회적 쟁점이, 4문단에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이 부족해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사회적 쟁점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문해력의 핵심은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이 받아들이고 상상하며 이해하는 능력'에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이는 의견이 갈리는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한국 교육 방송 공사(EBS) 〈당신의 문해력〉이 방영된 이후로 사회 전반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이는 의견이 갈리는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나와 타자가 속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부족이 문제라면'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 성향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이 의견이 갈리는 쟁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13 글쓴이는 문해력이 부족해진 원인으로 온라인상에 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을 들고 있으며, 단순히 독서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성향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독서량을 높이는 것으로 문해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쉽게 말해 문해력이란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에서 알 수 있다. ② '반면에 타인의 의도와 발화의 맥락을 고려하는 문해력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에서 문해력은 타인의 의도와 발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문해력의 핵심은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이 받아들이고 상상하며 이해하는 능력에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을 들고 있으므로, 문해력이 온라인 세계에 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을 받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4 '금일'을 '금요일'로, '사흘'을 '4일로' 잘못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문해력이 부족해진 원인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실제로 2018년에 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실시한 평가 결과를 보면 회원국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수준은 높은 편이다.'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자료를 인용하여 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② 이분법적 문화의 영향으로 자기 입장만을 반복 생산하는 폐쇄적인 세계관에 갇히고, 결국 한국 사회의 집단 갈등 혐오, 차별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 문해력의 개념을 정의하며 글을 시작하여 쟁점으로 다룰 내용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⑤ 6, 7문단에서 문해력이 부족한 사회와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문해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15 타협과 이해는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의 특징이다. 글쓴이는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 수준과 문해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다루고 있으므로, ③을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문해력이 중요한 화두가 된 배경을 언급하며 문해력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문해력 논란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② 글쓴이는 발화의 의도와 맥락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는 문해력의 부족이 한국 사회의 집단 갈등과 차별, 혐오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문해력 부족에 따른 문제를 우려하는 독자를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④ 글쓴이는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온라인상에 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을 들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이분법적 사고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우려하는 독자를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⑤ 글쓴이는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은 부족한가?',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이 부족해진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최근 떠오른 사회적 쟁점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궁금해하는 독자를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16 디지털 기기 사용이 과도해진다는 점은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의 통념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이를 ③(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문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⑤ 이분법적 문화에 익숙해지면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자기 입장만을 반복하는 폐쇄적인 세계관에 갇히게 되며, 결국 한국 사회의 집단 갈등, 혐오, 차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③ 이분법적 대립 구조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발화의 다차원적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④ 온라인상에 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에서는 아군과 적군을 나누어 상대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공격할 만한 점을 찾아내어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고 조작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17 '분별하다'는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다.'를 의미하는 단어로, ㉡의 '분별하는'은 '(진위를) 바르게 판단하는'을 뜻한다.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분석하는'이다.

오답 해설 ① '대두되다'는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다.'를 의미하는 단어로, 머리를 쳐든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③ '식별하다'는 '분별하여 알아보다.'를 의미한다. ④ '곡해하다'는 '남의 말이나 행동을 본뜻과는 달리 좋지 아니하게 이해하다.'를 의미한다. ⑤ '규정짓다'는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다.'를 의미한다.

18 글자의 굵기를 달리하여 특정 내용을 부각한 것은 이 글이 아니라 〈보기〉이다. 〈보기〉는 이 글과 달리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눈에 띄도록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2018년에 경제 협력 기구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 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보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을 제시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③ 〈보기〉는 이 글과 달리 인터뷰 영상과 자막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④ 〈보기〉는 이 글과 달리 여러 사람을 인터뷰한 영상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이 글은 문해력이 부족해진 배경으로 온라인상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가 타인의 의도와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문해력은 물론, 한국 사회의 집단 갈등과 차별, 혐오에도 영향을 미침을 언급하고 있다. 〈보기〉는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물은 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는지를 되묻는 인터뷰 영상을 제시하여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모두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선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시각 자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내용과의 관련성이 낮은 시각 자료를 사용하면 오히려 내용을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⑤는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등 매체에 따른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②, ③ 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과 같은 소통 목적에 적합한 매체를 선정했는지, 소통하려는 목적에 맞게 자료의 내용을 구성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④ 수용자의 연령대, 관심사, 주제에 대한 입장 등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20 글을 쓸 때에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전개 방법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내용 전개 방법을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②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글을 작성할 때에는 예상 독자의 관심사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③, ⑤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그 근거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해야 한다. ④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222~227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⑤	06 ①	07 ②	08 ③
09 ④	10 ②	11 ④	12 ③	13 ②	14 ③	15 ⑤	16 ③

01 글쓴이는 튀르키예의 한 도시인 테키르다에서 길을 잃고 헤맨 덕분에 다음 날 도시의 좋은 곳을 모두 즐길 수 있었다는 깨달음

을 얻게 되었다. 글쓴이는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방황하고 탐색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길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역설적 발상이란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새로운 생각을 말한다. 이 글에 역설적 발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글쓴이의 과거 경험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한 뒤, 독자에게 당부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교차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튀르키예', '테키르다', '이스탄불'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글쓴이의 경험에 대한 사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러한 지명은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와는 관련 없다. ④ 자문자답이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글에 자문자답의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글쓴이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학회 장소를 찾아다니며 '아, 나는 이제 학계에서 매장되는 것인가.', '다시 튀르키예에 입국할 수 있을까?', '너무 미안하다.' 등등 온갖 생각을 하다가 10시쯤 되어서야 자포자기하고, 다음 날 도시의 근사한 곳을 즐긴 뒤 이스탄불로 돌아왔다.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글쓴이는 전날 도시 곳곳을 헤맨 덕분에 다음 날 도시의 진짜 좋은 곳을 모두 즐길 수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을 뿐, 글쓴이가 스스로를 책망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제가 2008년에 튀르키예의 한 의학회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았어요. 이스탄불에 내려서 차를 빌리고, 태어나서 처음 가 보는 테키르다라는 곳으로 지도를 옆에 끼고 출발했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먼저 제일 큰 호텔로 가서 "여기서 혹시 오늘 학회가 열리고 있나요?"라고 묻고, 다음 호텔로 가서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플래카드를 봤는데 어디에도 없어요.'에서 알 수 있다. ④ '그랬더니 머릿속에 테키르다 지도가 훤히 그려지는 거예요. ~ 제가 그 도시의 진짜 좋은 곳을 모두 즐기고 돌아왔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글쓴이는 독자에게 세상을 적극적으로 방황하고 탐색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03 (라)에서 글쓴이는 엉성하더라도 '자신만의 지도'를 갖게 되면 남은 인생 동안 그 지도를 끊임없이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세상에 대한 지도는 여러분 스스로 그려야 합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나)의 '세상에 나온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황하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와 (라)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간만이 온전한 지도를 만들어 줍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수많은 시도를 해 보고' '직접 가서 여행하고'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면서'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나)에 따르면, 자신만의 지도를 그릴 때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10년 후 지도는 어떤 모습일지'를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체적인 지도를 알아야 한다. 이로 보아 지도를 그리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라)에서 글쓴이는 '지도를 그리는 빠른 방법이란 없'다며 방황과 탐색의 과정을 통해 '온전한 지도'를 그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의 ○○○ 씨가 지도를 그리는 빠른 방법을 터득하여 온전한 지도를 그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라)에서 세상을 탐색하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기〉의 ○○○ 씨 역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아 나서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의 표제인 "제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⑤ (다)에서 글쓴이는 젊은이들에게 방황의 시간을 박탈하는 사회,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인 줄 착각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남들이 가는 대로 우르르 몰려가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보기〉에서 대기업, 로스쿨, 언론사 등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대학 졸업생들 역시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인 줄 착각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5 ⑤와 관련된 내용은 (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방송 분야 관련 직업'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가)의 '10년 후 세상'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가)의 '필요한 공부'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가)의 '방송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

06 처음 접하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더라도 읽기 목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자료라면 필요한 자료로 선별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정보인가?'는 정보를 선별할 때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③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④ 읽기 목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⑤ 자신이 수집한 정보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거나 모순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한다.

07 (나)의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에서 '문○○ 프로듀서'와 함께 일하고 싶은 이유를 언급하며 '재치 있는 편집으로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듀서'임을 밝히고 있을 뿐, (나)에 인기 있는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정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10년 후 세상', '추구하고 싶은 가치', '필요한 공부' 등과 같은 소제목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③ (나)의 '10년 후 세상'에서 향후 방송 분야에서 인공 지능이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④ (나)의 '필요한 공부'에서 영상 편집 방법을 다룬 도서를 제시하고 있다. ⑤ (나)의 '목표 진학 학과'에서 프로듀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진학해야 하는 학과를 제시하고 있다.

08 시간적 순서의 원리는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의 전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가)와 (나) 모두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문자로 된 말을 활용하여, (나)는 문자로 된 말과 영상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2018년에 한국 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실시한 평가 결과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문구를 굵게 처리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인터뷰 형식을 취하여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지닌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09 글쓴이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와 관련하여 '독서가 부족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과도해서'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독서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성향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한국 교육 방송 공사(EBS) 〈당신의 문해력〉이 방영된 이후로 사회 전반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능력 자체는 준수할지 몰라도 글에 담긴 의도를 명확히 식별하고,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문해력이 부족해지고 있음은 사실로 봐야 할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문해력의 핵심은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이 받아들이고 상상하며 이해하는 능력에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글쓴이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에서는 다차원적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상대를 공격할 대상으로 규정짓고 자신의 생각과 의도만을 재생산하는 행위만 남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10 ㉡의 '격차(隔差)'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를 의미한다. '가격이나 자격, 품등 따위의 서로 다른 정도'를 의미하는 어휘는 '격차(格差)'이다.

11 이분법적 문화에 익숙해지면 문해력의 핵심이 간과되어 자기 입장만을 반복 생산하는 폐쇄적인 세계관에 갇히게 되고, 결국 한국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각종 집단 갈등, 혐오, 차별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를 인과의 방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해력이 부족한 사회와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예시에 대한 설명이다. (가)의 2문단에서 '금일'을 '금요일'로, '사흘'을 '4일'로 잘못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A]에는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인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의 1문단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정의한 문해력의 개념을 인용하고, 3문단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평가 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나, [A]에는 인용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의 1문단에서 문해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A]에는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2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가 드러나는 글은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히는 주관적인 글로, 쟁점에 대한 견해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예상 독자의 연령대, 관심사, 주제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⑤ 적절한 표현 방법과 내용 전개 방법을 사용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④ 견해를 뒷받침하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13 〈보기〉는 통계 자료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는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수준 점수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을 뿐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보기〉는 교육부와 국가 평생 교육 진흥원을 자료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와 〈보기〉 모두 우리 사회에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④, ⑤ 문해력이 부족해진 원인으로 (가)는 온라인 세계에 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을, 〈보기〉는 일상생활에서 긴 글을 읽고 쓰는 경험을 부족하게 하는 디지털 소비 습관을 들고 있다.

14 (나)는 그림과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카드 뉴스로, 동영상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두 번째 이미지에서 '한국 환경 공단', 세 번째 이미지에서 신문 기사의 출처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나)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매체로, 내용을 간결하게 재구성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④ 첫 번째 이미지에서 '층간 소음'과 '해결하기'의 색을 달리하고, 두 번째 이미지에서 '층간 소음'의 글자 색과 크기를 달리하는 등 글자의 크기와 색을 달리하여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⑤ 두 번째 이미지에서 그래프를 제시하여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층간 소음 민원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15 매체를 선택할 때에는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등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해야 한다. 매체 자료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를 선택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16 ③은 음성 매체의 특성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여러 사람이 동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④, ⑤ 인터넷 매체는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 없이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228~229쪽

01 젊은이들에게 앞만 보고 달리는 마라토너의 마음이 아니라 방황과 실패를 경험하며 세상을 탐구하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이다. 02 세상에 대한 지도를 그려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3 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 04 • 내용 전개 방법: 인과 • 효과: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을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5 집단 갈등, 혐오, 차별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01 예상 독자와 글을 쓴 목적은 '젊은이들(예상 독자)에게 당부(글을 쓴 목적)하고 싶습니다.'에 나타나 있다. 또한 문맥상 '마라토너'는 목표 지점을 도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을, '탐험가'는 실패와 방황을 경험하며 세상을 탐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젊은이들에게 앞만 보고 달리는 마라토너의 마음이 아니라 방황과 실패를 경험하며 세상을 탐구하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02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세상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하며, 세상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자신의 인생을 다 걸 만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03 '그러나 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

04 원인과 결과의 구조에 따라 온라인 세계에 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5 ㉠에는 3문단의 내용을 정리해서 넣어야 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230~23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의 글쓴이는 학회가 열리는 장소를 찾아 테키르다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그 장소를 찾지 못했다.

05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의 글쓴이는 방황과 실패의 과정을 거쳐 나만의 지도를 그려야 고유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방황과 실패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09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법〉의 글쓴이는 목표 지점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마라토너가 아니라, 방황과 실패를 경험하여 세상을 탐색하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다.

15 〈문해력 위기의 또 다른 배경〉의 글쓴이는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온라인 세계에 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을 들고 있다.

18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내용 전개 방법은 '정의'이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20 여러 사람이 동시적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다.

최종 점검 모의고사

제1회

본문 234~241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5 ③	06 ④	07 ⑤	08 ①
09 ⑤	10 ④	11 ①	12 ①	13 ②	14 ⑤	15 ⑤	16 ①
17 ②	18 ③						

01 가정이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을 뜻한다. 이 글에 가정의 진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색채**어란 빛깔을 나타내는 말이다. 9연에서는 '붉게'라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네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온몸이 붉게 물든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② 수미상관이란 처음과 끝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구성을 말한다. 이 글은 1연과 9연을 유사하게 구성한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③ 동일한 종결 어미 '-다'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1연의 '앞으로 걸어도 나 / 뒤로 걸어도 나'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열한 대구법을 활용하여 화자인 '나'의 마음이 충만하게 꽉 차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2 각 연 1행에서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는 노을 질 무렵 하늘에 뜬 '구름'을 '한 다발 장미'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사람이 아닌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③ '같이'를 사용하여 '고양이의 털'을 '꽃가루'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사람이 아닌 '산맥'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 어순을 뒤바꾸어 표현한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03 7연의 '그림자'는 대상을 끈질기게 따라다닌다는 속성을 지닌 대상이다. 7연의 마지막 행으로 보아 이 글은 '나'를 '그림자'에 빗대어 잘못한 일이 계속하여 떠올라 무거운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의 '토마토'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다는 속성을 지닌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나'를 '토마토'에 빗대어 이래도 저래도 속은 꽉 찬 '나'라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2연의 '나무'는 햇빛을 받으며 바람에 몸을 맡기고 사방으로 자라나는 속성을 지닌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나'를 '나무'에 빗대어 세상 모든 것과 어우러져 함께 성장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3연의 '유리'는 금이 가고 얼룩이 생긴다는 속성을 지닌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나'를 '유리'에 빗대어 상처받아 눈물이 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9연의 '토마토'는 붉은색을 띤 대상으로, 이 글에서는 '나'를 '토마토'에 빗대어 좋아하는 상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 온몸이 붉게 물든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04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독자 맥락과 관련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독자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수용하는 것이다. ⓓ는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감상한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 ⓔ 작가 맥락과 관련하여 작품을 감상한 내용이다. ⓑ 작품 자체의 표현과 시어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이다.

05 '사각사각'은 종이 위에 글씨를 잇따라 가볍게 쓸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음성 상징어로, ㉠에는 청각적 심상(귀로 느낄 수 있는 심상)이 나타나 있다. ③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에도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청각적 심상인 '발소리'를 시각적 심상인 '배춧잎'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 나타나 있다. ② '진달래 향기', '보리 내음새'에 후각

적 심상(코로 느낄 수 있는 심상)이 나타나 있다. ④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에 촉각적 심상(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상)이 나타나 있다. ⑤ '흰나비'에 시각적 심상(눈으로 느낄 수 있는 심상)이 나타나 있다.

06 경어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체이다. 〈보기〉는 '그대 노 저어 오오', '그대 저 문을 닫아 주오' 등에서 '-오', '남김없이 타오리다',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등에서 '-오리다'와 같이 상대를 높이는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 글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어조란 화자가 사용하는 말투를 의미한다. 이 글과 〈보기〉 모두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화자인 '나'를 계속하여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매 연의 1행에서 화자의 마음 상태를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⑤ 이 글은 매 연을 '나는 오늘 ~', 〈보기〉는 매 연을 '내 마음은 ~요.'라는 동일한 형식으로 시작하여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Plus 〈보기〉 내 마음은_김동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낭만적, 비유적, 상징적
주제	사랑의 기쁨과 애상감
해제	화자의 마음을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 간절하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함.

07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있는 '나'로, '나'가 특정 인물이 지금까지 지내 온 경로나 경력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원준이 산에 올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뒤, 원래 손의 모습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② '브로콜리'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원준의 말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복싱이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④ 원준의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했다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08 원준은 복싱이 하기 싫어졌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나'에게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하기까지 그가 겪었던 내적 갈등을 털어놓고 있다. 하지만 '나'가 원준의 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박광석 할아버지가, 내일 산에 가재. ~ 자금은 푹 자고, 내일 다 같이 가 보자."에서 '나'는 박광석 할아버지가 알려 준 바를 언급하며 원준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 함께 산에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③ '나는 잘됐네라고 답장을 보냈다. 정말 잘된 일이었다.'에서 '나'가 복싱을 그만두기로 한 원준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부른 뒤 "이상하네요.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좀 시원한 거 같아요."라고 말하는 원준의 모습으로 보아, 원준이 노래를 부른 뒤 후련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화가 나질 않아."에서 원준은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뒤 미움과 분노를 만들어 낼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09 '나'는 복싱 때문에 힘들어하는 원준을 안쓰러워하며 원준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인물이다. ㉡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짐을 덜어 놓은 원준을 보며 '나' 역시 잃었던 식욕을 되찾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에서 '나'가 관악산의 경치에 아쉬움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원준은 복싱을 너무 오래 해 왔기에 할 줄 아는 것이 복싱뿐이라며, 복싱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음에도 복싱을 쉽게 그만둘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② '나'를 바라보는 '아무런 기대도 없는 눈빛'에서 원준이 현재 상황을 어둡고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박광석 할아버지는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원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 준 인물로, 노래를 마친 원준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의 병이 나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④ '키위'는 원준을 위해 함께 산에 오른 안필순 할머니가 일행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다. '이 쑤시개에 꽂힌 키위 조각'을 건네는 모습에서 주변 인물을 살피는 안필순 할머니의 따뜻한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10 〈보기〉에는 산에 올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원준의 브로콜리 손이 모든 꽃봉오리를 피워 내며 강렬한 향기를 내뿜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보기〉와 함께 복싱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원준의 오른손이 거의 온전한 모양을 되찾았다는 [A]의 내용을 고려할 때, '브로콜리꽃 뭉치'는 복싱으로 인한 원준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원준은 내적 갈등을 겪으며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인물로, 비현실적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② 주된 갈등은 원준의 내적 갈등으로, '나'와 원준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개연성이란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것처럼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성질을 의미한다. '브로콜리'로 변한 원준의 오른손이 꽃을 피워 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설정이므로, '브로콜리꽃 뭉치'가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복선이란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을 뜻한다. 복싱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원준의 오른손이 원래 모습을 되찾는다는 [A]의 내용을 고려할 때, '브로콜리꽃 뭉치'를 원준의 내적 갈등이 깊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곤죽'은 다의어로, 「1」 몹시 질어서 질퍽질퍽한 밥. 또는 그런 땅 「2」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갈피를 잡기 어렵게 된 상태 「3」 몸이 지치거나 주색에 빠져서 늘어진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는 복싱 경기에서 공격을 받아 쓰러진 상대 선수를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몸이 지치거나 주색에 빠져서 늘어진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보기〉에 따르면 원준이 복싱을 그만둔 것은 상대와의 경쟁에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한 경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 복싱이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해하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글과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원준이 복싱을 그만둠으로써 상대와의 경쟁에서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숙명을 극복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③ 원준은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 체제 안에서 심한 경쟁을 강요받으며 패배와 탈락에 대한 걱정을 느끼고 상대에 대한 미움을 억지로 만들어 냈다. 이러한 상황은 원준이 복싱을 싫어하게 된 이유와 관련 있다. ④ 미워하지도 않는 상대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힘들어진 원준은 미움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 내어 상대를 먼저 때려눕혀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다가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했음을 털어놓고 있다. 따라서 원준의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것은 복싱이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해하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그래서 나는 미움을 억지로 만들어 냈다. ~ 내게 주먹을 휘두르고 싶게 만드는 것들, 그 감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응축시켜 오른쪽 글러브 안에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만."을 통해 원준이 링 밖의 경쟁 체제 속에서 공격과 분노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 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3 '허구'란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실제로는 없는 사건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해 낸 이야기를 의미한다. (가)와 (나)의 갈래는 수필로, 글쓴이의 체험과 깨달음을 담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실적·체험적·고백적 성격을 띤다.

오답 해설 ① 수필의 서술자는 글쓴이 자신으로, 수필은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 글쓴이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③ 수필은 시, 소설, 희곡과 달리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쓴 글로,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 특정한 형식

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수필은 글을 쓰는 데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중적인 문학 갈래이다. ⑤ 수필은 소재가 다양한 글로, 인생에 대한 성찰이나 자연에 대한 감상 등 주변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다.

14 (가)와 (나) 모두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여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어린이들이 내놓은 다양한 흉내말의 사례, 어법을 바르게 활용한 사례 등을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나)는 수어를 사용하여 비밀 이야기를 한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통념'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나)는 '누군가는 수어를 아름다운 언어 또는 사랑의 언어라고도 부릅니다만'에서 수어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고 '수어는 여타 언어와 같이 그냥 언어입니다.'에서 수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글쓴이가 이러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에는 흉내말을 과감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기존의 통념이나 이를 비판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는 책이나 문학 작품의 구절, 어린이들이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꾼 흉내말을 인용하고 있을 뿐 인물 간의 대화를 인용하지 않았다. (나) 역시 수어로 이야기를 한 사례를 인용하고 있을 뿐 인물 간의 대화를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나)의 글쓴이는 '소리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세상은 다르게 펼쳐'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미세한 손짓과 몸짓, 얼굴 표정 등에 주목할 때 기존의 단어에 의심을 품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리로 들을 때보다 눈으로 볼 때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글쓴이는 '한때는 부사를 안 쓰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② (가)의 글쓴이는 어린이들과 함께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 낸 흉내말을 보면 웃음이 터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③ (가)의 글쓴이는 '어린이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뿐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어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④ (나)의 글쓴이는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는 '불편한 것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16 언어 공동체란 집단 내에서 서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개별적 언어 집단을 말한다. (가)에 나타난 언어 공동체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선생님과 어린이로, 이들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가)의 글쓴이는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꾸는 일에서 어린이들은 자주 과감한 답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양한 흉내말이 있으니 우리도 흉내말을 새롭게 지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과 함께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생각하지 않고 흉내말을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④ (나)에 나타난 언어 공동체는 수어를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농인과 코다이다. ⑤ (나)의 글쓴이는 수어로 소곤소곤 비밀을 이야기할 때의 몸짓, 손짓, 표정을 설명하며, 이러한 표현법 역시 글쓴이에게 충분한 언어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의 언어 공동체인 농인과 코다는 몸짓과 표정을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7 쌀통에 쌀을 가득 넣었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그릇 따위에 넣다.'를 뜻하는 '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쌀통에 쌀을 가득 담았다.'라고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A]에 따르면 '던가'는 회상이나 의문과 관련 있다. '태주가 많이 아프던가?'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물음과 관련 있으므로, 어법에 맞는 문장이다. ③ '난 혹시 그날 비가 오지 않았던가 했지.'는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측과 관련 있으므로, 어법에 맞는 문장이다. ④ '키위든가 딸기든가 먹고 싶은 대로 갖다 먹어라.'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상황과 관련 있으므로, 어법에 맞는 문장이다. ⑤ '담그다'는 '김치·술·장·젓갈 등을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할머니께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된장을 담그셨다.'는 '담그다'라는 동사를 바르게 활용한 문장이다.

18 (나)에서 글쓴이는 수어라는 언어에는 비속어도 사투리도 줄임말도 유행어도 신조어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유행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 국어사전에서 '소곤소곤'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본 글쓴이의 경험이 나타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가)의 글쓴이는 일상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고유한 관점이 드러나도록 표현하여 개성을 드러냈다. (가)의 글쓴이는 '소득소득', '소락소락', '소로소로'와 같은 다양한 흉내말을 언급하며 우리도 새로운 흉내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자신만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나)의 글쓴이는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관점이 드러나도록 표현하여 다른 사람의 글과 구별되는 개성을 드러낸다. (나)의 글쓴이는 '청자'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진 단어라며, '청자' 대신 '수어를 보는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의 글쓴이는 '소곤소곤 말하는 엄마의 어깨와 그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비밀스럽게 듣고 있는 아빠의 등'을 떠올리며 수어를 사용할 때 동반되는 몸짓과 손짓, 표정과 같은 표현법도 자신에게는 충분한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2회

본문 242~247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⑤	05 ③	06 ③	07 ②	08 ④
09 ②	10 ①	11 ⑤	12 ⑤	13 ⑤	14 ②	15 ①	16 ⑤
17 ⑤	18 ⑤	19 ②	20 ③	21 ③	22 ④	23 ⑤	24 ②
25 ⑤							

01 '국내'는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궁내]로 발음된다. '식물'은 'ㄱ'이 비음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싱물]로 발음된다. '닫는'은 'ㄷ'이 비음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어 [단는]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의 세 단어 모두 비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③ 유음화란 'ㄴ'이 유음인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④ 구개음화란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⑤ 된소리되기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02 '실내화'는 ㉡에 따라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어 [실래화]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권리'는 ㉠에 따라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뀌어 [궐리]로 발음된다. ② '칼날'은 ㉡에 따라 'ㄹ' 뒤의 'ㄴ'이 'ㄹ'로 바뀌어 [칼랄]로 발음된다. ③ '생산량'은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 ㉢에 따라 'ㄴ'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어 [생산냥]으로 발음된다. ④ '물난리'는 ㉡에 따라 'ㄹ' 뒤의 'ㄴ'이 'ㄹ'로, ㉠에 따라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뀌어 [물랄리]로 발음된다.

03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홑이불'의 '이불'은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로, '홑'의 끝소리 'ㅌ'과 만나도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홑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운 교체)에 따라 [혿이불]로, 다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음운 첨가)되어 [혿니불]로, 다시 비음화(음운 교체)가 일어나 [혼니불]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같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가치]로 발음된다. ② '미닫이'는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어 [미:다지]로 발음된다. ④ '해돋이'는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어 [해도지]로 발음된다. ⑤ '묻혀야'는 끝소리 'ㄷ'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무텨야]로, 다시 'ㅌ'이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무처야]로 발음된다.

04 '할 때'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된소리인 'ㄸ'이 이어져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표기 그대로 [할때]로 발음된다. 따라서 '할 때'가 ㉣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국밥'은 'ㄱ' 뒤에 'ㅂ'이 오는 ㉠의 조건을 충족하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국빱]으로 발음된다. ② '담다'는 용언의 어간 '담-'의 받침 'ㅁ'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가 오는 ㉡의 조건을 충족하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담:따]로 발음된다. ③ '갈등(葛藤)'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이 오는 ㉢의 조건을 충족하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갈뜽]으로 발음된다. ④ '갈 곳'은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ㄱ'이 오는 ㉣의 조건을 충족하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음절 끝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갈꼳]으로 발음된다.

05 '담그- + -아 → 담가[담가]'에서는 어간 끝의 모음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 사례로, 이는 원래 있던 음운이 탈락하는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은 음운 교체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모음 'ㅡ' 탈락이 표기에도 반영되어 '담가'로 표기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모음 'ㅡ'가 탈락하여 음운이 6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다. ④ '잠그- + -아 → 잠가[잠가]'에서도 모음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06 겹받침 'ㄺ'은 보통 'ㄹ'이 탈락하지만 어간 끝 'ㄺ'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에는 'ㄱ'이 탈락한다. '맑게'는 어간 '맑-'의 'ㄺ'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게'를 만난 경우이므로, 'ㄱ'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말께]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읊고'는 겹받침 'ㄻ' 중 앞에 있는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읖고]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끝소리 'ㅍ'이 'ㅂ'으로 바뀌어 [읍고]로, 다시 'ㅂ'이 뒤에 오는 'ㄱ'을 만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읍꼬]로 발음된다. ② '여덟'은 겹받침 'ㅄ' 중 뒤에 있는 'ㅂ'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여덜]로 발음된다. ④, ⑤ 겹받침 'ㅄ'은 보통 'ㅂ'이 탈락하지만 '밟-'이 자음을 만날 때나 '넓적하다[넙쩌카다]' 등에서는 'ㄹ'이 탈락한다. 따라서 '넓적한'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넙적한]으로, 다시 된소리되기(ㅈ → ㅉ)와 거센소리되기(ㄱ + ㅎ → ㅋ)가 일어나 [넙쩌칸]으로 발음된다. 또한 '밟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밥:자]로, 다시 된소리되기(ㅈ → ㅉ)가 일어나 [밥:짜]로 발음된다.

07 '색연필'은 자음으로 끝나는 앞말 '색'과 반모음 'j'로 시작하는 뒷말 '연필'이 결합한 합성어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ㄴ' 첨가(㉠)가 일어나 [색년필]로, 다시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08 ㉠의 '놓다'는 'ㅎ'과 예사소리 'ㄷ'이 만나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노타]로 발음된다. '맏형'은 예사소리 'ㄷ'이 'ㅎ'을 만나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마텽]으로 발음된다. '좋고'는 'ㅎ'과 예사소리 'ㄱ'이 만나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조:코]로 발음된다. ㉡의 '가을걷이'는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어 [가을거지]로 발음된다. '굳이'는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어 [구지]로 발음된다. '붙여'는 끝소리 'ㅌ'이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부처]로 발음된다. ㉢의 '각도'는 'ㄱ' 뒤에 'ㄷ'이 와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각또]로 발음된다. '신다'는 용언의 어간 '신-'의 끝소리 'ㄴ'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가 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신:따]로 발음된다. '실수(失手)'는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ㅅ'이 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실쑤]로 발음된다. 따라서 ㉠은 거센소리되기, ㉡은 구개음화, ㉢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9 '내복약'은 자음으로 끝나는 앞말 '내복'과 반모음 'j'로 시작하는 뒷말 '약'이 결합한 합성어로,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ㄴ' 첨가(㉡)가 일어나 [내:복냑]으로, 다시 'ㄱ'이 비음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내:봉냑]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국화꽃'은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축약)와 음절 끝의 'ㅊ'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 ㉠)이 일어나 [구콰꼳]으로 발음된다. ③ '닫히다'는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다티다]로, 다시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교체 – ㉠)가 일어나 [다치다]로 발음된다. ④ '붙잡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 ㉠)에 따라 음절 끝의 'ㅌ'이 'ㄷ'으로 바뀌고, 'ㄷ' 뒤의 'ㅈ'이 'ㅉ'으로, 'ㅂ' 뒤의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 – ㉠)가 일어나 [붇쩝따]로 발음된다. ⑤ '해맑다'는 자음군 단순화(탈락)에

따라 겹받침 중 'ㄺ' 중 'ㄹ'이 탈락하고, 'ㄱ' 뒤의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 – ㉠)가 일어나 [해막따]로 발음된다.

10 '붉다'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나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고, 'ㄱ' 뒤의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북따]로 발음된다. 또한 음운 개수는 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오답 해설 ② '잡목'은 'ㅂ'이 비음 'ㅁ'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잠목]으로 발음된다. 또한 음운 개수는 음운 변동 전과 후 각각 6개로 동일하다. ③ '축하'는 'ㄱ'과 'ㅎ'이 결합하여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추카]로 발음된다. 또한 음운 개수는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④ '땀받이'는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나 [땀바지]로 발음된다. 또한 음운 개수는 음운 변동 전과 후 각각 7개로 동일하다. ⑤ '한여름'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j'로 시작하여 'ㄴ' 첨가(첨가)가 일어나 [한녀름]으로 발음된다. 또한 음운 개수는 7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11 ㉣의 '아버지, 할머니께 다녀와도 될까요?'는 상대 높임과 객체 높임이 나타난 문장이다. ㉣에서는 종결 어미에 해요체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부사격 조사인 '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에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의 '민지는 할머니께 갔다.'는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② ㉡의 '수아는 선생님을 뵙고 왔다.'는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 '뵙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③ ㉢의 '할머니께서는 안방에서 주무신다.'는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12 ㉠(간접 높임)은 주체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처럼 주어와 긴밀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⑤는 할아버지 신체의 일부인 '귀'를 높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간접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①~④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 '아버지', '부모님', '삼촌'을 높인 직접 높임이 나타나 있다.

13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것은 미래 시제이다. ㄹ의 '잠시 후면 부모님께서 돌아오시겠다.'는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ㄷ의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의 선어말 어미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로, ㄷ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 문장이 아니므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것은 ㄹ만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이다. ㄱ의 '나는 지금 빵을 먹는다.'는 시간 부사어 '지금'과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②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것은 과거 시제이다. ㄴ의 '그는 어제 강원도에 다녀왔다.'는 시간 부사어 '어제'와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③ ㄱ은 '지금', ㄴ은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ㄱ은 선어말 어미 '-는-', ㄴ은 선어말 어미 '-았-', ㄹ은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고 있다.

14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고 있다', '-아/-어 가다' 등을 쓴다. 완료상은 동작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등을 쓴다. ㉠은 '-고 있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실현하고 있다. ㉡은 '-아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실현하고 있다. ㉢은 '-아 가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실현하고 있다. ㉣은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과 ㉢은 진행상을, ㉡과 ㉣은 완료상을 실현한 문장이다.

15 ㉠의 '형이 동생을 울렸다.'는 형이 동생을 울도록 했다는 의미를 표현한 사동문으로, 동사의 어간 '울-'에 사동 접미사 '-리-'를 붙여 사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를 붙여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보기 1〉에 따르면,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은 동사의 어간 '잡-'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피동 표현을 실현하여 행위의 대상인 '도둑'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의 '찢어졌다'는 동사의 어간 '찢-'에 '-어지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④ 〈보기 1〉에 따르면,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더위를 꺾은 행위의 주체는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은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어려워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⑤ 〈보기 1〉에 따르면,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한다. ㉤에서 학생회장을 뽑은 행위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은 행위의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16 ㉠(이중 피동)은 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를 이중으로 결합한 표현이다. '쓰이길'은 동사의 어간 '쓰-'에 피동 접미사 '-이-'를 한 번만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보여진다'는 동사의 어간 '보-'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를 이중으로 결합한 이중 피동으로, '보인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② '믿겨지지'는 동사의 어간 '믿-'에 피동 접미사 '-기-'와 '-어지다'를 이중으로 결합한 이중 피동으로, '믿기지'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③ '놓여진'은 동사의 어간 '놓-'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를 이중으로 결합한 이중 피동으로, '놓인'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④ '잊혀졌다'는 동사의 어간 '잊-'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를 이중으로 결합한 이중 피동으로, '잊혔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17 ⑤에서 선생님이 부른 대상은 연우가 아니라 '나'이므로, ⑤의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 '연우는 나에게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했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하여 간접 인용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②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하고, '이곳' 대신 '그곳'이라는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간접 인용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③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하여 간접 인용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④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하고, 인용한 부분의 시간 표현 '내일'을 '오늘'로 바꾸어 간접 인용으로 적절하게 바꾸었다.

18 ㉤의 '할머니에게도'는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할머니께도'로 고쳐야 한다. '께서'는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격 조사이므로, ㉤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의 '아쉬울 거야'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아쉬웠어'로 고쳐야 한다. ② ㉡의 '열려질'은 동사의 어간 '열-'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이중으로 결합한 이중 피동이므로, 피동 접미사를 한 번만 사용하여 '열릴'로 고쳐야 한다. ③ 직접 인용문은 인용할 부분 앞뒤로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한 부분 다음에 조사 '라고'를 붙이므로, ㉢의 조사 '고'는 '라고'로 고쳐야 한다. ④ ㉣의 '괜찮았다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므로, '괜찮다면'으로 고쳐야 한다.

19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풍부하여 감각과 정서를 섬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휘는 고유어(㉠)이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개념을 표현할 때 흔히 쓰이며 격식 있는 상황

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는 한자어(㉡)이다. 고유어(㉠)는 한자어(㉡)에 비해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많고,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분화된 의미를 지닌다. 유행을 반영하고 새로운 외국 문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적이고 세련되었다는 인식이 있어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 어휘는 외래어(㉢)이다.

20 ㉡은 전문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쓰는 어휘인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리켜야 하므로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드물다.

오답 해설 ① ㉠은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인 사고 도구어이다. ② ㉠(사고 도구어)은 대부분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이다. 이는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④, ⑤ ㉡(전문어)은 특정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라는 점에서 여러 분야에 두루 쓰이는 ㉠(사고 도구어)과 구별된다.

21 협력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질의 격률, 대화의 주제와 관련 있는 말만 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 모호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이 있다. ③에서 B는 수업에 늦지 않도록 얼른 준비하자는 A의 말에 협력적인 태도로 대답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괜찮아."는 뭘 좀 먹자는 제안이 좋다는 의미와 뭘 좀 먹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협력의 원리 중 중의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에 어긋난다. ② B는 A의 질문에 "아무거나."라며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 중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에 어긋난다. ④ B는 시험 범위를 물어보는 A의 질문에 시험 날짜와 기간을 답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주제와 관련 있는 말만 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에 어긋나다. ⑤ B는 어디에 사느냐는 A의 질문에 장황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 중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에 어긋난다.

22 연우는 실력을 갖춘 사람은 자기뿐이라며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겸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겸양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에게 분발해야 한다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준서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신과 상대의 의견 중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공통점은 최대화하라는 동의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입씨름할 시간에 연습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친구들을 비방하고 있으므로,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찬동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23 체면 유지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는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에게 원하는 바를 강요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으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④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기 위한 방법이다. ②, ③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24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말조심을 하라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세 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수가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쌀은 쏟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는 쌀은 쏟아도 주울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나타내는 속담이다. 따라서 〈보기〉의 속담에 공통으로 나타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은 '말을 조심히 가려 한다.'이다.

오답 해설 ① '언행일치(言行一致)'는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을 뜻한다. 〈보기〉의 속담에 이러한 담화 관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과 관련된 담화 관습은 〈보기〉의 속담에 나타나지 않는다. ④, ⑤ 우리말의 담화 관습이기는 하나, 이러한 담화 관습은 〈보기〉의 속담에 나타나지 않는다.

25 담화 관습은 시대나 사회·문화적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과거의 담화 관습과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비교하며 성찰하여 담화 관습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정한 담화 관습만을 고수하거나, 특정한 담화 관습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담화 관습을 수정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의 글쓴이는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선수는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이를 다른 선수들의 공으로 돌리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사이다 발언'이란 답답한 상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사이다 발언에 누리꾼이 열광했다는 표제를 통해 자기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④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라는 속담이다. 이 속담에는 말을 가려 조심히 한다는 담화 관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과 이 속담에 나타난 담화 관습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3회

본문 248~253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④	05 ⑤	06 ③	07 ⑤	08 ③
09 ④	10 ④	11 ②	12 ④	13 ④	14 ⑤	15 ④	16 ④
17 ④	18 ③	19 ③					

01 이 글은 논증하는 글로,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합당한 근거로 밝히는 글이다.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고 독자의 관점과 비교하며 읽어야 하며, 글쓴이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논증하는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02 (마)에서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는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권'에 대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바)의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다)의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 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마)의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된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03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을 인용하여 소유의 개념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과에 의한 논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는 것이 생명체일 경우를 원인으로, 그에 따라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통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살아 있는 대상과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소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⑤ 예시는 들고 있지 않다.

04 (라)에서 글쓴이는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반론이 나온다. ~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⑤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현실적 목적을 지닌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에서 알 수 있다.

05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터 싱어의 관점에서 육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라고 했다. ② 무생물인 대상이 소유의 관계를 맺어 '물건'이 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생명이 소유의 관계를 맺으면서 '물건'처럼 취급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③ 마트나 펫 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은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으로,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에 해당한다. ④ 과거에는 오늘날과 달리 동물을 식량이나 노동력의 수단으로 사고팔았다.

06 '간과'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이라는 의미이다.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이라는 뜻의 단어는 '추정'이다.

07 '반려'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으로, 동물을 인간과 대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생명을 지닌 주체로 여길 때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①~④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해당한다.

08 [C]는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재반박함으로써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육류 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낳는다."에서 알 수 있다. ② [B]는 〈푸드 주식회사〉라는 기록 영화를 예로 들어 [A]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그런 현상의 대부분은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잘못된 생각'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 차별주의에 해당한다. ⑤ [E]는 기사문으로, '펫 숍 규제'라는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다.

09 글쓴이는 육류 산업이 동물을 음식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낳으므로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육식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육류 섭취를 위해 동물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관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가 육식을 비만·당뇨·콜레스테롤 혈증·성인병 등의 각종 현대적 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과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③ 육식을 반대하는 글쓴이의 관점과 달리 육식을 찬성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보는 것과 달리 식물성 식품을 지구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10 글쓴이는 육식이 현대인의 질병뿐 아니라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동물 문제가 별개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③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 ~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낳는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자금과 같은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11 ⓑ는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 목적에 의한 육식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의 제외 대상은 '식량 동물'이다. ③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으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④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이 행해진다. ⑤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받아들여 그에 대한 존엄성과 책임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기견 보호소 입양의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다.

12 (나)는 기사문으로 펫 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펫 숍에서 판매되는 반려견과 반려묘들이 불법 번식으로 유통되었다는 현실을 지각하고, 펫 숍에서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③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 해외의 사례를 들고 있다. ⑤ '○ 의원이 농림 축산 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 구역별 동물 판매업 영업 실적에 따르면 ~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동물의 40.3퍼센트는 불법 번식 유통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에서 알 수 있다.

13 ㉮는 펫 숍에 대한 별다른 정보 없이 설문을 제시하여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파는 부적절한 판매 업장이다.'라는 응답과 '일반적인 반려동물 가게일 뿐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펫 숍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는 '태어난 동물이 경매장을 통해 펫 숍에 공급되며, 팔리지 않은 동물은 다시 번식장으로 보내지거나 식용견이 됩니다.'라는 정보를 제시하자 응답자의 대다수인 91%가 펫 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매체 자료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나)에 제시된 '행정 구역별 동물 판매업 영업 실적'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그래프로, (나)를 뒷받침할 수 있다. ② ㉯는 펫 숍이 부적절한 판매 업장이라고 답한 응답이 51.5퍼센트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과 큰 차이가 없지만, ㉰는 91퍼센트가 펫 숍을 통한 동물 거래가 동물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보다는 ㉰가 (나)의 관점을 보완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③ ㉯는 태어난 동물이 경매장을 통해 펫 숍에 공급된다는 점을 질문에 제시하여 펫 숍에 대한 부정적 응답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와 같이 펫 숍에 대한 부정적 응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접할 때에는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14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는 다른 절차와는 달리 반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한다.

오답 해설 ①~③ "교실에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에 대한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④ (나)는 찬성 측 입론, (다)와 (라)는 반대 측 입론, (마)는 반대 측 반론에 해당한다.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는 입론이 끝나면 상대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진다.

15 시시 티브이 설치 비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학내 갈등을 중재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시 티브이 설치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입증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실 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시 티브이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을 의미하며"에서 알 수 있다. ② "언론을 통해 집단 따돌림과 폭력 사건 등의 문제가 교실 안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 또한 가해자도 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인 경우가 45.8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입증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실 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16 시시 티브이가 범죄 예방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교실 내 시시 티브이 설치 반대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다)의 "교실이 학교 폭력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반대 1의 입론에서 알 수 있다. ② (마)의 "학내 여러 곳에 설치된 시시 티브이를 피해 사각지대에서만 반복적으로 폭력을 입은 학생의 사례가 뒤늦게 보도된 것처럼 최신형 시시 티브이에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라는 반대 1의 반론에서 알 수 있다. ③ (다)의 "언어폭력은 습관성 욕설과 비속어 등으로 나타나는데, 시시 티브이에는 녹음 기능이 없으므로 이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라는 반대 1의 입론에서 알 수 있다. ⑤ (라)의 "이미 2012년에 국가 인권 위원회는 교실 내 시시 티브이가 초상권과 사생활권,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반대 2의 입론에서 알 수 있다.

17 사회자는 토론이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교실에 시시 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소개하고, 찬성 1의 입론을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로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② (가)의 "최근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실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 흔히 말하는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에 토론의 배경이 나타나 있다. ③ "반대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와 같이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⑤ "양측 토론자는 규칙을 지키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토론의 형식과 절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18 ③은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 측이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찬성 1이 심각한 문제인 교실 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찬성 1이 적은 비용으로 입증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실 내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다. ④ (다)에서 반대 1이 시시 티브이에는 녹음 기능이 없으므로 언어폭력을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찬성 측의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다. ⑤ (라)에서 반대 2가 교실에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도 실시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찬성 측의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다.

19 〈보기〉의 ㉢은 시시 티브이 영상이 악용되거나 유출되기 쉬운 원인에 해당하므로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 ㉣, ㉤은 (라)에서 반대 측이 교실 내 시시 티브이가 초상권과 사생활권,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제4회

본문 254~263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④	06 ⑤	07 ⑤	08 ①
09 ③	10 ③	11 ①	12 ①	13 ④	14 ②	15 ⑤	16 ①
17 ②	18 ④	19 ④	20 ④	21 ④	22 ⑤	23 ③	24 ③
25 ⑤							

01 화자 '나'(흙)와 청자 '너'(뿌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너'(뿌리)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나'(흙)의 희생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인데, 이 글에는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화자 '나'(흙)가 청자 '너'(뿌리)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자가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한 것은 아니다. ③ 점층적인 표현은 시어나 시구의 의미가 점점 강화되고 깊어지는 것인데, 점층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의문의 형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흙이 뿌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뿌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푸른 줄기를 틔워 내는 뿌리와 점차 황폐해져 가는 흙의 모습을 대비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⑤ 흙과 뿌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의 시선 이동이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의 시선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계절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03 [D]의 껍데기는 뿌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준 흙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D]에서 흙은 뿌리에게 마지막 모든 것을 내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을 뿐, 흙이 뿌리와의 이별에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A]의 '아 나의 사랑을'에서는 영탄적 어조로 흙이 뿌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벅찬 감동과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② [B]에서 흙은 뿌리에게 '나를 뚫고 오르렴',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 가려무나'라고 말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뿌리가 성장하도록 하려는 희생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③ [C]에서는 '척추를 휘어 접고 더 넓게 뻗으면'이라는 시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뿌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⑤ [A]와 [E]는 1행에서 각각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04 ⓐ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뿌리를 위해 희생하는 흙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어리석고도'에는 언젠가는 떠날 뿌리를 위해 희생하는 자신에 대한 흙의 인식이, '은밀한 기쁨'에는 그러한 희생이 흙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뿌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④의 '찬란한 슬픔의 봄'에서도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란이 피었을 때의 환희('찬란한')와 모란이 지고 난 후의 설움('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생기 넘치는 아이들의 얼굴을 '불타는 해바라기'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직유법) ②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와 같이 시구의 의미를 점점 강화하여 표현하고 있다.(점층법) ③ 사람이 아닌 '흰밥'과 '가자미'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의인법) ⑤ 무생물인 '실개천'에 인격을 부여하여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의인법)

05 ⓔ의 '벌레들'은 흙이 뿌리에게 줄 수 있는 영양분과 사랑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② 〈보기〉에 따르면, 흙은 자신을 희생하여 뿌리를 성장시키고 늙어 간다. ㉠의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은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성장시키는 근원을, ㉡의 '나의 뿌리'는 흙이 내어 주는 생명의 힘으로 자라나는 자연물을 대변한다. ③ 〈보기〉에 따르면, 뿌리를 키워 낸 흙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키워 낼 수 있는 연한 흙이 되기 위해 일구어진다. 이를 고려할 때 ㉢의 '껍데기'는 다시 연한 흙이 되기 위해 일구어지기 전의 상태이다. ⑤ 〈보기〉에 따르면, 연했던 흙이 단단해지다가 껍데기만 남게 되고 다시 연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자연의 재생과 생태계의 순환을 표현한다. 이를 고려할 때 ㉤의 '연한 흙'은 순환의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대상이다.

06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출산이 임박해 옴에도 해산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권 씨네를 '나'가 걱정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을 뿐, '나'가 권 씨에 대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부분이나 이를 못마땅해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권 씨가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 '나'의 학교로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② "자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에서 '나'는 경제적 처지를 앞세워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③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뒤 자신이 권 씨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은 '나'는 수술비를 마련하여 원 산부인과로 가서 권 씨 부인이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④ '끼니조차 감당 못 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가에 빚을 갚을 것인가.'에서 권 씨가 변변한 일자리 없이 궁핍하게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서술자인 '나'는 중심인물인 권 씨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선악의 대립 구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하나의 사건을 서술자인 '나'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④ 공간적 배경은 '나'의 학교 앞과 원 산부인과인데, 이러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권 씨는 산모와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자존심을 버리고 '나'에게 수술비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오 선생, 이래뵈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에서 권 씨는 자신이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임을 밝히며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마음속 이야기를 토로한 것은 아니며, 상대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도 아니다. ③ 자신이 지식인임을 밝힌 것은 맞지만, 이것이 상대의 동질감을 유발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④, ⑤ 자신의 권위나 능력을 내세운 것이 아니며, ㉠은 부탁을 거절당한 뒤 단념하고 돌아가며 한 말이므로, 상대가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하거나 자신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09 〈보기〉에 따르면, 이 글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나'의 아내가 권 씨네를 걱정하는 모습을 공동체적 유대감의 회복과 관련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권 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다가 시위 주동자로 몰려 전과자로 전락한 후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다. 〈보기〉에 나타난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을 때, 권 씨는 산업화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소외 계층으로 전락한 소시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부인의 수술비를 빌리러 다니는 권 씨는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의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나'는 권 씨의 상황에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임을 염려하며 망설이다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다. 〈보기〉에 나타난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을 때, '나'의 이러한 모습은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산모와 아이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수술 보증금을 받은 뒤에야 수술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원장은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비정한 인물이다. 또한 보증금을 대신 낸 '나'가 권 씨의 셋방 주인일 뿐임을 알고 허를 차는 모습에서 원장의 이해타산적인 면모가 나타난다. 원장의 이러한 모습에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당시 세태를 엿볼 수 있다.

10 '구두'는, 현재는 변변한 일자리 없이 궁핍하게 살아가는 소외 계층으로 전락한 처지에 있지만 지식인으로서의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잘 닦인 일곱 중에서 비어 있는 하나'는 행방불명된 권 씨를 상징하는 것으로, '구두'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권 씨의 행방을 암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물이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인물의 겉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액자식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러한 구성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되고 있지 않다.

11 일인칭 관찰사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권 씨의 행동과 내면을 자신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서술자 '나'는 중심인물인 권 씨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③ 서술자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에 있는 '나'이다.

12 '나'는 자신이 강도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권 씨가 모른 채 돌아가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나'가 강도로서 어설픈 모습을 보이는 권 씨를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며 비웃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권 씨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음을 알고 자존심이 무너져 방에서 나간 것이다.

오답 해설 ②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나'의 말에 권 씨가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권 씨는 아내가 셋째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③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체를 숨긴 채 '나'의 방에 들어와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④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에서 강도의 정체를 모른 척한 '나'의 행동이 오히려 권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무의식적으로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던 권 씨는 "대문은 저쪽입니다."라는 '나'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느닷없이 자신의 학력을 밝히고는 행방불명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에서 '나'는 권 씨에게 대문의 방향을 알려 준 행동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던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음을 생각하며 신경 쓰고 있다.

13 ㉣에서 권 씨는 자신의 학력을 밝히며 무너져 내린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키고자 하고 있다. 권 씨는 정체를 숨기고 싶어 했으나 '나'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음을 알고 대문을 나선 것이므로, ㉣에서 권 씨가 자신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서 '나'는 강도의 어설픈 행동을 보며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만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강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 있는 모습에서 '나'가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눈치챘음을 알 수 있다. ② '나'가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라고 말하자, 권 씨는 ㉡과 같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음을 깨닫고 분해하며 강도 행각을 멈추고 방을 나갔다. ③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나'의 말에 ㉢에서 권 씨는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권 씨가 이웃에게 어려운 사정을 외면당한 경험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일과 관련된다. ⑤ ㉤의 '한 켤레의 그 구두'는 행방불명된 권 씨를 의미하는 소재로, '나'가 '한 켤레의 그 구두가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깨달았다는 점에서, '나'가 권 씨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의 '불현듯'은 '불을 켜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을 의미한다. '뜻하지 아니한 때'는 '불시'의 의미이다.

15 〈보기〉의 서술자 '나'는 권 씨로, 〈보기〉는 일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A]와 비교할 때, 〈보기〉에서는 중심인물인 권 씨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권 씨의 심리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와 〈보기〉 모두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A]와 〈보기〉 모두 서술자는 일인칭인 '나'이지만, [A]의 '나'는 오 선생이고 〈보기〉의 '나'는 권 씨로 차이가 있다. ③ [A]와 〈보기〉 모두 과거 시제로 서술되고 있다. ④ [A]와 달리 〈보기〉의 서술자 '나'는 권 씨이므로, 〈보기〉에서 '그(오 선생)'의 시점이 부각된다고 볼 수 없다.

16 (다)에서 '짧은 암전'으로 조명에 변화를 주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뿐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③ '옥수수차', '삼각김밥', '초콜릿'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품을 활용하여 사실감과 흥미를 높이고 있다. ④ 누구나 한 번쯤 가 봤을 법한 친숙한 장소인 편의점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독자의 몰입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등장인물 인경이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구상한 작품의 내용과 극의 공간적 배경인 편의점에서 일어난 극 중 현실을 중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17 (다)로 보아 독고는 알코올성 치매로 서울역에서 노숙하기 전의 기억을 잃었으므로,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독고는 선숙에게 아들이 왜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들어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③ (가)에서 선숙은 회사를 그만두고 방에서 게임만 하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독고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④ (나)에서 인경이 독고와 나눈 대화를 메모하며 글쓰기를 할 힘이 났다고 말하는 부분과, (다)에서 김 대표에게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구상한 작품의 내용을 말하는 부분으로 보아, 인경이 독고와의 대화를 계기로 자신만의 작품을 써 보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경만은 독고에게 힘들게 돈 버는 아빠를 배려하여 1+1 초콜릿을 사는 두 딸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며 눈물짓고 있다.

18 방백은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이다. (다)에서 인경과 김 대표는 통화를 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므로, 두 인물의 대사를 방백으로 처리해 달라는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독고는 알코올성 치매로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인물로, 대사에서는 말줄임표를 활용하여 이러한 인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말줄임표에 유의하여 대사를 띄엄띄엄 천천히 말해 달라는 지시는 적절하다. ② (나)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지시문 '경만, 차마 독고를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짓는다. 이때 딸랑. 인경 들어온다.'로 보아 적절한 지시이다. ③ (가)에서 독고와 선숙은 일터인 편의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지시문에 퇴근하기 위해 창고에 들어간 독고가 선숙이 우는 것을 알고 서둘러 나온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적절한 지시이다. ⑤ (다)에서 인경이 편의점 밖에서 독고를 관찰하며 김 대표와 통화하고 있다는 점과, 인경의 마지막 대사에 나타난 지시문 '야외 탁자에 앉는다.'를 고려할 때, 적절한 지시이다.

19 ㉤의 '짧은 암전' 이후 시간이 다음 날로 바뀌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은 극 중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 이전과 이후 모두 극의 공간적 배경은 편의점으로 동일하다.

오답 해설 ① ㉠에서 독고는 선숙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고 윽박지른 이유를 헤아려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에서 독고의 사려 깊은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② ㉡에서 독고는 선숙에게 편지와 같이 아들에게 주라며 삼각김밥을 건네고 있다. 선숙이 삼각김밥을 받고 결심한 듯 종이와 펜을 꺼내 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으로 보아, 독고의 이러한 행동은 선숙이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독고는 경만에게 초콜릿을 내밀고 있는데, 이는 경만의 두 딸이 힘들게 돈 버는 아빠를 배려하여 1+1 행사를 할 때에만 구입했던 것이다. 독고는 경만에게 초콜릿을 살 것을 권하며 그의 두 딸의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에는 경만에게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⑤ ㉤ 뒤에 이어지는 독고의 대사로 보아 따뜻한 기억이란 사람들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눈 기억을 말한다. 이런 따뜻한 기억이 별로 없다는 대사로 보아, 독고가 지난 날 타인과 소통하지 않는 단절된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 〈보기〉는 서사 갈래인 소설이고, [A]는 극 갈래인 희곡이다. 소설과 희곡 모두 인물의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지만, 〈보기〉와 [A] 모두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과거 시제로 사건을 서술하는 〈보기〉와 달리, 희곡인 [A]는 무대 위에서 사건을 현재화하여 표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②, ⑤ 〈보기〉에서는 "우와! 우와아!", "독고라고 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 생각을 모두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희곡인 [A]에서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③ [A]에서는 인경이 편의점에서 나갈 때 '딸랑'과 같은 효과음을 활용하고 있다.

21 교술 갈래에 속하는 작품으로, 서술자는 글쓴이 자신이다. 글쓴이의 허구적 대리인인 서술자에 의해 내용이 전개되는 문학 양식 중 대표적인 갈래는 소설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유배지에서 지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② '나'를 외적 조건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현상적 자아와 외적 조건과 유혹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본질적 자아로 나누어 내용을 전개한 부분에서 글쓴이의 개성적 면모가 나타난다. ③, ⑤ 교술 갈래 중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기(記)로, 독자에게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A]에서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천하 만물 중 '나'를 제외하고는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B]에서는 '나'에게 무엇 때문에 여기(유배지)까지 왔는지, 왜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질문을 던지는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B]에서는 글쓴이가 잃어버렸던 본질적 자아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A]와 [B] 모두 가상의 청자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② [A]에서는 천하 만물 중 '나'만은 꼭 지켜야 함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B]에는 감정을 감탄의 형태로 강하게 드러내는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B]에 대상을 의인화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서 '밭', '집', '꽃나무' 등의 일상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천하 만물의 예일 뿐 사실감을 높이는 요소는 아니다. [B]에서 '도깨비', '바다의 신'과 같은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환상적인 느낌을 부여하는 요소가 아니다.

23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에서는 참된 '나'를 잃고 살았던 지난 삶을 성찰하고, 유배를 와서야 참된 '나'를 되찾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글쓴이가 장기에서의 유배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기'에서 큰형님이 서재에 붙인 이름인 '수오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승'에서는 '밭', '집',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 '책', '옷과 양식'과 같은 '천하 만물'은 '나'에게서 완전히 빼앗을 수 없으므로 꼭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가장 잃어버리기 쉬우므로 꼭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④ '전'에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지낸 어린 시절부터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바쁘게 지낸 12년,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고향을 떠나 유배를 와서야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된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⑤ '결'에서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라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4 ㉠의 '나'는 외적 조건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현상적 자아'를, ㉡의 '나'는 외적 조건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본질적 자아'를 가리킨다. '본질적 자아'는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로, 글쓴이는 '본질적 자아(참된 자아)'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허투루 간수하다가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는 본질적 자아를 가리키는 ㉡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과거 공부, 관직 생활과 같은 현실적인 삶에 매몰되어 ㉡(본질적 자아)을 잃은 채 지내다가 유배지에 와서 본질적 자아를 되찾게 되었다. ② 글쓴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외적 유혹에도 중심과 주관을 잃지 않는 ㉡(본질적 자아)이다. ④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둘째 형님 역시 ㉡(본질적 자아)을 잃고 남해의 섬으로 내려간 뒤에야 ㉡을 붙잡아 그곳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이와 달리 큰형님은 ㉡을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신다고 했으므로, 큰형님은 ㉡을 지킨 인물이다.

2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표현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는 작가의 경험과 관련하여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진술한 내용이므로, 표현론적 관점에서 감상한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③ 효용론적 관점에서 감상한 내용이다. ②, ④ 내재적 관점에서 감상한 내용이다.

제5회

본문 264~269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④	07 ⑤	08 ⑤
09 ②	10 ⑤	11 ②	12 ④	13 ⑤	14 ④	15 ⑤	16 ②

01 '예증적'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실제의 보기를 들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부분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낯선 곳에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헤맨 글쓴이의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②, ③ 글쓴이는 다양한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방황과 실패의 시간을 거칠 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고, 이러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나갈 것을 당부하며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④ '성찰적'은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글쓴이가 자신의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성찰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02 글쓴이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일반화하여 역사적 사실로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튀르키예', '테키르다', '이스탄불'과 같은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여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②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로 내용을 전개하여 독자가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④ (가)에서 글쓴이의 일화를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⑤ (다)의 '인생을 마라토너가 아니라 탐험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기대합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방황과 실패를 거치며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찾아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03 (다)에서 글쓴이는 '지도를 그리는 빠른 방법이란 없'다고 말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도를 그리기 위한 '방황의 시간'을 젊은이들에게서 박탈하고 있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다)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간만이 온전한 지도를 만들어 줍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나)의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인 줄 착각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젊은 시절에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지 못하면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남의 지도를 기웃거리게 된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지 못한 채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여 타인의 욕망을 좇는 삶을 의미한다.

04 (나)에서 글쓴이는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인 줄 착각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방황의 시간을 박탈당한 채 남들이 뭘 하는지 보고 남들이 가는 데로 우르르 몰려가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글쓴이는 방황과 실패의 과정을 거치며 자신만의 지도를 그릴 것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④는 자신만의 지도를 그릴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나)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도 위 어디에 있는지'에서 알 수 있다.

05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리는 마라토너와 달리, 탐험가는 다양한 것을 체험하며 세상을 탐험한다. 글쓴이는 ㉠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해진 코스를 달리는 삶보다는 방황과 실패를 거치며 다양한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찾아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③ 탐험가가 아닌 마라토너의 마음에 해당한다. ④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06 (가)의 '이스탄불에 내려서 차를 빌리고, 태어나서 처음 가 보는 테키르다라는 곳으로 지도를 옆에 끼고 출발했습니다.'로 보아, 글쓴이는 테키르다 지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④는 글쓴이가 테키르다에서 길을 잃고 헤맨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③ (가)의 1~4문단에 학회 장소를 찾기 위해 테키르다 구석구석을 헤맨 글쓴이의 경험이 나타나 있다. ②, ⑤ (가)의 5문단에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맨 경험 덕분에 테키르다의 좋은 곳을 모두 즐길 수 있었다는 글쓴이의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07 (가)의 글쓴이는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은 부족한가?',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이 부족해진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공익 광고인 (나) 역시 화면에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자막을 제시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설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가)와 (나)에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공간적 순서에 따른 내용 전개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 또는 좌우 등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등장인물에 따라 공간을 바꿔 가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공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가)는 공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8 (가)에서 글쓴이는 '나와 타자가 속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부족이 문제라면, 단순히 독서량을 늘여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성향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다방면의 독서를 통해 상대방의 발화 맥락을 이해하고 상상하는 능력인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진술은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온라인상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상대를 공격하고 일방적으로 규정짓는 문화에 길들여지면 문해력 그 이상의 총체적인 이해력을 갉아먹으며 우리 사회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② '반면에 타인의 의도와 발화의 맥락을 고려하는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에서는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문해력의 핵심은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이 받아들이고 상상하며 이해하는 능력에 있다. 하지만 이분법적 문화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문해력의 핵심이 사실상 간과된다.'에서 알 수 있다. ④ '한국 교육 방송 공사(EBS) 〈당신의 문해력〉이 방영된 이후로 사회 전반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에서 알 수 있다.

09 (가)는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은 부족한가?',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이 부족해진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글쓴이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4문단에서는 두 번째 쟁점인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이 부족해진 원인'으로 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영향을 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쟁점인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은 부족한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2~3문단에 나타나 있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문해력 부족이 문제라면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성향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을 뿐, (가)에서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에 대한 견해를 고려할 때에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④ 3문단에서 청소년 간의 문해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한국 청소년 간의 문해력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에 대한 견해를 고려할 때에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⑤ (가)는 나와 타자가 속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의 부족이 우리 사회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에 대한 견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며, (가)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견이 갈리는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도 않다.

10 (가)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로, 해당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글을 쓸 때에는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지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가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②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③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글을 쓸 때에는 견해와 관련된 예상 독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④ 견해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 서적, 논문, 신문 등과 같이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11 (나)는 문자, 소리, 음성,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영상 매체인 공익 광고이다. 생산자와 수용자가 동시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나)는 기업이나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한 공익 광고이다. ③, ⑤ (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12 분류란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내용 전개 방법으로, (가)에는 분류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가)는 문해력이 부족한 사회와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문해력 부족에 따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문해력에 대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문장을 이해, 평가, 사용함으로써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에서, 글에서 다룰 핵심 내용인 문해력의 개념을 정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문해력에 대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문장을 이해, 평가, 사용함으로써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와 '실제로 2018년에 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실시한 평가 결과를 보면 회원국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수준은 높은 편이다.'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경제 협력 기구의 정의와 평가 결과를 인용하여 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③ 5문단과 6문단에서 원인과 결과의 구조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집단 갈등, 혐오, 차별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3 사회적 쟁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⑤는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갈려 충돌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사회적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④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갈려 충돌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쟁점에 해당한다.

14 매체 자료가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는지는 완성한 매체 자료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오답 해설 ① 매체 자료 제작 계획을 세울 때에는 매체 자료의 주제를 정해야 한다. ② 매체 자료 제작 계획을 세울 때에는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 등 생산자가 수용자와 소통하려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⑤ 매체의 특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내용을 전달할 매체(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등)와 매체 자료의 종류(종이 신문, 포스터,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광고, 노래, 영화, 카드 뉴스, 웹툰 등)를 선정해야 한다.

15 이웃 간의 배려와 양보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제를 표현한 매체 자료로,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두 번째 이미지와 세 번째 이미지에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다섯 번째 이미지에서 '공동 주택에서 살다 보면 피해 갈 수 없는 층간 소음 문제,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라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내용과 관련된 그림,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④ 특정 문구의 글자 크기와 색을 달리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16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제를 전하고 있는 매체 자료임을 고려할 때, 정서 표현이 아니라 설득과 정보 전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카드 뉴스의 제목과 내용으로 보아, 이웃 간의 배려와 양보를 통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제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이 매체 자료는 특정한 사안이나 소식을 간결한 텍스트와 이미지로 제시한 카드 뉴스(매체 자료 종류)로, 인터넷 매체(매체)를 통해 제공된다.

문법 익힘북

01 음운 변동 1 _ 교체

본문 272~273쪽

01 ㄷ 02 ㄱ, ㄷ, ㅂ 03 유음화 04 예사소리 05 ㅈ, ㅊ 06 형식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없다 16 비음화, 방법 17 유음화, 역행 18 뒤 19 구개음화 20 비음화 2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22 유음화 23 실질 24 (1) [바치] (2) 구개음화 25 ② 26 ⑤ 27 ⑤ 28 ④ 29 ④

07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교체가 일어나도 음운의 수에는 변동이 없다.

08 유음화는 'ㄹ'의 위치에 따라 순행 동화(예 칼날[칼랄])와 역행 동화(예 신라[실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09 '난로[날:로]', '천리[철리]'는 'ㄴ'이 유음 'ㄹ'의 앞에서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10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ㅈ'도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난다.(예 절도[절또])

12 '갈등[갈뜽]', '멸시[멸씨]', '발전[발쩐]'과 같이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결합되는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20 '국민'은 [궁민]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21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바뀌어 [압니]가 되었다가,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변하여 [암니]가 된다. 따라서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22 '천리[철리], 신라[실라], 광한루[광:할루]'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고, '물난리[물랄리]'는 '난'의 'ㄴ' 2개가 앞과 뒤에 있는 'ㄹ'의 영향을 받아 모두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23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일어나므로, '밭 + 일 → 밭일[반닐]'과 같이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는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4 '밭이'는 실질 형태소('밭')와 형식 형태소('이')가 이어지므로 'ㅣ' 앞의 'ㅌ'이 [ㅊ]으로 바뀌어 [바치]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25 '꽃을'은 받침 'ㅊ'이 연음되어 [꼬츨]로 발음될 뿐 음운이 교체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가 일어난다. ③ '꽃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만]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꼰만]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 → [ㄴ])가 일어난다. ④ '꽃발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발침]이 되었다가 된소리되기에 따라 [꼳빨침]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 / ㅂ → [ㅃ])가 일어난다. ⑤ '꽃꽂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꽃'이 [꼳]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가 일어난다. 이후 '꽂이'의 받침 'ㅈ'이 연음되어 [꼳꼬지]로 발음된다.

26 '맑다[막따]'는 자음군 단순화(ㄺ → [ㄱ])와 된소리되기(ㄷ → [ㄸ])가 일어난다.

27 '넘기다'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삼고[삼:꼬]'와 같이 'ㅁ'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사동 접미사나 피동 접미사가 오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넘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④ '더듬다[더듬따]'와 '신기개[신:끼개]'는 어간이 각각 'ㅁ'과 'ㄴ'으로 끝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값도[갑또]'는 앞말의 받침이 'ㅄ'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③ '닭과[닥꽈]'는 앞말의 받침이 'ㄺ'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28 '미닫이[미다지]'는 받침 'ㄷ'이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 'ㅣ'의 영향을 받아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홑이불[혼니불]'은 형식 형태소('홑-') 뒤에 실질 형태소('이불')가 결합한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굳히다[구치다]'는 'ㅌ(ㄷ + ㅎ)'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③ '밥솥이[밥소치]'와 '밭입니다[바침니다]'는 'ㅌ'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맏이[마지]'는 'ㄷ'이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29 '생산량[생산냥]'은 'ㄹ'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밭이[바치]: 구개음화 ② 덮개[덥개 → 덥깨]: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③ 겉옷음[걷우슴 → 거두슴]: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⑤ 줄넘기[줄럼기 → 줄럼끼]: 유음화, 된소리되기

02 음운 변동 2 _ 탈락/첨가/축약 본문 274~275쪽

01 축약, 첨가 02 거센소리되기 03 파생어 04 ㅎ 05 탈락 06 ㅣ 07 ㅌ 08 × 09 × 10 ○ 11 × 12 ○ 13 ○ 14 초성 15 값싸다 16 두 17 — 18 줄어든다 19 축약 20 거센소리되기 21 ㄴ 22 (1) [색년필] → [생년필] (2) 첨가 → 교체 23 (1) [바파고] (2) 거센소리되기(축약) 24 (1) ㉠, ㉣ (2) ㉡, ㉢ 25 ④ 26 ② 27 ② 28 ① 29 ⑤ 30 ③ 31 ③

06 가랑잎: [가랑입(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 가랑닙('ㄴ' 첨가 – 첨가)]

08 '담그– + –아 → 담가'와 같이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09 어간의 끝소리 자음 'ㄹ'은 몇몇 어미 앞에서만 탈락한다.

10 서른여덟: [서른녀덟('ㄴ' 첨가) → 서른녀덜(자음군 단순화)]

11 '좋아[조:아]'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만나 탈락한다. 또한 '좋고[조:코]'의 'ㅎ'은 뒤에 오는 'ㄱ'과 만나 [ㅋ]으로 축약된다.

12 급행열차: [그팽열차(거센소리되기 – 축약) → 그팽녈차('ㄴ' 첨가 – 첨가)]

15 '흙까지[흑까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다. '값싸다' 또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갑싸다]로 발음된다. 반면 '잡히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자피다]로 발음된다.

16 '흙하고[흐카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고([흙하고 → 흑하고]),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므로([흑하고 → 흐카고])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어든다.

17 '고프– + –아서 → 고파서'에서는 '_' 탈락이 일어난다.

18 '서– + –어서 → 서서'는 'ㅓ'가 탈락한 것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19 '널따랗다'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널따라타]로 발음된다.

20 '좋지'는 'ㅎ'과 'ㅈ'이 만나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1 '담요'는 'ㄴ'이 첨가되어 [담:뇨]로 발음된다.

22 색연필: [색년필('ㄴ' 첨가 – 첨가) → 생년필(비음화 – 교체)]

23 '밥하고'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어 [바파고]로 발음되는데, 이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24 (1) ㉠과 ㉣은 모두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 것이다. (2) ㉡은 'ㅎ' 탈락이, ㉢은 'ㅏ'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25 '크– + –어서 → 커서'는 어간의 모음 '_'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싫다[실타]'는 자음 축약(ㅎ + ㄷ → [ㅌ])에 해당한다. ② '놓은[노은]'은 자음('ㅎ') 탈락에 해당한다. ③ '울– + –는 → 우는'은 자음('ㄹ') 탈락에 해당한다. ⑤ '건너– + –었다 → 건넜다'는 모음('ㅓ') 탈락에 해당한다.

26 '실학'은 표기 그대로 [실학]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목화[모콰] ③ 끊기다[끈키다] ④ 밥하다[바파다] ⑤ 빨갛다[빨:가타]

27 '따르– + –면서 → 따르면서'에서는 '_'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담그– + –았– + –다 → 담갔다 ③ 아프– + –아서 → 아파서 ④ 모으– + –아라 → 모아라 ⑤ 예쁘– + –어서 → 예뻐서

28 '눈요기'의 발음은 [눈뇨기]로, 'ㄴ'이 첨가되었다.

오답 해설 ② 막히면[마키면]: ㄱ + ㅎ → ㅋ – 축약(거센소리되기) ③ 물난리[물랄리]: ㄹ + ㄴ → ㄹ + ㄹ / ㄴ + ㄹ → ㄹ + ㄹ – 교체(유음화) ④ 벚나무[벋나무 → 번나무]: ㅈ → ㄷ –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ㄷ + ㄴ → ㄴ + ㄴ – 교체(비음화) ⑤ 넣어서[너어서]: 탈락('ㅎ' 탈락)

29 〈보기〉에서는 'ㅎ' 탈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좋아요[조:아요]'에서도 'ㅎ'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좁히다[조피다]', '그렇죠[그러쵸]', '하얗다[하:야타]'는 'ㅎ'과 'ㅂ', 'ㅈ', 'ㄷ'이 만나 각각 [ㅍ], [ㅊ],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놓는다[논는다 → 논는다]'는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되었다가 비음화에 의해 다시 [ㄴ]으로 교체된 것이다.

30 '입학[이팍]'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축하[추카]'에서도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설날[설랄]'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②, ④ '국수[국쑤]', '역전[역쩐]'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여덟[여덜]'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31 '잃– + –어서 → 잃어서[이러서]'는 'ㅎ'이 탈락한 것으로, 음운의 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놓고[노코]'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 것이다. ②, ④ '숱하다[숟하다 → 수타다]'와 '파랗다[파:라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것이다. ⑤ '닫히는[다티는 → 다치는]'은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03 문장 표현 1 _ 높임 표현 본문 276~277쪽

01 주체 02 부사어 03 상대 04 드릴(드리다) 05 뵙고 06 상대 07 ○ 08 × 09 ○ 10 ○ 11 × 12 ○ 13 선어말 어미 14 께 15 주체 16 어머니 17 상대 18 계시면 → 있으시면 19 ㉠: 아버지, ㉡: 께, 드리다, ㉢: -어요 20 ㉠: ⓒ, ㉡: ⓑ 21 물어봐 → 여쭤봐 22 ② 23 ③ 24 ④ 25 ⑤ 26 ③

08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다.

11 '드리다', '모시다'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16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합니다.'는 '-ㅂ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17 '동생이 밥을 먹습니다.'에는 '-습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18 '궁금한 점'은 직접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 〈보기〉에서 서술어 '가시었어요'의 주체는 '아버지'(㉠)이고, '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서', '-시-'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객체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 '드리다'(㉡)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한편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은 '어머니'이고, '어머니'에 대한 높임은 종결 표현 '-어요'(㉢)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20 ㉠: ⓒ는 주체(어머니)를 높이고('께서', '-시-')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 ⓑ는 객체(할아버지)를 높이고('께', '드리다')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는 상대를 높여('-어요') 표현하였다.

21 선유의 마지막 말 중 객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물어보다' 대신 특수 어휘 '여쭤보다'를 사용해야 한다.

22 '교수님'의 소유물인 '책'을 높임으로써 높여야 할 대상인 '교수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다.

23 '께'와 '드리다'를 통해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께서'와 '댁',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며, '-ㅂ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② '-어요'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④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며, '-시-'를 사용하여 '할아버지'의 눈을 높임으로써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ㅂ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⑤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24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25 ⓔ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로,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큰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26 '잡수시다'는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고, '연세'는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 높여야 할 인물(그분)과 관련된 것(성함)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다. ②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여쭈다)가 사용되었으며,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댁)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다. ④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특수 어휘(모시다)가 사용되었다. ⑤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 '주무시다'가 사용되었다.

04 문장 표현 2 _ 시간 표현 본문 278~279쪽

01 발화시 02 형용사 03 -겠- 04 과거 05 추측 06 진행상 07 ○ 08 × 09 ○ 10 ○ 11 × 12 × 13 발화시, 사건시 14 앞서 있는, 나중인 15 동사 16 진행상 17 회상 18 완료상 19 알맞는 → 알맞은 20 ⓑ 21 ㉠ 22 ㉠, ㉤ 23 ③ 24 ⑤ 25 ③ 26 ③ 27 ②

08 동사는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11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무척 재미있다.'에서 '들은'은 동사 어간 '듣-'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붙여 과거를 나타낸 것이다.

12 '그는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19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야 한다.

20 ⓑ에 사용된 '-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감기에 걸림.)의 결과 상태(목이 잠겨 있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아직도')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 ⓓ: '소풍날',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았-'은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는 예에 해당한다. ⓒ: '-았-'은 과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예에 해당한다.

21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의 '-겠-'은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22 ㉠의 '먹어 간다', ㉤의 '사용하고 있다'에는 진행상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의 '가 있다'와 ㉢의 '써 버렸다'에는 완료상이 드러난다.

23 '-더-'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① '-겠-'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② '-라-'는 미래를 나타낸다. ④ '-ㄹ 것'은 의지를 나타낸다. ⑤ '-었었-'은 단절된 과거를 나타낸다.

24 '빠른'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로, 형용사 어간 '빠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사 어간 '쓰-'에 관형사형 어미 '-던'을 붙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형용사 어간 '귀엽-'에 관형사형 어미 '-더-'를 붙여 과거 시제(회상)를 나타내고 있다. ③ 형용사 어간 '조용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동사 어간 '바치-'에 선어말 어미 '-리-'를 붙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25 '익어 간다'는 '-어 가다'를 사용하여 곡식이 익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오답 해설 ①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이미 소문이 퍼졌음을 나타낸 완료상이다. ② '-고 있다'를 사용하여 발레 학원에 다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④ '-고 있다'를 사용하여 눈발이 날리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⑤ '-어 있다'를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인 사건이 완결되어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한 완료상이다.

26 ㉢의 '산'은 동사 어간 '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의 '-고 있다'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② ㉡의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 ④ ㉣의 '-어 버리다'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다. ⑤ ㉤은 동사 어간 '공부하-'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붙어 미래 시제를 나타낸 것으로,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27 ②는 넥타이를 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넥타이를 매는 동작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을 붙여, 형이 과거에 양치질을 하는 동작을 진행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③ '-고 있-'을 통해 안경을 벗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안경을 벗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고 있-'을 통해 그가 연말에 기부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기부하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고 있-'을 통해 누나의 생일이 내일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아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05 문장 표현 3 _ 피동 표현/인용 표현 본문 280~281쪽

01 피동문 02 부사어 03 목적어 04 -되다 05 따옴표 06 간접 07 × 08 × 09 ○ 10 × 11 ○ 12 ○ 13 강조하기 14 라고 15 간접 16 -하- 17 어제는 18 친구가 벌에게 쏘였다. 19 소녀는 나에게 내가 정말 친절하다고 하였다. 20 ㉣, ㉥ 21 ④ 22 ④ 23 ⑤ 24 ① 25 ④ 26 ② 27 ⑤

07 '-우-, -구-, -추-'는 사동 접미사이다.

08 용언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이면 사동 표현이 된다.

10 '달였다'는 '달이- + -었- + -다'로 분석된다. 즉, 피동 접미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11 '믿겨지다'는 피동사 '믿기다'에 '-어지다'가 중복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18 능동문의 목적어('친구를')를 피동문의 주어('친구가')로 바꾸고, 능동문의 주어('벌이')를 피동문의 부사어('벌에게')로 바꾼다. 그리고 피동 접미사 '-이-'를 활용하여 서술어를 '쏘였다'로 만든다.

19 "당신은 정말 친절하세요."에서 '당신은'을 '내가'로 바꾸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20 ㉣: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은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인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 '계십시오'는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간접 인용하게 되면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없으므로, 서술어를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있으라고'로 바뀌어야 한다. → 아들이 어제 저에게 오늘 사무실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21 '나누어집니다'는 '나누-'에 '-어지다'를 붙이는 통사적 피동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예상되어진다'는 피동을 표현하는 '-되다'와 '-어지다'가 같이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예상된다'로 고쳐야 한다. ② '닫혀졌는지'는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함께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닫혔는지'나 '닫아졌는지'로 고쳐야 한다. ③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능동 표현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므로, '그가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⑤ '말썽이 빚어지고'는 번역 투의 표현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말썽을 빚고'로 고쳐야 한다.

22 '태풍에 건물이 흔들리다.'는 건물이라는 주체가 태풍에 의해 흔들림을 당하는 것을 표현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당기다'는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당기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② '감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로, '감기다'는 사동 표현이다. ③ '놀리다'는 '짓궂게 굴거나 흉을 보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놀리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⑤ '숙이다'의 '-이-'는 사동 접미사로, '숙이다'는 사동 표현이다.

23 인용 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 직접 인용할 때에는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② 인용 표현은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구분한다. ③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것은 조사 '고'이다. ④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는 것은 직접 인용이다.

24 ①은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 속에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인용 표현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네 친구를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③ '함께 영화를 보자.'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④ "곧 새로운 사랑이 올 거야."가 직접 인용된 문장이다. ⑤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25 '듣다'는 '들리다(듣- + -리- + -다)'라는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칭찬이 부모님에 의해 동생에게 들렸다.'는 어색한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①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② '물이 사람들에 의해 뽑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③ '문이 누나에 의해 세게 닫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⑤ '탁자 위에 있는 유리병이 그에 의해 깨졌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26 ㉠을 ㉡으로 바꾸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인 '제가'가 생략된다. ㉠의 목적어는 ㉡에서 주어가 된다.

오답 해설 ①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③ '깨- + -었- + -어요'에 '-어지-'가 결합하여 '깨- + -어지- + -었- + -어요'라는 피동 표현이 된다. ④ ㉠은 주어를 통해 화분을 깬 주체를 밝히고 있으나, ㉡에는 화분을 깬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⑤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27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언니가 말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주체인 언니를 다시 가리키는 말인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한편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에는 '남기라고'가 들어가야 한다.

06 국어사 _ 고대 국어/중세 국어/근대 국어 본문 282~283쪽

01 한자 02 ㅇ 03 방점 04 -옴 05 가 06 모음 조화 07 × 08 ○ 09 × 10 ○ 11 × 12 ○ 13 거센소리 14 선어말 어미 15 ㅅ 16 이어 적기 17 근대 국어 18 -기 19 모음 조화 20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21 ① 22 ② 23 ② 24 ④ 25 ⑤ 26 ② 27 ⑤

07 된소리 계열이 생겨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이다.

09 중세 국어 시기에 쓰인 '-이-/-잇-'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숩-/-줍-/-숩-'이 있다.

11 근대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 거듭 적기, 끊어 적기가 섞여서 나타났다.

19 현대 국어의 '서로'를 중세 국어에서 '서르'로 표기한 것은, '서'의 'ㅓ'가 음성 모음이므로 뒤에 오는 모음 역시 음성 모음인 'ㅡ'를 넣어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20 중세 국어에서는 '말ᄊᆞ미', '노미', 'ᄠᅳ들'처럼 이어 적기를 한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말이', '사람이', '뜻을'처럼 끊어 적기를 한다.

21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된 것은 근대 국어 시기부터이다.

오답 해설 ② 현대 국어에 없는 'ㅸ, ㅿ, ㆍ' 등의 음운이 사용되었다. ③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다. ④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방점이 있었다. ⑤ '뿌메'처럼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

22 된소리 계열이 나타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에 해당한다.

23 'ᄡᅳ- + -움 + 에 → 뿌메'는 음성 모음끼리 결합되어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몸'과 '일홈'의 'ㅗ', '하ᄂᆞᆯ'의 'ㆍ'라는 양성 모음에 '을'이라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⑤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 '비릇-'에 '-옴'이라는 양성 모음을 가진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24 ㉣은 이어 적기가 사용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끊어 적기가 사용되었다.

25 'ㅅ'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는 'ᄊᆞᄅᆞ미니라'이다.

오답 해설 ② 'ㅂ'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 ③, ④ 각자 병서

26 '것은'은 '것 + 은'으로, 거듭 적기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깊- + -은'을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③ '심 + 이'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④ 'ᄇᆞᄅᆞᆷ + 애'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⑤ '바ᄅᆞᆯ + 애'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27 '묻ᄌᆞᆸ고'는 선어말 어미 '-ᄌᆞᆸ-'을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즉, '묻ᄌᆞᆸ고'는 현대 국어처럼 '여쭙다'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 것도, 청자를 높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명사형 어미 '-ㅁ'을 사용한 현대 국어('효도함')와 달리 중세 국어('효도홈')에서는 명사형 어미 '-옴'을 사용하였다. ② 'ᄠᅳ디'에는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ㅳ')이 사용되었다. ③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한 현대 국어('성손을')와 달리 중세 국어('聖孫(성손)ᄋᆞᆯ')에서는 목적격 조사 'ᄋᆞᆯ'을 사용하였다. ④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내셨습니다')와 중세 국어('내시니이다')에서 모두 '-시-'가 사용되었다.

07 한글 맞춤법

본문 284~285쪽

01 한글 02 의사소통 03 표준어, 어법 04 원형 05 조사 06 일찍이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책이요 16 하굣길 17 주십시오 18 학생으로서 19 널따란 20 백분율 21 시들은 → 시든
22 ㉠: 꽃이, ㉡: 꽃에 23 조사 24 ④ 25 ④ 26 ⑤ 27 ② 28 ② 29 ①

07 제5항 '다만'('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에 따라 '깍뚜기 → 깍두기'로 고쳐야 한다.

08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의 뜻이고,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의 뜻이므로, '맞추면 → 맞히면'으로 고쳐야 한다.

10 '들릴'은 용언, 뒤에 오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13 제18항 '1'(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에 따라 '내밀은 → 내민'으로 고쳐야 한다.

15 제15항 [붙임 3](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에 따르면 '책이요'가 맞는 표기이다.

16 제30항 '2'(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에 따르면 '하굣길'이 맞는 표기이다.

17 제15항 [붙임 2](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에 따르면 '주십시오'가 맞는 표기이다.

18 제57항(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에 따라 '로서'와 '로써'를 구분해 적는다.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학생으로서'가 맞는 표기이다. '로써'는 재료나 수단 또는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19 제21항 '2'의 '다만'(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중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르면 '널따란'이 맞는 표기이다.

20 제11항 [붙임 1]의 '다만'(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에 따르면 '백분율'이 맞는 표기이다.

21 '시들은'은 어간('시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은'을 붙인 것으로, 잘못된 표기이다. 제18항 '1'(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에 따라 '시든'으로 적어야 한다.

22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꼬치]와 [꼬체]는 연음된 발음이므로, 본래의 형태는 각각 '꽃이'와 '꽃에'가 되어야 한다.

24 '안사람'은 [안싸람]으로 소리 나지만 '안사람'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에 해당한다.

25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④의 밑줄 친 부분은 '놀랐던지'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② '닫혔다'는 '닫다'라는 자동사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 '-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것이다. ③ '귀걸이'는 '귓불에 다는 장식품'을 이르는 말로, '귀고리'와 '귀걸이' 모두 표준어이다. ⑤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로, '생선이나 야채 따위를 간이 들거나 숨이 죽도록 소금기가 배어들게 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26 '구름'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④ '빛'은 [빋], '옷'은 [옫], '잎'은 [입], '바깥'은 [바깓]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쓴 것이다.

27 '젓가락'은 '저'(㉠)와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이 붙은 것이다. 반면 '숟가락'은 '술'(㉡)과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29항(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에 따라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다.

28 '늘리다, 발굴, 검정, 아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에 해당하며, '먹는다[멍는다], 북극점[북끅쩜], 밟는다[밤:는다]'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에 해당한다.

29 '무덤'의 어원은 '묻- + -엄'인데, '묻-'은 명사가 아니라 용언 어간이므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고랑'의 어원은 '골(명사) + -앙'이다. ③ '이파리'의 어원은 '잎(명사) + -아리'이다. ④ '바가지'의 어원은 '박(명사) + -아지'이다. ⑤ '지푸라기'의 어원은 '짚(명사) + -으라기'이다.

08 어휘 _ 고유어/한자어/외래어/전문어/사고 도구어 본문 286~287쪽

01 고유어 02 개념 03 고유어 04 외래어 05 전문어 06 ○ 07 × 08 ○ 09 ○ 10 ○ 11 × 12 고유어 13 외래어 14 사고 도구어 15 마음 16 외래어, 외국어 17 산소, 우주 18 (1) 구름, 빨강 (2) 간식, 책 (3) 로켓, 망토 19 외래어, 외국어 20 ② 21 ① 22 ③ 23 ③ 24 ④

07 바꾸어 쓸 수 있는 우리말이 존재하는 것은 외국어이다.

11 '버스'는 외래어이고 '레스토랑'은 외국어이다.

17 '꽃, 흙, 하늘, 아기'는 고유어, '산소(酸素), 우주(宇宙)'는 한자어이다.

18 '구름, 빨강'은 고유어, '간식(間食), 책(冊)'은 한자어, '로켓(rocket), 망토(manteau)'는 외래어이다.

19 '피아노(piano)'는 대체할 어휘가 없으므로 외래어이지만, '게스트(guest)'는 '손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외국어이다.

20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②는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21 '노랗다, 누렇다, 노릇하다, 누르스름하다, 샛노랗다'는 색채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며, '달다,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 들척지근하다'는 미각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를 통해 우리말 고유어에 감각어가 발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가 발달한 것은 맞지만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③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말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④ 하나의 말이 지닌 의미의 폭이 넓은 말은 많으나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2 '고치다'라는 고유어가 '개혁하다', '치료하다', '교정하다', '수정하다', '수선하다' 등의 한자어로 대응되는 것은 그만큼 고유어의 의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의 의미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오답 해설 ① 고유어에 비해 다의어가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④, ⑤ 고유어에 비해 동음이의어가 많거나, 반의 관계가 뚜렷하거나, 상위어가 발달되어 있는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3 〈보기〉의 의사 1과 의사 2는 '심계 항진', '안구 진탕', '연하 곤란' 등의 전문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답 해설 ① 전문어는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전문어는 세대와 관계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④ 듣기 거북한 말에 대해 우회적으로 발화하는 것은 완곡어법에 해당한다. ⑤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은 유행어이다.

24 〈보기〉의 밑줄 친 '분류', '구분'은 사고 도구어로, 이는 전문어와 달리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오답 해설 ①~③ '분류(分類)'와 '구분(區分)'은 한자로 된 사고 도구어이다. 사고 도구어는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말이다. ⑤ '분류'와 '구분'은 '나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두 '나누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9 품사 1 _ 체언/용언 본문 288~289쪽

01 보어 02 인칭 03 순서 04 서술어, 활용 05 성질 06 보조 용언 07 × 08 ○ 09 × 10 × 11 ○ 12 ○ 13 명사, 대명사 14 명사 15 동사 16 들어온 17 형용사, 동사 18 보조 용언 19 수, 일 20 (1) 데 (2) 그, 여기 (3) 일하는 (4) 멀다 21 허름하다 22 ③ 23 ② 24 ⑤ 25 ① 26 ④ 27 ② 28 ① 29 ③

07 '그를 잊을 리 없다.'에서 '리'는 의존 명사이다.

09 '아이 셋 중에 한 명이 매우 뛰어나다.'에서 수사는 '셋'뿐이다. '한'은 수 관형사이다.

10 '다르듯'과 '그러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19 우리(대명사)가(조사) 할(동사) 수(명사 – 의존 명사) 없는(형용사) 일(명사)도(조사) 있다(형용사).

20 그(대명사)가(조사) 일하는(동사) 데(명사 – 의존 명사)는(조사) 여기(대명사)서(조사) 멀다(형용사).

21 나(대명사)는(조사) 허름한(형용사) 책방(명사)에서(조사) 곰팡이(명사) 슨(동사) 헌책(명사)을(조사) 뒤적이며(동사) 학창(명사) 시절(명사)을(조사) 보냈다(동사). → 형용사는 '허름하다' 하나뿐이다.

22 우리(대명사)는(조사) 시골(명사) 할머니(명사) 댁(명사)에서(조사) 즐겁게(형용사) 하루(명사)를(조사) 보냈다(동사). → 수사는 들어 있지 않다.

23 '어느'는 뒤에 오는 체언 '저녁'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① '나위'는 의존 명사이다. ③ '여기'는 대명사이다. ④ '그것'은 대명사이다. ⑤ '한두째'는 수사이다.

24 '마주치다'는 동사이다.

오답 해설 ①~④ '파랗다', '비슷하다', '뛰어나다', '높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25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의 '대로'는 명사(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② '잘못'은 명사이다. ③ '열'은 수사이다. ④ '만큼'은 명사(의존 명사)이다. ⑤ '무엇'은 대명사이다.

26 '되고 싶었다'의 '싶다'는 소망의 뜻을 더하는 보조 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놀다', ②의 '인사하다', ③의 '가다', ⑤의 '오다'는 모두 실질적인 뜻을 지닌 본용언으로 사용되었다.

27 '쌓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본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놓다', ③의 '체하다', ④의 '듯싶다', ⑤의 '보다'는 모두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었다.

28 옛날(명사) 사진(명사)을(조사) 보니(동사) 기뻤던(형용사) 기억(명사) 하나(수사)가(조사) 떠올랐다(동사). → '옛날'은 명사이다.

29 〈보기〉의 ㉠은 의존 명사이다. ③의 '때'는 자립 명사로, '때가 되었다.'처럼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의 '터', ②의 '지', ④의 '만큼', ⑤의 '바'는 모두 의존 명사로,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없다.

10 품사 2 _ 관계언/수식언/독립언 본문 290~291쪽

01 가 02 서술 03 명사 04 부사 05 못 06 아이고 07 × 08 ○ 09 × 10 ○ 11 ○ 12 × 13 보조사 14 보격 조사 15 관형사, 부사 16 관형사 17 오늘 18 감탄사 19 의, 은, 이다 20 (1) 가 (2) 을 (3) 에 21 보격 조사 22 ㉠: 수사, ㉡: 관형사, ㉢: 명사 23 ㉠, ㉡ 24 ㉠: 명사, ㉡: 부사 25 ㉠: 감탄사, ㉡: 관형사 26 (1) ㉡, ㉣ (2) ㉠, ㉢ 27 ⑤ 28 ④ 29 ② 30 ②

07 같은 조사끼리 결합할 수 있으므로, 조사는 다른 조사 뒤에도 붙을 수 있다.

09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

12 '민수야'는 '명사 + 호격 조사' 형태의 독립어이지만, 감탄사는 아니다.

19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 '은'은 보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20 '아이가'의 '가'는 주격 조사, '의자에'의 '에'는 부사격 조사, '책을'의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21 '되다', '아니다'가 쓰인 문장에서 주어에 붙은 '이/가'를 제외하고 다른 체언에 붙은 '이/가'는 보격 조사이다.

22 ㉠은 자식이 세 명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수사이다. 그리고 ㉡은 뒤에 오는 체언 '살'(의존 명사)을 수식하므로 수 관형사이다. ㉢은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가 아니라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손위인 사람(맏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명사이다.

23 ㉠은 뒤에 오는 '말'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은 뒤에 오는 '사람들'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므로, 둘 다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은 '일처리'를 수식하지만, '빠르고', '빠르니'와 같이 활용하는 형용사이다.

24 ㉠은 '을'이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므로 명사이다. 그리고 ㉡은 뒤에 오는 용언 '먹어서'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25 ㉠은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로, 감탄사이다. 그리고 ㉡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 '상황'을 수식한다.

26 '이'(㉡)는 체언 '사과'를, '그'(㉣)는 체언 '연필'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또한 '이리'(㉠)는 용언 '오다'를, '그리'(㉢)는 용언 '보내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27 '마다'는 '낱낱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②~④ '에', '랑', '이며'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28 '과연'은 부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첫', ②의 '무슨', ③의 '아무', ⑤의 '온갖'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29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모름지기', ③의 '일찍이', ④의 '같이', ⑤의 '살랑살랑'은 모두 부사이다.

30 ㉡과 ㉢은 감탄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명사가 독립어로 쓰인 것이다. ㉣ 화제를 전환하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11 문장 성분 _ 주성분/부속 성분/독립 성분

본문 292~293쪽

01 보어 02 점수를 03 이상한, 마을로 04 물정에 05 독립어 06 ○ 07 × 08 ○ 09 ○ 10 × 11 주어 12 예쁘다 13 정보의 14 공원에서 15 부사어 16 나는, 동창생을, 만났다 17 보니, 우울하다 18 ㉠: 주어, ㉡: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 19 관형어 20 ② 21 ② 22 ④ 23 ② 24 ③ 25 ④ 26 ②

07 주어는 '그는'이고, '귀감이'는 보어이다.

10 부사어 '너무'는 관형어 '헌'을 수식한다.

16 '나는 어제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다.'에서 주어는 '나는', 목적어는 '동창생을', 서술어는 '만났다'로, 이들이 주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어제', '길에서', '우연히'는 부사어, '초등학교'는 관형어이다.

17 '어두운 하늘을 보다.(보니) + 괜히 기분마저 우울하다.'의 형태이므로, 서술어는 '보니'와 '우울하다'의 2개이다.

18 '어머니께서'는 주어, '형에게'는 필수적 부사어, '용돈을'은 목적어, '주셨다'는 서술어에 해당한다.

19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은 관형어이다.

20 그들은(주어) 어린(관형어) 소년에게(필수적 부사어) 중요한(관형어) 임무를(목적어) 맡겼다(서술어). → 보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21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에서 주어는 '고래는'이고, '어류가'는 보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너만'과 '나도'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④ '아버지께서'는 '체언 + 주격 조사의 높임말(께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⑤ '학교에서'는 '체언 + 주어가 단체일 때 쓰이는 주격 조사(에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22 '동생도 이제 나만큼 컸다.'에서 '나만큼'은 부사어이다. 목적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주스나'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마시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② '얘기'는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의 목적어로, '듣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③ '야구는'은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좋아하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⑤ '밥만이라도'는 '체언 + 보조사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먹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23 '연신'은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동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④ 형용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24 '친구마저'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오답 해설 ① '광화문으로'는 '체언 + 부사격 조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② '조용히'는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④ '그래서'는 접속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⑤ '어지럽게'는 '용언의 어간 + 부사형 어미'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25 ㉠야호(독립어 – 독립 성분)! ㉡우리가(주어 – 주성분) ㉢드디어(부사어 – 부속 성분) ㉣힘든(관형어 – 부속 성분) ㉤관문을(목적어 – 주성분) ㉥통과했어(서술어 – 주성분). →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 ㉡, ㉤, ㉥이고, 부속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인 ㉢, ㉣이며, 독립 성분은 독립어인 ㉠이다.

26 '아'는 독립어(감탄사)로,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세월의'는 관형어, '이토록'은 부사어, '빠른'은 관형어로, 부속 성분은 모두 3개이다. ③ ㉠은 독립어로 독립 성분이고, ㉢은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므로, 둘 다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세월의 흐름은 빠른 것인가!'). ④ ㉡은 뒤에 오는 체언 '흐름'을, ㉣은 뒤에 오는 체언 '것'을 수식하고 있다. ⑤ ㉡은 체언 '세월'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있으며, ㉤은 체언 '것'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형('인가')으로 결합되어 있다.